

12. 2월 + 0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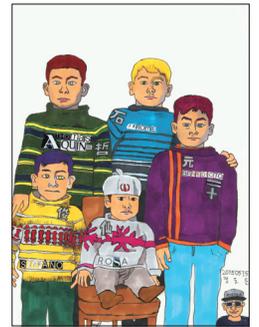


이달의 표지 작가
정도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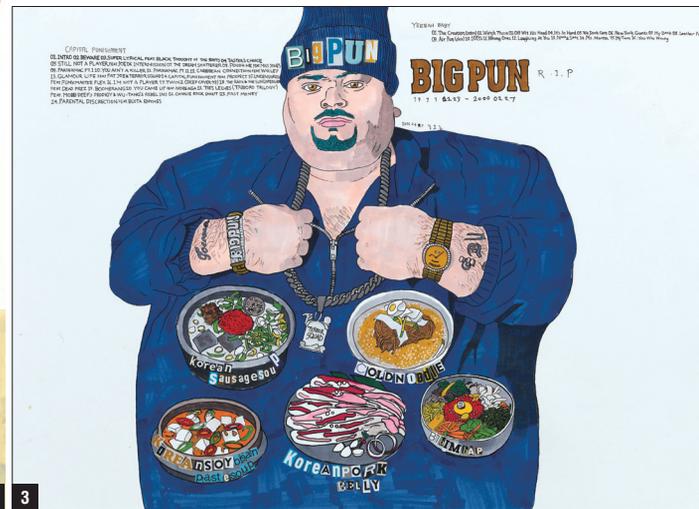
잠실창작스튜디오 제9기 입주 작가. 서울미술고등학교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로 힙합 뮤지션 등 인물을 그리고 인물을 소재로 한 캘리그래피 작업을 한다.

- 1 <신해철> 캔버스에 펜, 마커, 콜라주 | 33×24cm | 2014
- 2 <2014년 음반을 발매한 가수들> 아크릴 물감, 마커, 콜라주 | 79×220cm | 2015
- 3 <빅펀> 종이에 펜, 마커, 콜라주 | 36×51cm | 2016





표지 작품 <리틀비틀즈>
마커, 펜, 콜라주 | 32×24cm | 2015



나는 늘 음악을 듣는다. 마음에 드는 가사가 나오면 공책에 적어둔다. 음악을 들으며 인터넷 검색에 몰두한다. 나는 인터넷으로 세상을 본다.

어느 날 가수 신해철의 사망 기사가 났다. 나는 신해철을 검색했다. 그의 노래 제목, 가사, 생년월일, 가족 이름... 신해철의 빈소에 조문하고 장례식에 참석한 연예인 기사가 줄줄이 올라왔다. 그들은 신해철의 친구들일까? 그렇겠지? 그가 이 세상에서 떠나는 마지막 길에 함께했으니. 신해철이 죽어서 가장 슬픈 사람은 누구일까? 신해철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아들과 딸을 보고 싶어 하겠지? 혼자 남아 아이들을 키울 아내도 걱정스럽겠지?

인터넷의 세계는 끝도 없이 이어진다. 나는 문득 궁금한 것이 생기면 검색하고 연관 검색어가 뜨면 또 그것을 검색한다. 그것들을 내 공책에 정리하고 컴퓨터 메모장에도 모아둔다. 나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거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 슬픔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슬픈 노래를 한 뮤지션을 그리고 가

사를 쓴다. 죽음은 어떤 걸지 궁금할 때 검색을 하고 죽은 뮤지션을 그리거나 죽음을 이야기한 노래를 부른 가수를 그리며, 그 가수의 트랙 리스트를 쓴다.

사람들은 내가 그저 가수들을 많이 그리는 작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줄 뮤지션을 찾아 그리거나 그들의 이름을 모아 주제가 있는 캘리그라피 작업을 한다. 나는 보기보다 세상에 관심이 많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궁금하지만 그들에게 말을 거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이 더 쉽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걸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 나의 작업을 보고 내게 말을 걸어준다면 나는 짧게라도 대답해줄 것이다. 당신이 그 짧은 말과 그림으로 퍼즐을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당신이 만약 <빅편> 그림을 보고 배 속에 왜 이런 음식들을 그렸냐고 물어보면 나는 초고도 비만으로 죽은 빅편이 몸에 좋은 한식을 즐겨 먹었다면 더 오래 살았을 거라고 말해줄 것이다.

CONTENTS

2017.9 — VOL.127



06 테마 토크 2017, 문화철도가 달린다!

지하철을 타니 하루의 피로를 덜어줄 음악이 흘러나 오고, 역사에는 어느 미술관처럼 기념 촬영을 위해 방문객이 줄을 서고, 미술작품이나 공연을 감상하고 책을 읽는 사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달리는 미술관', '달리는 도서관'이 있다면? 다소 터무니없게 느껴지는 이 즐거운 상상이, 이제 곧 현실이 된다. 9월호 '테마 토크'에서는 '문화 이동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문화철도' 프로젝트의 첫 시작인 우이신설선을 소개한다.



22 사람과 사람 등단 60주년 맞은 소설가 정연희

기독교적인 깨달음과 사회와 문명에 대한 비판을 작품으로 써온 정연희 작가가 올해 등단 60주년을 맞았다. 1957년 이화여대 3학년 때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뒤 지금까지 장편 30여 권, 단편집 9권, 그 외 다수의 에세이집을 펴내며 작품 활동을 한 햇수만으로도 웬만한 중견 작가의 나이에 이르렀다. 이 긴 세월에는 파란만장하고 고통스러운 개인적 불행이 길가의 돌부리처럼 박혀 있다. 하지만 작가는 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며 겪은 고통이 버팀목이었다고 회고한다.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주철환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안현미, 씨네21(주)
객원 편집위원 전민정
디자인·사진 씨네21(주)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00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unhwaplusseoul
발행일 2017년 8월 30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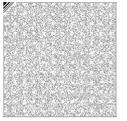
32 진실 혹은 대담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묻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계와 최소한의 합의도 없이 7월 10일부터 신임 위원장 공모를 진행했다. 이에 문화예술계는 위원장 선임 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진행 중인 공모 자체를 중단하기보다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본래의 설립 취지를 회복하고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문화예술계의 염원이 모인 자리였다.



48 화제 음악극 <100년의 예술가, 윤이상×윤동주>

올해 한국 문화예술계의 주인공은 탄생 100주년을 맞은 두 예술가다. 바로 시인 윤동주(1917~1945)와 작곡가 윤이상(1917~1995).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두 거장 예술가의 삶과 작품을 기리는 행사가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다. 9월 2일, 서울 청운동 윤동주문학관, 시인의언덕에서는 서울문화재단과 종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음악극 <100년의 예술가, 윤이상×윤동주>가 펼쳐진다.



01 커버 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정도운

04 발행인의 말
주철환의 더다이즘, 열두 번째

테마 토크 2017, 문화철도가 달린다!

08 교통복지를 넘어 문화복지로
달리면 달리 보이는
'달리는 문화철도'가 온다

10 문화 이동성(Cultural Mobilities)의 시작
다양한 시선을 공유하는
'문화의 이동' 실현을 위하여

14 출발역에 선 '문화철도' 프로젝트
서울 동북권을 관통하는 우이신설선,
'문화철도'로 태어나다

18 우이신설선 문화철도 프로젝트 관련
특별 대담
지하철역도 큐레이션이 필요하다

사람과 사람

22 등단 60주년 맞은 소설가 정연희
"고통이 내게는 버팀목이었다"

28 연극 <에어콘 없는 방>
고영범 작가·이성열 연출
삶이라는 현기증

32 진실 혹은 대담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묻는다

38 예술가의 밥그릇
커스텀 크루저 바이시클 디자이너 홍장근

42 서울 찰나
박인환 시인의 <세월이 가면> 중에서

공간, 공감

52 공간1
청년 메이커스 코워킹 스페이스 '세운 561호'

54 공간2
도심 속의 쉼 '당신의 자리'

56 공감1
연극 <타지마할의 근위병>과 <노숙의 시>

58 공감2
임옥상 개인전 <바람 일다>와
송창 개인전 <꽃그늘>

60 공감3
책 <어려운 여자들>과 <폭스파이어>

62 예술적 상담소

이슈 & 토크

44 쟁점 1
미술작품도 '직구'하는 시대

46 쟁점 2
예술계 '갑질' 논란

48 화제
음악극 <100년의 예술가, 윤이상×윤동주>

50 아무나, 아!문화! PD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예술로 상상극장>

Soul of Seoul

64 메모리인 서울
시대를 풍미한 여배우, 김지미와 엄앵란

66 서울 단상
천수림 작가의 정동 산책

68 서정민의 썬(說)
한국 록 페스티벌 흥망사

70 장일범의 음악 정원으로
우리 시대 최고의 소프라노 안나 네트렙코

72 서울 건축 읽기
고 차운기 건축가의 '12주(柱)'

74 영화의 틈
앤서니 밉겔라 감독의 <리플리>와 영화음악

9월의 서울문화매뉴얼

76 9월 Calendar

84 편집 후기

주철환의 더다이즘, 열두 번째

가을비 유산 속

탤런트 김혜자 씨는 오랜 기간 '국민엄마'로 사랑받았습니다. 그 애칭을 가져다준 건 바로 MBC 드라마 <전원일기>죠. 검색해보니 1980년 10월 21일부터 2002년 12월 29일까지 무려 1,088회나 방송됐다고 하네요. 한국 드라마 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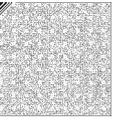
국민엄마 옆에는 당연히 국민아빠도 계시겠죠. <전원일기>에서 김혜자 씨의 남편으로 나왔던 최불암 씨입니다. 지금도 서민적인 품모로 '한국인의 밥상'을 찾아 전국을 누비고 계시죠. 20년 이상 금슬 좋은 부부로 살았는데(?) 그분들의 극중 이름을 아는 시청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영원한 양촌리 김 회장 부부죠. 내친 김에 신상기록을 뒤져보니 김 회장님의 극중 이름은 김민재, 그 아내 분은 이은심이라고 나와 있네요.

김민재, 이은심은 몰라도 양촌리라는 마을 이름은 여전히 중장년 시청자들의 추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과연 양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제작진은 무정하게도 행정구역상 양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오히려 양촌리는 국민 모두의 고향이 되는 결과를 낳았으니까요. 지도 속에 없지만 마음속엔 있는 양촌리. 갈 수 없어서 오히려 그리운 그곳. <전원일기>가 국민드라마로 남게 된 이유입니다.

2주에 한 번 <전원일기> 녹화가 있는 요일이면 방송사 전체가 양촌리로 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 회장택 식구뿐만 아니라 일용 엄마, 복걸이, 응삼이, 귀동이, 쌍봉댁 등 마을사람들이 분장한 채로 구내식당에 단체로 나타나 '새참'을 먹었죠.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둘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아련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한때는 <전원일기>의 양촌리가 어렵פות이 양수리 근처가 아닐까 추측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거는 단순합니다. 현장에서 쓰는 말로 그냥 이미지와 사운드가 비슷해서죠. 경기도 양평군 소속이니까 저는 '양평(楊平) 군내의 물 좋은 마을' 정도로 편하게 상상했습니다. 최근에서야 양수리가 남한강과 북한강, 양(兩)쪽의 물(水)이 만나는 곳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순우리말 '두물머리'가 양수리라는 사실도 새삼 확인했죠. (제가 지리시간에 가끔 즐겼던 모양입니다.)

양촌리와 양수리가 오늘 제 글에 느닷없이 등장한 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50대 여성(장차현실)과 40대 남성(박주성)이 있습니다. 현실 씨는 발달장애인 따님을 둔 만화가입니다. 지난달 24일 KBS <사랑의 가족>은 16년째 양평군에 사는 만화가 장차현실 씨와 딸 정은혜 씨를 소개했습니다. 은혜 씨는 양평군 서종면에서 '문화리 리버마켓'이 열리는 주말이면 캐리커처를 그려주며 이웃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서울문화재단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달리는 미술관'으로 이름 붙인 '문화철도' (우이신설 도시철도) 탑승객들은 정은혜 작가의 그림을 객실에서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현실 씨를 현실에서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이 쓴 글은 이미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었습니다. "양평에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감싸주는 환경이 있다. 눈물을 흘리며 문득 창밖을 바라보면... 인상을 잔뜩 쓰고 운전하다가 바라본 산과 들과 강은 나에게 '뭘~그래, 다 괜찮을 거야~'라며 훈훈하게 위로해 주었다."



이제부터 박주성 씨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다솜이, 초등학교 6학년 다슬이, 두 따님을 둔 그는 아마도 지난 1년 간 저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직원일 겁니다. 작년 9월 저는 그를 '수행비서'로 처음 소개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는 누가 누구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동행'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출근하러 집을 나서는 순간 저의 발걸음은 곧바로 친구의 음악실로 이어집니다. 제가 추천한 다이얼에 주파수를 맞춘 후부터 우리의 음악적 취향은 놀랍도록 빨리 닮아갔습니다. 예능PD 출신인 저는 음악마다 해설을 해주고 그는 차분하게 공감해줍니다. 노래가 있고 미소가 있고 무엇보다 진심이 있는 작은 공간은 저의 하루를 환하게 열어줍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주성 씨가 주로 말을 하고 제가 맞장구를 칩니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절반 정도는 양평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말농부입니다. 큰처남과 함께 깻잎, 상추, 생강, 배추, 감자, 거기다가 사과, 배, 포도, 자두까지 재배합니다. 올해는 탄저병으로 고추농사가 망했다고 말할 때는 여지없는 양촌리(실제로는 양평 국수리) 농부입니다. 봄에는 직접 키운 감자 몇 개를 선물로 주었는데 감자 찌는 냄새가 그렇게 달콤한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친절한 주성 씨와 옥상정원에서 사진을 찍기로 한 날 아침에 가을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우리는 빗물 덕분에 우산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흘러온 두 물이 양수리에서 만나듯 우리네 인생도 만남의 연속이란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올가을엔 저도 양평에 소풍을 가야겠습니다. 하루쯤 양촌리 사람으로 살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난중일기를 쓴다는 지인에게는 가끔 전원일기도 써보라고 권할 참입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정환



2017. 문화철도가 달린다!

서울의 지하철 노선은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히 엮여 서울시 전역을 오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편리한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하면 어두컴컴한 지하를 구간 반복해야 하는 답답함, 출퇴근길의 혼잡스러운 '지옥철', 각자 스마트폰에 얼굴을 묻은 채 시선 한 번 나누지 않는 현대인의 삭막한 정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풍경이 떠오른다.

하지만 상상해보자. 지하철을 타니 하루의 피로를 덜어줄 음악이 흘러나오고, 역사에는 어느 미술관처럼 기념 촬영을 위해 방문객이 줄을 서고, 미술작품이나 공연을 감상하고 책을 읽는 사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달리는 미술관', '달리는 도서관'으로 탈바꿈한다면? 다소 터무니없게 느껴지는 이 즐거운 상상이, 이제 곧 현실이 된다.

9월호 '테마 토크'에서는 대중교통 공간을 새로운 문화적 대안으로 삼는 '문화 이동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하철역을 문화예술과 연계하는 '문화철도' 프로젝트의 첫 시작인 우이신설선을 소개한다. 지하철역은 더 이상 '지나치는 장소'가 아닌, 발길을 잡고 눈길을 끄는, 마음이 머무는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이다.



교통복지를 넘어 문화복지로

달리면 달리 보이는 '달리는 문화철도'가 온다

베이비붐 세대 중에는 “우리 어릴 적엔 전기도 안 들어왔어”라며 호롱불 추억을 말하는 이들이 많다. 신세대 중에서도 버스가 하루에 서너 번밖에 들어오지 않는 ‘깡촌’에 살았다며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다. 도시 교통수단으로 만원버스가 일반적이던 60~70년대 초를 지나 지하철 1호선이 1974년에 개통된 지 43년이 지났다. 이용률이 1%에 불과했던 지하철은 서울시민의 68%가 이용할 만큼 대중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그 많은 유동인구를 따라 지하철 안으로 상업광고와 상가라는 자본이 들어왔다. 해외에선 깨끗한 지하철, 와이파이 잘 터지는 지하철로 명성이 높지만 정작 시민들은 성형외과 광고, 대출광고 등 무질서한 광고의 범람과 체계적이지 못한 정보 디자인으로 피로도가 높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책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및 역사 내의 상업광고와 인도를 침범한 상가들을 점차 비워내고 보다 쾌적한 지하철, 걷기에 좋은 ‘지하 보행 도시 서울’을 준

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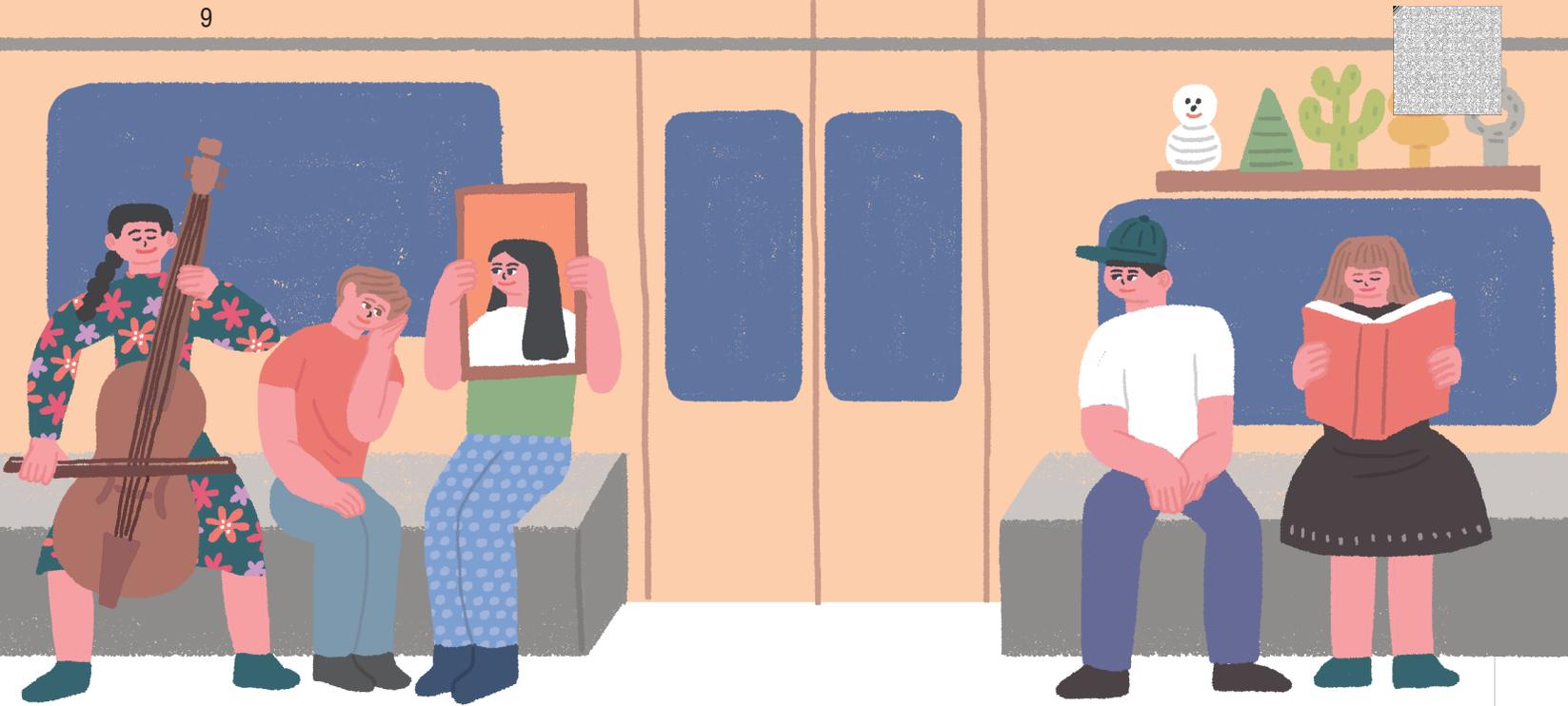
서울 외곽의 지하철역은 물론 시청역이나 을지로 같은 중심가의 지하철 광고까지 텅텅 비어 있는 걸 보면 이런 변화는 필연적이지 않나 싶다. 2호선 지하철 광고의 유료 게재률이 45% 수준이고 문화예술 광고 비중이 6.7% 수준이라면 공공선을 추구하는 캠페인이나 문화예술 콘텐츠 광고의 대상으로 다양한 파트너와 협업하는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13개의 문화예술 테마 역사

마침 동대문, 성북, 강북을 잇는 서울도시철도 지선 1호 우이신설선은 13개의 역사를 문화예술 테마로 특화한다는 소식이다. 특히 중점인 북한산우이역을 비롯, 북한산보국문역, 화계역 등 북한산으로 바로 이어지는 역들이 있으니 우이신설선은 도심에서 23분이면 북한산 입구에 닿을 수 있는 자연 도시철도로 제격이다.

기존 지하철이 10량인 데 반해 우이신설선은 달랑 전동차 2량으로 이루어진 ‘꼬마 전철’이다. 지하철 역사도 보도에서 바로 연결되고,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오래 걷지 않아도 바로 탈 수 있다. 열차 안은 복도가 좁아서 마주 보는 이가 친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진다.

어쩌면 우이신설선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기존의 지하철에서 만났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동네 골목 귀퉁이의 세탁소 아저씨일 수 있고, 옆집 다세대 빌라에 사는 아주머니일 수도 있다. 그동안 삶의 현장을 오가며 허겁지겁 지하철을 타고 다녔다면 우리는 이제 동네 꼬마 전철에서 “이게 누구야?”, “안녕하세요?”, “하하~ 너



어느 집의 누구 아니니?”라는 반가운 인사를 나눌지도 모를 일이다. 기존 광고판이 상업광고 일색이었다면 여기에는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 혹은 새로 생긴 ‘힙한’ 가게가 소개될 수 있다. 미처 몰랐던 우리 동네의 미래유산 이야기, 촛불시위의 역사를 찾아가는 민주화 둘레길, 독립운동가 16인의 묘소 지도도 와이드 광고판에서 만날 수 있다.

지하철역에 동네 예술가들이 마실 가듯 나가 공연을 하고, 사계절의 북한산 나뭇잎들을 찍어내는 판화 놀이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역사 안에는 고액의 임대료를 내고 들어오는 프랜차이즈 매장 대신 켄트 동아리의 어머니 회원이 주인공인 부영이 공예품 가게가 들어선다. 대학과 가까운 솔밭공원역이나 정릉역, 성신여대입구역에서는 대학생들이 졸업 전시 쇼 케이스를 비롯해 자신들의 역량을 펼쳐 보이는 무대를 올린다. 북한산보국문역 박경리 가옥, 가오리역 윤극영 가옥, 문익환 목사 생가 등 곳곳에 인생 문구를 새겨 놓아 보물찾기 놀이하듯 명언 명구를 찾아볼 수도 있다.

바빠 지나치던 장소가 머무는 장소로

이렇게 달리면 달리 보이는 ‘달리는 문화철도’ 프로젝트는 기존 광고판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지하철 역사(驛舍)가 그 지역의 생활문화 플랫폼이 되고, 지역 주민이 지하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문화민주주의의 역사(歷史)를 만들어나간다.

물론 필자의 상상이다. 모바일로 신청한 책을 출근길 지하철 무인도서관에서 받고, 지하철 안에서 전자책을 내려받아 읽는다. 하루

에 516회나 운행하는 지하철은 저마다 주제가 달라서 조금만 기다리면 ‘달리는 도서관’, ‘달리는 미술관’, ‘달리는 뮤지컬’, ‘달리는 그린 캔버스’ 등 취향 따라 골라 탈 수도 있다.

무인 운행으로 역무원은 없지만 마을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문화역장이 따로 있다. 솔샘역은 문학 테마의 도서관 특화역으로, 4.19민주묘지역은 역사 테마의 민주시민 역사로, 북한산우이역은 자연 테마 역사로 거듭난다. 신설동역의 아트스테이션, 성신여대입구역의 우잉아트(놀라움을 표현하는 ‘우잉?’에서 착안한 ‘왜상아트’(Anamorphosis)) 등 지하철역마다 사진을 찍고 싶은 포토 존이 탄생하고, 명절 무렵에는 동네 VJ와 DJ가 지하철 스튜디오에서 특집 방송도 꾸려나간다.

‘달리는 문화철도’란 ‘이동한다’는 뜻의 달린다와 함께 ‘달리’ 보는, ‘달리’ 생각하는, ‘달리’ 여기는, ‘달리’ 인정하는 등 ‘다른 것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다. ‘오래된 미래’ 같은 강북 문화에 자부심을 갖도록 다양한 사람들의 저마다 다른 삶의 이야기를 담는다.

그리하여 지하철이 스치고 지나가는 ‘비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시민들의 ‘서로 다른 빨짓’으로 발길을 멈추고, 머물고, 다시 또 모이는 ‘장소’로 진화한다. “지하철을 탔는데 우잉? 지하철이 아니고 미술관이네?”, “지하철을 탔는데 우잉? 도서관이네?” 하는 시민들의 반가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9월, 놀라움과 새로움이 가득 찬 달리면 달리 보이는 ‘달리는 문화철도’가 온다.

글 오진이, 서울문화재단 전문위원, 문화철도TFT팀장 그림 최지예

문화 이동성(Cultural Mobilities)의 시작

다양한 시선을 공유하는 '문화의 이동' 실현을 위하여



시골 어느 빈집의 벽면에 칠판이 생겼다. “Before I die, I want to...” 라는 문장 뒤로 그려진 밑줄에 문장이 하나둘 채워졌다. “죽기 전에 나는 해적질을 해보고 싶다”는 장난 어린 문구부터, “죽기 전에 나는 그녀를 한 번 더 붙잡고 싶다”는 애절한 마음도, “죽기 전에 나는 완전한 내가 되고 싶다”는 다소 철학적인 소망도 기록되었다. 이는 2011년 초 뉴올리언즈에서 시작된 <Before I die, I want to...> 프로젝트의 내용이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Candy Chang은 TED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같은 공공장소를 공유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이웃과 마주치지는 않기에 수많은 지혜를 함께 나누지 못한다.” 이제껏 거리는 통상적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잇는다는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저 이동을 위한 공간일 뿐이었기 때문에, 사람과의 대면은 ‘만남의 장소’라는 특수한 공간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이 또한 일시적이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버려진 거리를 지나던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거리뿐만 아니라 공항과 기차역 등과 같은 공간 또한 양극의 목적지를 더욱 빠르게 연결하려는 방향으로 발달한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이동성(Mobility)이 함축하는 사회·문화적 테제(these)에 대해 고민하는 단초가 되었다. 조금 더 빨리,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인간의 욕구로 시간이 단축되면서 공간은 개별성과 아우라를 상실한 채 부유하고 있다. 이 공간을 마크 오제(Marc Augé)는 ‘비장소’(Non-place)라고 했다. 관계성, 역사성, 정체성을 띤 공간을 장소라 일컫는다면, 비장소는 그렇지 않은 공간을 말한다. 그러나 공간은 사람의 관점과 시각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므로, 특정 공간이 절대적인 장소나 비장소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미화원에게 거리는 일터이며, 아이들에게 거리는 놀이터인 것과 같다. 이는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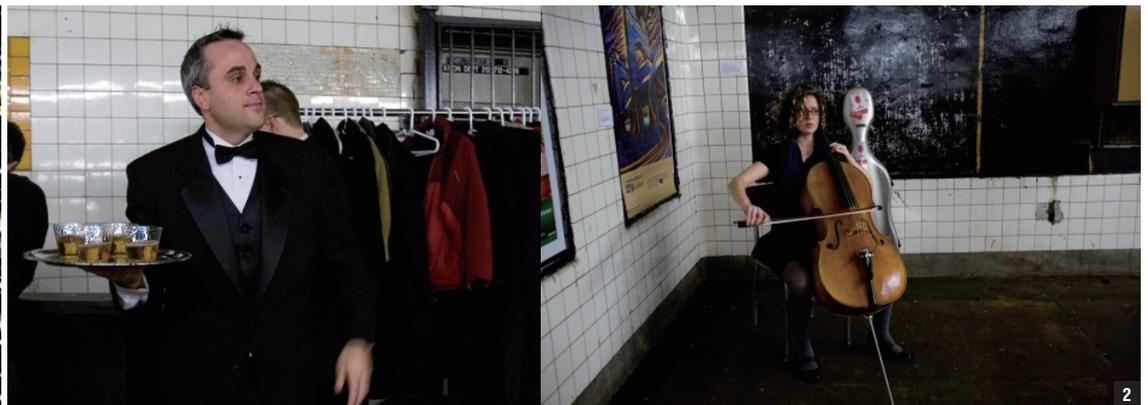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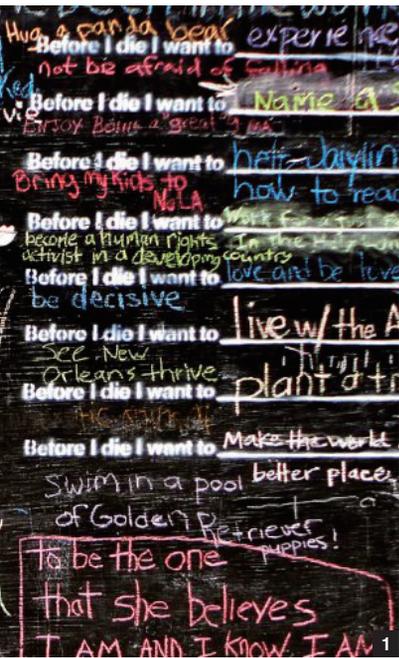
리가 지금 ‘문화 이동성’(Cultural Mobilities)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공간 자체로서의 의미를 살피는 것이 아닌, 공간의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지하철이라는 텍스트와 읽기, 쓰기의 민주적 유희

현대사회를 시각화하는 수많은 영상콘텐츠에서 행인은 대부분 흐릿한 형태로 등장한다. 지하철 플랫폼에서도 이들은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며, 사람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일은 거의 없다. 길을 묻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성추행, 흡연 등 부정적인 이유일 것이나,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길을 찾을 수 있고 부정적인 이유의 시정을 위해 당사자에게 말을 걸기보다는 신고센터에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불가피한 소통은 침묵 속에서 글자 또는 비언어적인 눈짓이나 몸짓에 의한다. 지하철의 행인에게 지하철이 이동하는 각 지역은 점과 선에 의해 도식화된 모습으로 인식되며, 열차의 현황을 알리는 전광판, 교통카드의 리더기, 표지판 등의 다양한 표식으로 경험된다. 이와 같은 표식은 방향을 안내하거나 지시할 뿐, 어떠한 이야기도 함축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개 지하철이라는 텍스트는 이동을 위한 목적 자체로서 의미를 띤다.

그러나 이 같은 공간의 의미는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한 한 이색적인 사물로 변하기도 한다. SF 아티스트인 프랭크스(Franks)는 미국





- 1 뻘죽하게 적힌 <Before I die, I want to...> 프로젝트 칠판.
출처, <http://beforeidie.city>
- 2 <Subway Art Gallery Opening> 프로젝트.
출처, <http://improveverywhere.com>
- 3 SF 아티스트인 프랭크스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바트에 그네를 설치해 승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www.hunterfranks.com

샌프란시스코의 한 바트(BART), 다시 말해 지하철 내부에 그네를 설치하여 승객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많은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바트를 목적지까지 타고 가는 수단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것으로 보길 바란다”고 했다. 단순히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수단일 뿐이었던 바트는 그네의 등장으로 놀이공간으로서 그 의미를 확장했다. 이 프로젝트는 이색적인 이벤트를 통해 공간의 틀을 깨으로써 일상적인 공간의 텍스트를 새로이 읽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사례다.

이제, 지하철에서 내린다. 쟁반을 든 안내원이 샴페인을 권하며 걸음을 맡길 것인지 묻는다. 관람객은 천천히 걸으며 첼로 연주를 듣고, 벽면에 부착된 작품을 감상한다. 흔히 볼 수 있는 전시회의 풍경이다. 이 전시회는 지하철 플랫폼에서 열렸다. 플랫폼의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공중전화기는 교통 당국에 의해 제작된 <Telephone

Line>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되었다. <Black Metal Slam Gate with Panic Bar>라는 제목을 단 유지관리책임자의 작품은 원래 비상탈출로를 막아두기 위해 설치한 안전문이었다. 각 작품의 옆에는 태그가 있어 관람객의 이해를 도왔다. 익히 알고 있던 공중전화기는 통신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지만, <Telephone Line>은 공중전화기가 전 세계로의 접촉과 동시에 물리적 이동을 위한 통신 중단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Black Metal Slam Gate with Panic Bar>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벽’에 지나지 않지만, 이와 동시에 보행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점을 관람객에게 알린다. 이는 뉴욕의 코미디집단인 ‘Improv everywhere’가 2009년에 진행한 <Subway Art Gallery Opening>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전시장을 재매개함으로써 지하철이라는 텍스트를 다시 읽어내려 시도한 것이었다. 기실 공중전화기와 안전문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누군가의 필요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그저 의식화되지 않은 구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시는 익숙하기 때문에 지나칠 수 있었던 대상을 재발견하게 한다. 전시가 끝나고, 2014년에는 지하철 플랫폼에 짐질방이 들어섰다. 수건으로 몸을 가린 사람들이 의자에 몸을 기대어 앉았다. 프로젝트 요원은 사람들에게 레몬과 박하가 담긴 물을 권하고, 돌 마사지 서비스도 제공했다. <The Subway Spa> 프로젝트의 내용이다. 'Improv everywhere'는 공공장소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면서 공간을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해체하며, 재해석한다. 이렇듯 비장소의 공간은 하나의 규정된 장소의 의미가 아닌,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다양한 장소의 옷을 입고 벗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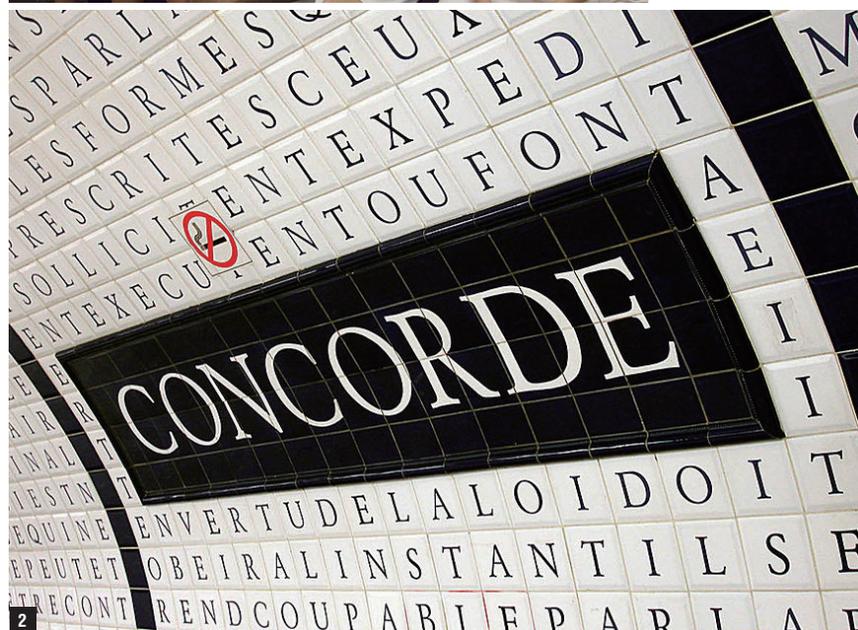
문화 이동성의 두 가지 방향

다른 한편,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비장소의 공간으로 회자되는 공간과 기차역 등이 예외적으로 전통적인 장소성을 띠는 사례도 있다. 이를테면 러시아의 모스크바는 지하철 역사를 박물관화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인다. “모스크바에서 가장 가까운 박물관은 지하철역”이라는 말이 있듯, 모스크바의 지하철역은 각 지역의 역사와 유명인사 등의 모습을 반영했다. 가령 플로샤디 레볼류치(Ploshchad' Revolyutsii)역은 ‘혁명광장’이라는 역명의 뜻을 표현하듯, 사회주의 혁명을 이끈 인물들의 동상이 전시되어 있다. 도스토옙스카야(Dostoyevskaya)역은 <죄와 벌>의 작가인 도스토옙스키(Dostoevskii)를 기념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죄와 벌>의 인물이 역사 내부에 벽화로 그려져 있다. 프랑스의 300여 개가 넘는 지하철역 또한 지역과 관련된 콘텐츠로 장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콩코드(Concorde)역의 벽면에는 인권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을 기록하는 타일이 부착되어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지하철역이 지역의 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몫을 한다. 예를 들어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가리키는 '4.19민주묘지역'의 역명을 '시민혁명역'으로 변경한 다거나, '정릉역'을 조선을 건국한 태조의 비인 신덕왕후에 관한 이야기로 채우는 일은 지역의 역사성을 드러내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지하철역과 지역의 역사성을 연계함으로써 지하철역이 문화공간으로서의 위상을 띠고, 크게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우리는 '문화적 이동'이라 부른다. 향유 가능한

문화자본을 이동경로의 도처에 두는 것은 분명 중요한 작업이지만, 이는 향유자의 개입과 상관없는 문화자본 자체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 지역을 오가는 행인의 관계와 그들에게서 공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 지하철역이라는 공간 자체를 문화자본으로 가득 채우려는 노력보다 소소한 창의적 활동, 즉 '문화의 이동'에 주목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창의적 활동은 오늘날 현대의 논리가 만든 수많은 비장소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한다. 수레를 끄는 노인의 모습으로(마린보이 <고물수레>), 때로는 빌딩숲 앞 어깨를 늘여트린 직장인의 모습으로(극단 KTO <순례자들>). 노인이 수레를 끌고 걷는 거리에 화려한 도시 이면의 모습이, 직장인이 비좁게 걸터앉은 철제 의자에 현대인의 피로





3



4

- 1 <The Subway Spa> 프로젝트.
출처_ <http://improveverywhere.com> (사진_ Arin Sang-urai)
- 2 인권선언을 기록하는 타일이 부착된 프랑스 콩코드역.
출처_ www.wikipedia.fr
- 3 마린보이의 공연 <고물수레>.
- 4 극단 KTO의 공연 <순례자들>.

가 묻는다. 거리의 행인은 노인의 수레에 박스를, 순례자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그렇게 행인은 예술을 통해 일상공간의 무대에 등장하고, 그 무대에는 다시 수레를 끄는 현실의 노인과 어깨를 늘어트린 현실의 직장인이 오른다. 칠판과 투박한 문구, 그네, 전시회에서나 볼 법한 태그, 레몬과 박하가 담긴 물, 수레를 끄는 노인, 빌딩숲 앞 직장인에 행인이 개입하면서 공간은 놀이터로, 전시장으로, 때로는 찜질방으로 변화하고, 나아가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다. 한 연구자가 언급한 바 있듯, 대중들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 외에 지하철을 공간적으로 체험하고 그 와중에 세속적으로 사유한다. 행인은 공간을 가로지르는 기호를 타고 각종 영화와 드라마, 웹툰, 악동뮤지션의 <지하철에서>와 왁스의 <지하철을 타고> 등의 노래에 등장한다. 앞에서 언급한 <Before I die, I want to...> 프로젝트는 해적이 되고 싶은, 그녀와의 만남을 염원하는, 삶을 고뇌하는 누군가의 내면에 숨겨두었던 오늘의 역사를 거리에 기록하여 침묵 속의 행인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제 우리는 지역의 문화적 요소를 접할 수 있는 '문화적 이동'을 바탕으로, 행인의 다양한 시선을 공유하는 '문화의 이동'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화 이동성' 작업은 공간의 심층 논리를 파악하기 위한 인류학적 행위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그 속의 여러 행인을 새로이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로써 예술로 더 새롭고 문화로 다즐거운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글 류지민,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연구스태프, 한국외국어대 문화콘텐츠학과 박사 수료. 공저로 <문화연구와 문화콘텐츠>가 있다.

참고 자료

<모빌리티> 존 어리(2014), 아카넷.

김성도(2005). 세계화 시대, 인류문화의 향방: 프랑스 인류학자 마크 오제와 김성도 교수의 대담. 문화와 사회, 통권70호.

이상봉(2017). 모빌리티의 공간정치학: 장소의 재인식과 사회관계의 재구성. 대한정치학회보, 25집 1호.

전규찬(2008). 공적공간 서울지하철의 문화정치적 읽기.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정현목(2013).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non-place)"의 등장: 마크 오제의 논의와 적용 사례들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9권 1호.

조명래(2015). 모빌리티의 공간(성)과 모바일 어버니즘. 서울도시연구, 16권 4호.

"Before I die I want to ...", Ted(Candy Chang), 2012년 7월.

"SF 아티스트, 바트 안에 허가받지 않은 그네 설치", 한국일보, 2016년 9월 7일.

"[세상교과서] 가장 가까운 박물관, 모스크바 지하철", YTN, 2015년 10월 3일.

"프랑스 문화가산책: 파리의 지하철(Les métros de Paris)", 주오이시대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 2016년 10월 21일.





출발역에 선 '문화철도' 프로젝트

서울 동북권을 관통하는 우이신설선, '문화철도'로 태어나다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를 관통하는 총 13개 역의 지하철이 개통된다. 지금까지의 지하철과 다른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지하철의 미니멀리즘을 실현했다. 모든 게 작다. 열차는 물론이고, 심지어 역사 플랫폼까지도. 지하철 2량이 1편성으로 운행된다. 편성당 좌석 수는 고작 48석이며, 입석을 포함해 한 번에 174명만 이동할 수 있다. 실제로 객차를 타보면 마주 보고 앉아 있는 승객이 상당히 가깝게 보인다. 마을버스의 아늑함이 느껴질 정도로. 당초 7월 29일 예정이던 개통일이 9월 2일로 연기됐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안전 때문이었다. 열차 간 운행간격을 2분 30초에서 3분으로 연장해야만 했다.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해 서행이 필요했다. 이 말인즉 급출발과 급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이면에 깔려 있다. 이 열차는 지하에서 무인으로 운행되는 서울특별시의 첫 번째 도시철도 '우이신설선'이다.





- 1 우이신설선 외부 예상 모습.
- 2, 3 역사에 설치될 와이드 컬러, 레일형 전지 포스터 광고 예시.



문화적 이동성, 현실이 되다

우이신설선 공사가 시작된 이후 개통이 되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중간에 몇 번의 중단 위기도 있었지만 이제야 개통이 된다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지하철이 다니는 구간은 강북구 우이동에서 동대문구 신설동까지 총 11.4km다. 기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50분이나 걸렸던 시간이 23분으로 단축됐다.

서울은 이미 25개 자치구 전역에 걸쳐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선진 사례로 꼽힐 정도다. 그러나 우이신설선이 관통하는 서울 동북권은 교통의 사각지대로 악명이 높다. 게다가 이 지역의 지리적, 인구 통계적, 경제적, 문화만족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한눈에 보는 서울 2016’에 따르면 우이신설선이 지나가는 동북권은 200만 원 이하 소득자 비중이 두 자릿수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또한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에서는 동북권이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부족한 문화소외 지역으로 인식되어 주민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문화만족도는 바닥을 친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 분석으로 인해 서울시는 새롭게 태어나는 우이신설선을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지하철로 만들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지

역 주민을 위한, 지역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지하철의 첫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보통 지하철을 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폰에 빠져들거나 잠으로 시간을 때운다. 옆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지하철을 운송수단 이상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트렌드는 변했고, 점차 지하철로부터 1차적인 목적 이상을 기대하기 시작했다. 이를 ‘문화적 이동성’(Cultural Mobilities)이라 부른다. 대중교통 수단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공간으로 머물지 않고 새로운 문화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런던, 스톡홀름, 뮌헨 등 유럽의 지하철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지하철의 양옆으로 뻗어 있는 광고판에는 각종 공연과 전시 게시물이 넘쳐난다. 사람들이 이동하는 통행로에는 전시장에서나 볼 수 있는 멋진 작품이 걸려 있다. 심지어 플랫폼까지 문화공간이 됐으며, 사람들의 눈길이 닿는 곳곳에 예술의 흔적이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지난 2월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가와 통행로 기능 중심의 지하철 역사 공간을 개선해 문화와 예술이 숨 쉬는 공간으로 바꾸겠다”라고 발표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관련 부서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번에 개통되는 우이신설선이 문화철도로 태어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 있기를 바란다.”

- 1 정돈은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되는 '달리는 미술관'.
- 2 광고매체의 한 종류인 에스컬레이터 아트스테이션.
- 3 북한산우이역에 설치되는 왜상아트.

달리는 문화철도



시민들의 일상을 '달리는' 문화철도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를 열어 2017년 경영전략을 발표했다. 올해의 경영목표를 2가지로 요약한 것인데, 하나는 생활 속 문화예술을 시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문화정보를 생산, 전달하는 '아무나PD'이며, 다른 하나는 일상과 가장 밀접한 공간인 지하철역을 문화예술과 연계해 더 즐겁고 다 행복한 문화생활을 구현하는 '문화철도'이다. 이 중에서 필자는 두 번째로 언급된 '문화철도'를 소개하려 한다. 지하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프로젝트는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만큼이나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었다. 25개 자치구와의 이해관계,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업체들과의 계약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경제적 기회비용 등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이신설선에 주목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으로 문화를 채우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기 때문이다.

서울문화재단은 우이신설선에 장착될 '문화철도'의 슬로건을 철도 이미지에서 유추해 '달리는 시리즈'로 정했다. 개통에 맞춰 우선적으로 '달리는 도서관'과 '달리는 미술관'이 시작된다. 달리는 열차 안과 역사 곳곳이 문화의 현장으로 변화한다. 그렇다고 단순히 차량 내부를 래핑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요소를 더할 것이다. 유명 예술가의 기

성 작품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지금까지의 지하철 프로젝트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배경으로 만들 것이다.

"지하철 광고판 10개 중 7개가 텅텅." 이는 제작년 한 일간지의 기사 제목이다. 실제로 지하철 1~8호선에서는 광고판의 3분의 2 이상이 비어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서울에서 가장 번잡한 곳 중 하나라는 강남역도 예외는 아니다. 그나마 있는 광고판조차 하얀 천으로 뒤덮여 있을 정도며, 광고가 가장 잘 팔린다는 2호선조차 수익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채워져 있는 광고판도 끊임없이 문제가 지적됐다. 대부분 피부과, 성형외과 등의 상업광고로, 천편 일률적이다. 지하철 이용객들은 이런 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기 시작했다. 런던의 지하철 광고는 문화예술 광고가 20%에 육박하는 데 반해, 서울은 고작 6.7%에 머물고 있으니 문화 처방전이 더욱 시급해 보인다.

'문화철도'의 2가지 미션

'문화철도' 프로젝트의 첫 번째 미션은 문화예술 광고매체 운영에 있다. 이는 오는 9월 2일 개통하는 우이신설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상업광고가 아니라 문화예술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문화, 디자인 관련 전 부서를 비



장시간 노동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북한산의 세봉우리를 재해석한 타이포 왜상아트와 벤치로 '심'의 가치를 전달

롯데 서울도서관, 서울시립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등이 참여한다. 단순히 광고판에 축제나 자치구의 정책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다. 영국의 지하철처럼, 세계적인 트렌드인 '문화적 이동성'을 실현할 것이다. 우이신설선에 설치되는 광고매체는 각 역사별로 와이드 컬러(37개), 레일형 전지 포스터(27개 소 95개), 각 열차 내 벽면 상단 모서리 광고(1량당 19개 소) 및 차량 래핑 광고 등 4종이다. 광고매체는 일정한 주기별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운영된다. 특히 열차 내에 설치되는 광고는 이 프로젝트의 슬로건인 '달리는' 시리즈의 일환으로 특정 주제를 드러내는데, 개막에 맞춰 '달리는 도서관'과 '달리는 미술관' 개념이 공개된다. 특히 '달리는 미술관'을 위해 스토리가 있는 작가 2명을 선별했다. 자신이 그리워하는 사람을 그리는 정도는 작가와 시민 1,000여 명의 얼굴을 그려준 정은혜 작가는 발달장애가 있는 미술작가이다. 이들은 이번 '달리는 미술관'의 메인을 장식하는 대표 작가로 참여한다.

'문화철도'의 두 번째 미션은 열차가 아닌 역사 내 공간을 구성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실현이다. 이를 위해 지하철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개된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공간의 상징성을 고려해 스토리가 있는 공공작품을 공개한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점공간을 조성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우연히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가는 명소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준비한 것이 '왜상아트'이다. 역사 내 숨어 있는 공간을 포토 존으로 활용하여 일상적 장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왜상아트를 위해 2곳의 역사를 정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성신여대입구역과 북한산으로 통하는 북한산우이역이 그곳으로, 두 공간은 각 지역의 특성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표현하기에 용이하다. 왜상아트 이미지는 유명 작가의 작품을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더할 것이다. 지역의 예술가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작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밖에도 13개 역사에 걸쳐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미디어로 보여주는 '우동이'(우리 동네 이야기의 줄임말)와 주요 지하철역과 환승역을 중심으로 전시되는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장 작품, 타이포 비엔날레 150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포스터, 역사 플랫폼의 북벤치 등 의미 있는 작품들이 대거 공개된다. '문화철도' 프로젝트는 그동안의 수많은 공공예술 프로젝트와 확연히 다르다. 지금까지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버스킹 공연이나 이젤로 펼쳐 보이는 사진 전시가 아니다. 훌륭한 미술작품을 보기 위해 유명 미술관으로 가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어내며, 유명 아티스트의 작품을 달리는 지하철에서 손쉽게 보게 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다.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이신설선에 장착할 문화철도의 핵심이다. 지하철에서 이동하면서 만나는 예술적 광고들로 사람들은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것이며, 북한산으로 이동하는 생태환경 지하철을 이용함으로써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색다른 일상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글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IT홍보팀장 사진 서울문화재단

우이신설선 문화철도 프로젝트 관련 특별 대담

지하철역도 큐레이션이 필요하다

우이신설선 개통을 맞아,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이나미 우이신설선 문화철도 프로젝트 마스터플래너가 특별한 대담을 나눴다. 지하철 역사 내의 문화예술 프로젝트 운영과 관련된 서울교통공사의 노하우를 들어보고, '문화철도'라는 우이신설선의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자리였다.

대담 김태호(서울교통공사 사장)

이나미(우이신설선 문화철도 프로젝트 마스터플래너)

일시 2017년 7월 4일 오후 2시

장소 서울교통공사 사장실





김태호 우이신설선과 서울메트로(현재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는 발상이 다릅니다. 역만 생각했고 수익을 내야 한다고 해서 광고든 임대든 뭐든 집어넣으려 했던 게 지난 10여 년입니다. 이제 와서 들어내자고 하면 어려움이 있죠. 광고만 해도 1년에 수백 억 원 이익이 나는데, 4,000억 원이 적자인 상황에서 광고를 안 한다고 하면 그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방향은 좋지만 수익손실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지 답이 없습니다. 기존 광고사업자들과의 계약도 존재하고요. 물론 우리가 흑자에다 돈이 많으면 계약 종료하고 보상해주고 말 테지만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까다롭습니다.

이나미 역사의 공간이 문화적으로 인식되고 광고매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상업 광고를 받지 않고 분위기에 맞는 광고로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김태호 어떤 매체를 어떻게 하기보다는 역사와 지하철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종래에는 타고 내리는 것으로만 인식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많으니 상업적인 목적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누차 강조하는 것이 지역 커뮤니티 허브 개념입니다. 역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문화예술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나미 우이신설선은 문화소의 지역을 통과합니다. 지역과의 연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우이신설선 구간 안에서 역별 특성을 생각하고 환승을 통해 이를 곳이 어디인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호 홍콩에 4~5개 자동화 라인이 새로 생겼는데 역마다 색깔이 다릅니다. 줄다가 전동차 바깥으로 노란색이 보이면 '우리 역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마다 똑같은 색이니까 역명을 봐야 하고 허겁지겁 내려야 합니다. 굉장히 불편일수록입니다.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문화만이 아니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편의성과 수익성을 어디까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것과 시의 정책이 갈라집니다. 출구마다 에스컬레이터를 놓으라고 기계를 들여오고, 편의성도 좋긴 하지만... 정책도 일관되게 가야겠지요.

이나미 파리는 가방을 들고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게 일상입니다. 우리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시민의 생각도 다양합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만 우이신설선의 경우 문화철도의 의미를 확실히 부여해서 가지는 서울시의 의지가 있습니다.

김태호 기존 1~8호선까지 산만하고 저급한 상업시설을 걷어내기로 했습니다. 시장님에게도 광고 없는 역 40개를 만들겠다고 말했

“역사와 지하철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누차 강조하는 것이 지역 커뮤니티 허브 개념입니다. 역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문화예술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습니다. 다 걷어내고 공간을 문화예술적 요소로 채우겠다고요. 공사,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등 몇 개 기관과 협약도 맺고 투자출연기관과의 협력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나미 광고라고 해서 상업광고를 전부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중문화 안에서 텔레비전이나 영화광고도 필요로 하고 또 그 자체가 문화예술 아니겠습니까.

김태호 문화예술 관련 광고나 표준화된 디자인을 서울시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런던입니다. 역마다 통일성이 있고 광고별 크기와 색상이 똑같으니까 모든 상업광고가 예술적으로 보입니다.

이나미 어떻게 가능할까요?

김태호 예술가가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니 광고심의위원회는 유해성이 있나 없나만 보면 됩니다. 기본적인 수준에서 더 올라가서 에이전시에게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문화예술적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법률과 관련한 유해성과 공익성 심사를 마쳤어도 그다음 수준에 대한 지침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요.

이나미 이 밖에도 지하철역에 문화예술 공간이나 공연장 등이 있나요?

김태호 역마다 공간이 있으면 공연장을 만들어줍니다. 시민들과 지역단체에게 무료로 제공해주고요. 관련 대학생들이나 시니어 연주자들, 초·중·고 학생들이 와서 연주하기도 합니다.



이나미 공연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이신설선에 조연해질 말씀이 있으신가요?

김태호 관객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이동 중이니까 지하철 공연장에서 오랫동안 보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특별한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은 오래 머물 수 있겠죠. 목적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나미 '우리 역'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커뮤니티 허브가 될 것이고요.

김태호 포털이잖아요. 역을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바로 문화예술이 점점 성숙해지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나미 원래의 기능에 충실해야 하고 안전도 중요하죠. 공연으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방해되거나 하진 않나요?

김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연장 조성은 안전한 구역에 했고요. 스피커 소음 정도로 안전 운행을 방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에서 지속적으로 공연하는 건 좀 안 맞아요. 지하철역이 연주자들에게 썩 좋은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공간의 특성에 맞게 해야 합니다. 공연도 좋지만 가끔 지하철역에서 연습공간을 제공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연습할 공간이 없는 비보이들에게 지하철역은 넓고 좋은 장소가 되겠죠.

이나미 객차 안에서 고정적이진 않더라도 공연을 할 수 있나요?

김태호 가끔 객차 안에서 가수가 노래하고 1년에 한두 번 이벤트도

“우이신설선은 문화소외 지역을 통과합니다. 지역과의 연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우이신설선 구간 안에서 역별 특성을 생각하고 환승을 통해 이을 곳이 어디인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나미 우이신설선 문화철도 프로젝트 마스터플래너



하는데 소음이나 진동 때문에 수준 높은 공연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는 가수가 와서 하는 이벤트 정도인데 지하철 범위와는 상관 없습니다.

이나미 객차 안에 모퉁이 광고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걸 확장할 수 있나요?

김태호 래핑해서 내관과 외관을 전부 다 꾸밀 수 있어요. 우리도 테마 열차를 꾸민 적이 있습니다. 칸마다 도시별, 나라별로 테마를 꾸렸고 또 어디는 세계 관광열차로 꾸몄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이신설 전동차 안쪽을 어떤 음악 장르나 악기, 영화의 한 장면처럼 꾸미면 어떨까요? 재질만 불연으로 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나미 인상 깊었던 외국의 사례가 있었나요?

김태호 파리의 사례가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도 지하철에 시를 크게 써 붙이지 않나요? 파리의 지하철 바닥과 스크린도어에 뭐가 붙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유명한 시인들의 시구절이더라고요. 왜 작게 붙였나 했더니, 안 볼 자유도 있다는 겁니다. 서울과 대비되더군요. 우리는 안 보면 안 되게 크게 써놓았는데 파리는 더 작게 써놓아서 유심히 봐야 합니다. 결국 안 보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문화예술이 시민에게 다가갈 때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 안 볼 자유도 있다, 라는 걸 바탕으로 하는 게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나미 테마 중 피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혹은 이런 것이 효과적이었던가.

김태호 유지 보수가 그렇습니다. 열차를 꾸미는 건 쉽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태를 유지하는 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스치고 밟으며 재질이 변질됩니다. 훼손되는 부분이 크다면 무엇을 하더라도 얼마 가지 않아 흉하게 변할 것입니다.

이나미 우이신설선이 하나의 브랜드로, 문화철도의 개념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태호 가능하다고 봅니다. 라인에 별명을 붙일 수도 있고 동물 이름이나 애칭을 만들 수도 있고, 색깔별로 꾸밀 수도 있겠죠.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역명 위에 심벌을 표시해놓았더라고요. 약방, 꽃 등 지역의 특색을 노선도 위에 그려넣은 거지요. 독일에서도 20~30년 전의 도시 모습을 승강장 벽에 붙이고 이곳이 어떤 곳이다, 라는 걸 알려줍니다. 역마다의 특색을 살려 큐레이션하면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철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진행 이규순, 서울문화재단 IT홍보팀장 정리 이준걸, 서울문화재단 IT홍보팀 사진 조현우

달리는 문화철도

우 이 신 설 도 시 철 도

2017년 9월 2일
도시철도가 새로워집니다

상업 광고로 도배되어 있던 기존의 지하철 역사와 열차 내부는 이제 그만!
우이신설 도시철도는 '달리는 문화철도'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시민의
일상 속에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을 만듭니다. 풍성한 문화예술 정보와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이제 도시철도에서 만나보세요.



등단 60주년 맞은 소설가 정연희

“고통이
 ‘내게는
 버팀목이었다’”

기독교적인 깨달음과 사회와 문명에 대한 비판을
 작품으로 써온 정연희 작가가 올해 등단 60주년을
 맞았다. 1957년 이화여대 3학년 때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뒤 지금까지 장편 30여 권, 단편집 9권, 그 외
 다수의 에세이집을 펴내며 작품 활동을 한 햇수만으로도
 웬만한 중견 작가의 나이에 이르렀다. 이 긴 세월에는
 파란만장하고 고통스러운 개인적 불행이 길가의
 돌부리처럼 박혀 있다. 하지만 작가는 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며 겪은 고통이 버팀목이었다고 회고한다.





어린 시절, 인간의 운명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다

지난 8월 16일 경기도 안성의 자택 '삼희동산'에서 만난 정연희 작가는 서울 한복판에서 살아온 삶과 짧은 날 경험한 고통과 구원, 그리고 삼희동산에서의 삶을 들려줬다. 삼희동산은 작가의 이름과 10여년 전 작고한 남편 김응삼 전(前) AK 코리아 고문의 이름에서 한 자씩 가져와 지은 이름이다. 3,000평 대지는 풀과 나무로 울창했다.

“원래 용인시 기흥구에 살았는데 여기를 개발해 집을 지은 분이 글 쓰기에 좋을 거라며 연락을 해와 옮겨 살게 됐어요. 당시는 아주 아름답았는데 17년이 지나고 나니 나무도 너무 자라서 아마존이 됐네요.”

작가는 봄, 여름, 가을에는 연장통에 호미와 낫, 톱, 전지가위 같은 것을 가득 넣고 매일 아침 한두 시간 집안을 돌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는 할 만했던 그 일이 올해부터는 일하고 난 후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등 힘에 부치기 시작했다. 삼희동산에서는 남편과 함께 7년, 그 후 혼자 10년을 보냈다. “한 문학단체에서 이곳에 문학공간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를 내주게 될 것 같아요.” 정 작가는 자신의 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남편과 이곳에서 보낸 7년으로 꼽았다. 하지만 태어나고 자란 서울에 대한 애정도 드러내면서 사람 냄새 나는 서울이 그림다고 했다.

“저는 지금의 총리공원 근처인 서울 종로구 삼청동 36번지에서 태어났어요. 그 후 7살 때 가회동으로 이사했는데 지금도 가회동은 부촌이지만 그 당시 역시 부자 양반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죠. 그런데 딱 우리 집부터 서민들의 집이었어요. 서민의 집에서 부자들의 집을 바라보며 살았고 그러다 해방도 맞고 6.25도 겪었어요.”

결혼하면서 떠난 가회동은 그에게 인간의 운명에 대한 최초의 질문을 심은 곳이었다. “우리 집 바로 맞은편에 순종의 비인 윤비의 조카가 살았어요. 언덕인 데다가 화강암으로 담을 올려서 지붕만 보이는 집이었어요. 해방 후 한 무역회사 사장이 그 집을 사서 들어왔는데 그때 재취로 들어온 여성이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한국전쟁, 1.4후퇴, 서울 수복 등 굴곡진 역사는 작가의 인생에도 그대로 몰아닥쳤다. 피난에서 돌아온 집에는 문짝도, 옷도, 먹을 것도 없었다. 배를 굶고 힘없이 학교를 오가는 나날 가운데 어느 날, 비실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귀에 ‘다가닥다가닥’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승마복으로 성장을 하고 철후 같은 머리칼을 허리까지 찰랑거리는 어떤 여성이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말을 몰며 북악공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무역회사 사장의 새 부인이었다. 그 모습

을 보고 정 작가는 “도대체 인간의 운명, 여성의 운명을 누가 정하는가”라는 쓰라린 질문을 던졌다.

정 작가의 개인사는 어릴 때부터 울 일이 많았다고 했다. 태어나기 석달 전 장자였던 오빠가 홀연 세상을 떠났고 아들을 바라는 집안 어른들의 기대를 깨며 여자아이인 그가 태어났다. 집안에 불을 몰고 온 아이라도 되는 양, 정 작가는 가족에게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자랐다. 매일 북악산 호랑이가 나올까 두려워하며, 킁킁한 총독관저 앞을 지나, 개울을 지나 란도셀(초등학생용 책가방)을 메고 작은 소녀는 먼 곳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 했다. 호랑이도 무서웠지만 개울을 건널 때 돌을 던지거나 나뭇가지로 치마를 들추는 짓곳은 남자아이들 때문에도 매일 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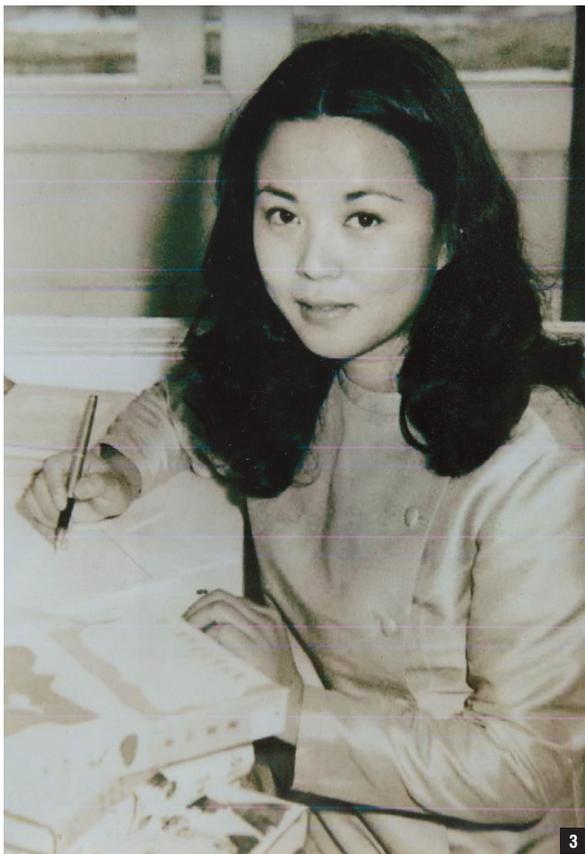
“1942년에 청운소학교(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가슴에 흰 수건을 달고 아버지와 함께 간 면접 때부터 어른(선생)들이 무서워서 울었어요. 들어가서도 계속 울 일이 생겼어요. 입학 후 가회동으로 이사하게 되어서 멀고 무서운 길을 걸어 학교에 가야 했죠. 다행히 2학년이 되니 집 근처에 삼청초등학교가 생겼어요.”

가난하고 쓸쓸했던 서울이 그림다

소녀는 처녀로 자라났고 그가 밟 밟는 공간도 동네에서 이화여대가 위치한 신촌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하고서도 교통편 때문에 내내 고생했다. “우리 집에서 종로2가까지 걸어가야 전차가 있었어요. 서대문에서 내려서 신촌 가는 버스를 타야 하는데 당시는 버스의 수가 얼마 없어서 승객이 항상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못 타면 산을 넘어 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지요.” 흙길이던 이화여대 앞은 비가 오면 수렁이 되어 신발도 흙투성이가 되곤 했다. “하여간 대학 졸업할 때까지 (우리 집뿐만 아니라) 한국은 그냥 가난했어요. 여대생이라고 멋을 내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죠.”



“모든 생명은 씨가 있는데 씨앗은 캄캄한 데 묻혀 있다 뚫고 나와 생명인 빛을 만나요. 이를 위해서는 씨눈이 떨어져나가야 해요. 씨눈이 떨어지면 삶이 달라지죠.”



1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정연희 작가의 서재.
2 등단 60주년 기념으로 최근 출간한 작품집 <바람의 날개>.
3 정연희 작가의 젊은 시절 모습.

그러면서 작가는 공부하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로 ‘군사다이제스트’라는 잡지사에 기자로 들어가 일하며 명동에서 존경하는 유명 문인들을 만났다. 전쟁 후라 가난에 찌들었으면서도 낭만을 간직하고 있던 문인들의 모습은 아직도 작가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가난한 문인들의 집합소였던 명동의 찻집이나 술집에 작가들은 담배연기를 자욱하게 내뿜으며 죽치고 앉아 있었다. 전화도 없던 그 시절 작가들은 원고를 쓰면 기자를 불러 직접 원고를 건네줬고 내치 술을 마셨다. 작가는 취재차 오상순 시인 등 문인들을 만날 때마다 ‘참 딱하다’는 생각을 했다. ‘도대체 이들은 뭘 먹고사는 것인가. 매일 모여 앉아서 찻값이 없어 외상으로 차를 마시고, 술집에 가서는 외상으로 술을 먹고...’

하지만 춥고 햇빛은 시절에도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갈증만은 강했다. 당시 이화여대는 문학의 밤을 명동의 ‘동방살롱’에서 열었다. 작가가 사회도 보고 자신의 작품도 낭독한 이 행사는 로비까지 사람들이 꽉 들어찼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그 가난하고 춥고 쓸쓸했던 서울이 나는 지금 너무 그리워요. 살기 힘들어 그저 스쳐지나갔지만 그런 문인들의 모습은 서울에 가도 이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잖아요. 요새 차가 없어서 서울에 가면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환승역에서 사람들에게 떠밀려갈 때는 그냥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쫓아갈 땐 사람들의 까만 뒷머리가 오글오글하고 내려올 때는 사람들 얼굴이 오글오글하고...”

씨눈이 떨어진 뒤, 서사에 눈을 뜨다

기독교문학 외에도 남성의 권력욕과 지배욕에 망가지는 여성들의 삶을 다룬 일종의 여성주의 소설도 정연희 작가의 문학세계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양화진>, <순교자 주기철> 등 기독교적인 깨달음을 담은 작품을 쓰기 전, 등단작이었던 <파류상>은 신을 찾아 방황하는 여인을, <어느 하늘 밑>은 야간대학에 다니는 젊은 여성의 생활을 그렸다. 2010년 이후 발표된 9편의 작품을 묶어 등단 60주년 기념으로 최근 출간한 작품집 <바람의 날개>에서도 여성들의 파란만장한 삶이 주요 소재로 다루었다. 작품들의 어떤 부분은 거울처럼 작가의 삶을 빼닮았다.

가난한 친정을 벗어나기 위해 소설가 홍성유(2002년 작고) 씨와 결혼한 정 작가는 '파라호 같았던' 남편과 1966년 이혼했다. 일반인은 물론 문인들 사이에서도 이혼은 흔하지 않았기에 작가의 결정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혼 후 나는 입을 다물고 살았는데 남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비난하며 살았어요. 그래서인지 어느 날 시청 앞 개풍빌딩을 지나는데 아주 유명한 시인이 내게 침을 탁 뱉고 지나갔어요.” 1960년대 중반은 이혼녀를 ‘전염병 보균자’ 취급하던 시절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작가가 받은 엄청난 비난과 모욕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1973년에는 간통죄로 구속되었어요. 증거도 없이 40일간 불구속 수사를 당했어요. 매일 나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 ‘두 남녀가 어디 가는 거 봤냐고 증인들을 불러 추궁해대고… 그다음에는 72일간 재판을 했어요.” 작가는 일개 간통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재판의 뒤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해 8월 ‘김대중 납치사건’이 있었던 바로 얼마 후인 9월 초에 자신이 고소당한 데다가 작고한 남편(김응삼 씨)은 이 사건으로 터무니없이 간첩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이 온전히 불행이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작가가 종교에 귀의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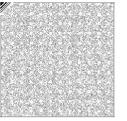
“본질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모든 생명은 씨가 있는데 씨앗은 캄캄한 데 묻혀 있다 뚫고 나와 생명인 빛을 만나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씨눈이 떨어져나가야 해요. 나는 그 사건으로 내 영혼의 씨눈이 떨어져나갔다고 생각해요. 씨눈이 떨어지면 삶이 달라지죠.” 100일 넘게 간통사건을 치르며 정 작가는 풀려났지만 김응삼 씨는 간통죄에 간첩 누명까지 뒤집어쓰고 풀려나지 못했다. “저 불쌍한 이를 살려만 달라”면서 하나님에게 울며 매달린 후 그는 사건 1년 만에 극적으로 풀려났다. 두 사람은 1975년 결혼했고 수십 년을 함께했다. 게다가 정 작가에게 혹독하게 굴던 검사는 그 후 정작 자신이 한 여가수와의 스캔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걸 보고는 하나님이 살아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작가는 자신의 60년 문학 인생이 신앙을 갖기 전인 BC(기원전, Before Christ)와 후인 AD(기원후, Anno Domini)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신앙을 갖기 전에는 체험도 이념도 없어서 쥐어짜다시피 작품을 썼는데 그 후에는 모든 사물의 이야기가 들려요. 내 속에 꽂차 있는 것이 내보내달라고 해요. 씨눈이 떨어진 뒤에 인간의 유전인자 속의 서사가 그때 함께 눈을 떴구나 생각해요.” 작가는 얼마 전부터 한 권씩 내고 있는 소설 선집에 BC 시기에 쓴 작품은 부끄러워서 넣지 않았다. 또 이 신문 저 신문에서 자신의 등단 60년을 다루는데 겁이 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60주년이 전환점이 되었는데, 여기서 어떤 출발을 해야 하나, 세상 떠날 때까지 어떤 자세로 글을 써야 하나, 내게 과연 그 자세를 지킬 에너지가 남아 있나 생각하니 많이 두려워요”라면서 “그간 나이를 의식할 겨를이 없었는데 집을 돌보는 일에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면서 나이를 의식하게 됐어요”라고 말했다.

또한 2008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작가는 ‘극기훈련’ 하듯이 하루 하루를 살며 자립을 배우고 있다고 한다. 역울한 일이 많았던 정연희 작가는 남편과 사는 동안에야 인생이 안전하다고 느꼈단다. 강



보에 쓴 어린애를 지켜주듯이 남편이 자신을 지켜줬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제 자기 자신은 물론 삼척동산도 혼자 힘으로 꾸려가야 한다.

“독자가 나밖에 없더라도 글을 쓰겠다”

한국소설가협회장과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인 작가는 한국문학에 대한 애정을 보이면서도 문학단체나 잡지들의 ‘문학장사’ 행태에 통렬한 비판을 내놓았다. 또 한국기독여성문인회, 한국여성문학인회 등의 회장을 역임한 그는 여성 작가들의 안일함도 따끔하게 지적했다.

“서울에서 돌을 던지면 수필가 아니면 시인이 맞는다고 해요. ‘전 국민의 문인화’가 목표인지 시나 수필은 300만 원, 소설은 500만 원을 내면 등단시켜주겠다는 곳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문학이 살려면 문학단체가 없어야 해요. 등단장사를 하는 잡지도 다 없어져야 하고요. 작가들도 반성해야 해요. 자기 인생을 발효시켜서 잘 쓰는 작가들도 있지만 삶의 처절함을 겪은 일이 별로 없어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는 안일함이 배어 있는 거 같아요. 인생이 좋고 예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선 삶도, 출생 자체도 형벌이지요.”
최근 〈바람의 날개〉와 환경생태 수필집 〈천사의 바구니〉를 출간했고 장편소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재출간할 예정인 작가는 간통사건을 겪었던 당시의 일들도 작품으로 쓸 예정이다. 이미 1,000매 정도 써놓았는데 총 1만 매가 될지 2만 매가 될지 모른다면 “신앙고백이자 역사의 기록이 될 것 같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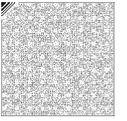
“나는 나밖에 독자가 없더라도 글을 쓸 거예요. 평생 이유도 없이 사람들로부터 질투를 받고, 엄청난 오해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글을 쓰고 살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늙어가는 삶에서 에너지가 되었어요. 삶의 고통이 내게는 버팀목입니다.”

글 권영미, 뉴스1 문화부 기자 사진 최성열

연극 <에어콘 없는 방>
고영범 작가 · 이성열 연출

쇼미더머니
현기증





극단 백수광부의 <에어콘 없는 방>이 9월 14일부터 10월 1일까지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오른다. <에어콘 없는 방>은 실존 인물 ‘피터 현’에 대한 이야기로, 1906년 하와이에서 태어나 한국, 상해, 미국을 떠돌며 살다 해방 이후 30년 만에 한국을 찾게 된 피터 현이 맞닥뜨리는 혼란과 분열을 그린다. 2007년 <오레스테스> 이후 10년 만에 <에어콘 없는 방>으로 다시 호흡을 맞추는 고영범 작가, 이성열 연출을 만났다.

이성열 연출과 고영범 작가는 이번 작품으로 처음 만난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어떻게 되는지?

이성열 대학 연극반 81년 동기이다. 학교 다닐 때는 작가와 연출로 만난 적은 없고 배우나 스태프로 참여했다. 2005년 내가 고영범 작가에게 톨스토이의 <크로이체르 소나타>를 30분 정도로 줄여서 각색해주시기를 부탁했다. 그때 그 작품을 박정희 연출이 보고 작가를 소개해달라고 했고, 그 뒤로 고영범 작가와 박정희 연출이 3번 정도 같이 작업을 했다. 그 사이 2007년에 <오레스테스>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고영범 작가에게 극본을 부탁했다. 그러니까 2007년에 작가와 연출로 만나고 1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다.

그럼 고영범 작가가 희곡으로 데뷔한 작품은 무엇인가?

고영범 <오레스테스>를 각색한 <태수는 왜?>이다. <태수는 왜?> 전에도 연극을 계속하긴 했다. 민중문화운동회에서 마당극을 확대해서 만드는 작업을 좀 했다. 극단 한강 창단공연인 <밝은 햇살>을 쓰기도 했고, 그러다가 가족들이 먼저 미국에 이민을 갔고 다큐멘터리를 공부하기 위해 뒤따라갔다. 미국에서 만든 단편영화 <낚시 가다>가 독일 오버하우젠 단편영화제에서 입선이 되었다. 장편영화를 하려면 한국에 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작자를 소개받아 2002년에 한국에 들어왔다. 6년 동안 7편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배우들이 읽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다. 그런데 연극은 초고를 쓰니 다음날 배우가 읽고 있더라. 쓰면 읽는구나, 배우들이 읽으니까, 그래서 연극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08년에 다시 미국으로 갔는데 가족들과 함께 사는 곳이 집이라면 미국이 집인 셈이다. 그런데 예술가로서의 직업 활동은 한국의 대하로에서 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정체성이 분열될 것 같다.

고영범 미국에서 오래 살긴 했는데 거기에 속해 있다는 느낌은 별

로 안 든다. 친구들이 영어로 극을 써보라는 말을 했다. 그런데 사실 미국 사회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다. 시스템, 소수자 문제, 이민자 교육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것이 내 이야기 같지는 않다. 이야기의 겹을 만드는 것은 기억의 문제다. 미국 생활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기억의 한계가 정확히 있다.

〈에어콘 없는 방〉은 결국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피터 현’이라는 주인공은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정체성이 분열된 모습을 보인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됐나?

고 영범 백수광부 20주년 기념 공연을 위해 극본을 쓰게 되었는데 처음 생각한 소재는 다른 것이었다. 대한제국 1885년에 주미 공사관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공사관으로 떠난 사람들 명단을 보면 박정양을 필두로 해서 이완용, 이범진, 이하영 등이 있고 노비가 둘 따라 갔다. 그런데 1905년에 이들이 철수할 때, 노비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없다. 〈공무도하가〉에서 강을 건너간 사람의 이야기를 두 노비의 이야기로 빗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남아 있는 자료들이 번역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초기 이민자들의 자료를 읽다가 피터 현의 아버지 현순 목사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다. 그렇게 현순 목사 이야기를 조사하다가 피터 현의 자서전을 읽게 되었다.

이성열 연출은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욕심이 났는가?

이성열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이 흥미로웠다. 과거의 자신을 만나 현재의 자신이 영향을 받고, 깨달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 호텔 방에서 하룻밤 동안에 자기 망상 속 인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현대판 천일야화처럼 느껴졌다. 피터 현이 느끼는 열기, 광염, 혼란, 이것들이 굴곡진 현대사를 살아온 한 인간의 현기증이 아닌가. 우리 할아버지가 90세에 돌아가셨는데 전쟁을 7번 정도 겪으셨다. 태어나자마자 갑신정변에서 시작해 마지막으로 한국전쟁까지. 평생 동안 10년에 한 번씩 정변 아니면 전쟁이었다. 아버지는 어릴 적에 수학여행을 군산에서 만주로 가셨다. 내 윗세대 분들의 행동반경이 그렇게 넓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만 봐도 피터 현처럼 살아온 과정이 너무도 어지럽다. 그 어지러움이 하룻밤의 광염소나타로 터져나오는 것이 이 작품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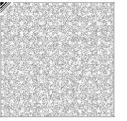
피터 현도 굉장히 다채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의 삶을 방 하나로 밀어 넣었다. ‘방’이라는 모티프를 가지고 인물을 그곳에 넣게 된 사유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고 영범 피터 현이 75년에 서울에 왔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야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야기를 펼칠 공간이 생겼으니까. 한국에 왔는데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거기에서 방이 잡혔다. 피터 현은 미국 하원의 반미국적 행위 조사위원회에서 간신히 기소를 면하고 평범한 생활인이 된다. 한국에 올 때는 보험중개인으로 살다가 은퇴한 상태였고, 젊었을 때 엄청나게 큰 꿈이 있던 사람이 작은 점 같은 존재가 된 것이다. 그래서 방이 맞다고 생각했다.

피터 현 집안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누나인 엘리스 현이 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듯하다. 그런데도 어째서 피터 현을 선택했는지?

고 영범 피터 현에 대해 쓰기 시작했을 때 엘리스 현을 알게 되었다. 요즘 젠더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다음 작품은 여자의 관점에서 써보고 싶다. 나혜석, 프리다 칼로, 카미유 클로델, 엘리스 현, 주세죽 등. 요약하자면 남자 때문에 인생 망친 여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선택지가 그것밖에 없었던 것일 수 있다. 세계로 나가는 과정에서 남자들을 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피터 현이 자기의 삶을 반추하는 사유가 뜨겁다. 작품 배경은 1975년으로 벌써 많은 시간이 흐른 이야기이다. 벽산회복상에 선정되었을 때는 〈유신평화 503호〉가 제목이었다. ‘유신’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는데 2017년의 젊은이들은 유신이라는 단어에 전혀 예민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현재의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야 할까?

이성열 그 부분이 고민이다. 이를테면 <변호인> 같은 영화를 즐긴다는 것은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기 때문인데 이 작품은 어떤 공감대를 줄 수 있을까? 지난해에는 나라가 암울하고 걱정도 많았던 것에 비해 지금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상식적인 선에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작품이 거리감이 있다.

<에어콘 없는 방>은 닫힌 공간을 요구하는 작품인데, 남산예술센터는 열린 극장이다. 닫힌 열기로 꽉 막힌 공간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이성열 벽면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벽면을 치면 객석 좌우 관객은 시야가 막혀서 고민이다. 영상 사용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벽면을 없애면 투사면이 없어서서 영상을 쓸 수 있는 곳이 제한된

다. 그런 논의를 하는 중이다. 극 속에서 인물의 심리적인 상태는 상당히 개방되어 있다. 물리적인 닫힘과 심리적인 개방을 잘 활용하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작품에 여러 갈래의 결이 있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작가 입장에서 관객들과 특별히 소통하고 싶은 지점이 있는지?

고 영범 나쁜 버릇인데 관객이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생각을 거의 안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에어콘 없는 방>을 쓰면서 제일 좋았던 것은 이야기가 진실하다는 느낌이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터 현의 이야기를 얼마나 진실하게 하고 있는가'이다. 피터 현의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다. 자기 인생을 진실하게 돌아본다는 것. 그 방식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공포에 의한 오해로 시작된다는 것. 있는 대로 열을 받고, 약을 먹고, 술을 마시고, 그러나 무엇을 보려고 애쓰는 것. 그것 자체인 것 같다.

'희곡'이라는 장르의 글쓰기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

고 영범 미국에 있을 때 카메라맨 일을 하거나 사운드맨, 매뉴얼 번역 일을 많이 했다. 혹은 가구나 집을 수리하는 일도 하면서 생계를 꾸렸다. 그렇게 몇 년 지나니까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조금씩 썼다. 책 번역도 했는데 작가들을 만나면서 얻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것들이 결합되다 보니 쓰고 싶은 것이 쌓여 있더라.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전까지는 당분간 글만 쓸 생각이다.

연출로서 관객이 이 작품을 반드시 봐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다면?

이성열 자신을 한 번 정확히보는 것이 이 작품인 것 같다. 지금이 유신시대는 아니지만 '자기와의 만남'이라는 소재가 흥미롭지 않나. 할아버지 연배 정도 되는 이를 보면서 자신을 반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이 살아온 힘을 느끼는 것. 피터 현이라는 노인을 보며 '그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나도 살아오면서 이런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우리 안에 어떤 것과 마주할 수 있는 연상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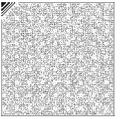
글 조만수, 연극 평론가 사진 서울문화재단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묻는다

위원장 선임보다 개혁방향 논의가 먼저



진행	김상철(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발제	권혁빈(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토론	김종선(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영위원장), 이은지(청년예술가네트워크 정책위원) 이신(뮤지션유니온 교육정책팀장), 조재현(공연예술인노동조합 부위원장) 고영재(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임정희(문화연대 공동대표), 송경동(시인) 최승훈(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정책보좌역), 하장호(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일시	2017년 8월 3일 오후 2시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세미나실



지난해 말부터 문화예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지원 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예술위는 문화예술계와 최소한의 합의도 없이 7월 10일부터 신입 위원장 공모를 진행했다. 이에 문화예술계는 위원장 선임 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앞으로 예술위를 어떻게 운영할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장을 먼저 선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었다. 진행 중인 공모 자체를 중단하기보다는 예술위가 본래의 설립 취지를 회복하고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문화예술계의 염원이 모인 자리였다.

발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공모, 괜찮은가?

권혁빈(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예술위의 신입 위원장을 뽑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기관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신입 위원장 인선을 진행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장이 개혁 과제를 수행해나가는 방법도 있는데요. 현 정부, 장관과 새로 임명된 위원장 개인의 선의에 개혁 과제를 맡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이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기관들이 앞선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장관, 기관장 한두 사람의 인선에 따라 지원사업과 조직의 운영이 요동치는 상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궁극적으로 우리의 창작환경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술위의 문제는 위원장 혼자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체부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들이죠.

현 상황에서 문화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술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술위는 '정책의 일방적인 수혜자였던 문화예술인들이 정책의 입안자이자 수행자로 진입하는 곳'입니다. 원래 기관이 표방했던 바대로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예술인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비상임위원의 수는 매우 적고, 인적 구성 역시 50대 이상 대학교수, 원로예술인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인선 자체도 문체부 장관의 승인하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예술위 정책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예술인의 숫자



권혁빈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자체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다 광범위한 예술인들에게 열어놓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몇은 여성, 지역에 할당되어야 하고 청년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구조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형태로 예술인들이 직접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장르의 사업예산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방향에 따른 소위원회가 아니라 장르별 소위원회 형태로 바꾸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료 조직에 대한 견제입니다. 지금 예술위는 지원행정 기관의 성격이 강하고 관료조직의 권한이 생각보다 큽니다. 각 사업별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사무처 관료들의 인선은 사실상 사무처장이 수행합니다. 신입 위원장은 관료조직들의 자의적인 일처리 방식을 통제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문체부 관료들의 개입 문제도 있습니다. 문체부 산하기관들은 민간에서 공모한 기관장을 두고 있지만 실제 사업은 문체부와 기관 실무자들 간의 전화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예술위 기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사용해야 함에도 쪽지예산이라든가, 문체부에서 내려보낸 예산을 실무자들끼리의 조율만으로 사용하는 구조를 극복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제안은 창작지원사업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예술위를 예술행정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기관으로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창작지원사업의 집행과정 전체를 예술인들이 평가할 수 있을 때 통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심사위원, 심사 과정, 심사 결과는 의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혜를 받는 주체들이 심사위원이나 심사 자체를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내부 의결구조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술위 신임 위원장보다는 문체부와 장관에게 요구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문화예술제도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 권한을 예술인들에게 이양해달라는 요구인 것이죠. 이 제안은 문체부가 스스로 권력을 나누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김상철 오늘 토론회는 단순히 위원장이 누가 되는 것이 타당하냐가 아니라, 누가 되더라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화적폐'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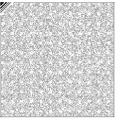
김종선 저는 근원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 중입니다. 당시 법률을 개정하면서 거의 모든 기관을 공무원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말만 위원회지 실제로 임명하는 방식이라 기관장과 다름없어요. 저는 반대로 수장들을 빨리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대로 임명해서 그 판을 바꾸지 않고 비워두면 모든 행정이 공무원 몫이 됩니다.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기본 원칙인데 문제는 지금 그렇지 않은 거죠. 공고문을 보면 위원장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최소한 과거 정부가 만든 악법에 의해 임명하지만 실제 이 기관은 무엇을 할 것이고 위원장은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할 것이냐 양해해달라는 말이라도 있어야죠. 새 정부가 시민정부를 표방한다면 문화 분야에 있는 부처들을 시민이나 예술가의 참여가 활성화 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허울뿐인 시민정부는 사람 한 명 임명해놓고 모든 걸 맡기는 거거든요. 임명 후에 어영부영 시간이 가버리면 관료들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이 될 뿐이에요.

예술가와 시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장르별 자율적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분야별로 한 명씩만 뽑다 보니 장년층으로 갈 수밖에 없고 보수정권에서는 보수적인 사람만 뽑을 수밖에 없죠. 장르별로 독자적인 위원회가 설립되면 그 안에서는 세대와 양성평등을 반영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해요. 두 번째는 예산에서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예술위는 기금을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예산에 대한 자율성이 부족합니다. 보다

많은 국고가 들어올 수 있는 길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술가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무국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문제인데요, 개인적으로 행정 공무원은 비정규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을 공무원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냥 공채로 뽑아서 평생을 정규직으로 두고 예술가 위에서 군림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고급 프리랜서가 공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훨씬 낫습니다. 위원들만 고정된 사무국과 영역 다툼하듯이 하니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요. 예술위나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예전 모델로 운영되었다면 그건 위헌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닌 거고요. 민간인은 행정권을 직접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협치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고 기획예산처 예산 편성권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문체부에서부터 이를 과제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은지 저도 예술위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전에 수반되어야 하는 점은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방향과 문체부의 정책적 의지, 위원장의 정책 방향 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살펴보면 예술인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라는 목표와 제도는 뚜렷하게 설정되어 있고 그 개선 방법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협치 거버넌스를 통해 채워야 합니다. 현재 예술위 위원 구성은 10명 남짓인데요, 이들이 다양한 예술계 현장과 분야를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술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금 더 확대된 거버넌스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위원들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창작지원 사업의 심사 기준은 경력 중심이라 청년예술가들이 예술계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술계도 새로운 세대의 도입이 필요하고, 발전된 사회를 위해서는 청년예술가들의 성장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년예술가네트워크가 서울시와 포럼과 신태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올해부터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을 진행한 사례는 부분적인 협치 거버넌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새 정부의 문화정책으로 확산되어야 할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예술위의 정책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청년예술가들을 위해 더 다양한 정책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권혁빈 예술위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많이 하는데 청년예술가들을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김종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영위원장

작업을 준비하는 단계의 예술가로 설정해놓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예술가 내에서도 아직 예술가가 아닌 유보된 존재로만 상상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청년담론 자체가 예술계 내에서 재검토되어야 하고, 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썬 저는 예술인들의 직업적 정체성과 생존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창작환경의 개선은 지원금이 아니라 사실은 예술가들의 생존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예술위나 여러 문화예술정책 자체가 변화된 한국 문화예술 산업 전반의 현황과 동떨어져 있는 오래된 정치적, 정책적 판단에 따라 만들어져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예술노동의 당사자인 예술주체들에 대한 명확한 직업적 정체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접근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음악의 경우 기존의 톨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직업 분류 체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예술위는 노무현 정부의 '창의한국'과 '새 예술정책'에서 이미 훌륭하게 제시했는데 모두 이상하게 어그러졌고, 10년도 더 지나서 다시 무언가를 해보자고 하는데요. 밑바닥에서 시작하고 있는 여러 작업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예술조직과는 다르게 형성된 새 조직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김상철 예술현장의 변화가 전통적인 예술위의 지원 체계나 정책 내

에서 표집되지 않고 잔여적인 부분이 많은데 어느 순간 이 부분이 다수가 되는 상황이라는 진단 같습니다. 예총, 민예총으로 불렸던 예술단체 외에 유니온 등의 단체가 만들어진 배경이기도 하고요.

조재현 여기에서 이야기된 것들을 정확하게 물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와 신임 위원장에게 정확하게 어떤 플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묻고 같이할 것을 강제하는 부분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촛불에서 요구했던 지점과 저희가 요구하는 지점은 새로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또 바뀌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로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부터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위원회를 장르별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문체부와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명확히 하고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철 오늘 토론회를 바탕으로 예술위 위원장 공모에 대한 정리된 입장과 의견을 제출하려고 합니다.¹⁾ 그래야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계가 침묵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 8월 5일 예정된 면접 심사를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장관에 의한 낙점 전에 위원장 후보에 대한 검증과 공론 과정을 거치자는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크게 3가지를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원장 공모 과정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술위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공모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문화지원기구의 인선이나 공모 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까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승훈 문화산업 쪽에서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의 혁신과 원장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현장의 불만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에너지가 충만해 있는 상황에서 많은 문화산업 단체들이 콘진원의 발전적 해체와 문화산업진흥 체제의 개편을 요구했고 대선 과정과 국정 개혁 과제 수립 과정까지는 잘 반영되었는데요. 장관이 선임된 후 혁신의 논의 과정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배제되었어요. 문체부

1) 토론회 이후 8월 5일 '가는 방향을 정해야 발걸음을 땀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가 일방적으로 TF위원들을 구성해서 서둘러 진행하는 이유는 새로운 원장이 오면 혁신 과제를 바로 추진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합니다. 문화예술 정책의 혁신 과제와 예술위 위원장 선임에서 겪고 있는 과정도 똑같은 유형 같아요.

김상철 예술위 위원장 공모가 다른 문화기구의 수장 선임에 앞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모 과정에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 이후 문화기구의 수장 선임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의 수준에서 중단시키고 그 안에 공론 과정이나 사회적 합의 과정을 넣어야 다른 문화기구들의 절차도 순연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뽑힌 후에 사후적으로 내부 개혁을 하는 것은 수장의 입장에서 더 힘들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외부의 요구를 받아서 안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밖에서의 의견이 관철되기 쉬워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술위 자체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고영재 중요한 맥락은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체부에게 이걸 받아라 말아라 하는 건 좋은 모양새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장관은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후보자들에게도 의무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시민사회가 여론을 만들어서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를 조직하는 모양새가 되어야 후보자들도 참여하지 않을까요.

김종선 문화산업 쪽의 만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도 위원회 형태로 전환을 요구하고 콘진원을 해체하자고 이야기해요. 장관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러 상황들이 있으니 장관이 같이 참여하는 문화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라도 한 번 하자는 것까지는 거부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추천된 사람들과 함께 예술위의 방향성에 대한 공론의 과정을 거치자고 하면, 이후 다른 기관에도 똑같은 절차를 적용해야 하고요.

김상철 면접 심사 이후 추천된 인사 중에서 시급히 임명하지 말 것, 문화예술계에서 자체적으로 공론 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적폐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예술위의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도 최소한 정부 측과 문화예술계가 책임을 같이 나누는 합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외적으로 합의제 기구인 예술위의 위상을 별도로 한다는 것도 그 내용일 수 있고요. 재정과 관련된 내용도 기금 중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갈 수 있을 거고요. 현재



이은지
청년예술가네트워크 정책위원

위원회 체계에서 바뀌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큰 틀과 방향 제시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르별 소위원회의 풀을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 수단은 참여예산제적 방식, 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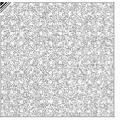
임정희 공모를 예술위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1차 서류심사와 면접까지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거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 자체적으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유예기간 동안 공청 절차를 밟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김상철 이 절차가 법령 위반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술위의 위상을 합의제 기구로 이야기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집행하는 기구를 구상한다는 거죠. 예술위 수장의 정당성을 문체부 장관의 임명권만으로 보장해주면 합의제기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선임된 사람은 운영권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화예술계의 평가나 이해 과정을 선행하는 것이 자기의 정당성이 장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에도 있다는 것을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공론의 절차인거죠. 임명 절차를 뒤집을 수 없다면 개입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구체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재현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술위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입니다. 내용적인 문제이고 어떻게 보장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뒤로 가고 요구가 선행되면 원하는 부분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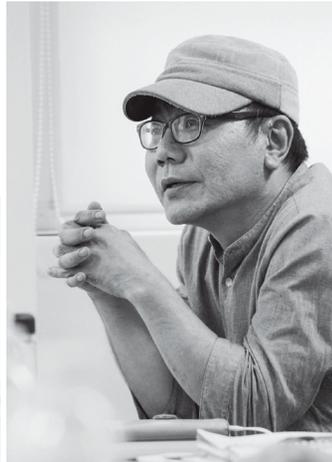
권혁빈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지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첫 단추가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지의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데 공모 자체를 어떻게 하자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논의들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김종선 절차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장관의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



이진

뮤지션유니온 교육정책팀장



조재현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부위원장

고 문화계와 같이 뽑는다는 뜻에서 추천된 사람들과 장관이 같이 나와야 해요. 예술위의 전망이나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얘기해야지요. '예술계와 같이 위원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시작하자'라는 정도로 가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송경동 기본적인 협치가 안 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해야 한다고 봐요. 특히나 예술위이기 때문에 공모 절차 전에 현장 문화예술계와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문화예술계가 연대해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시킨 거잖아요. 진상 조사가 먼저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누가 선임되는지를 떠나서 예술위는 개혁이 필요하다. 현장의 문화예술계와 논의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확인받고요. 나아가서 문화예술계와 어떤 상의나 존중 없이 위원장을 공모한 것에 대한 아쉬움 표명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최승훈 문화산업 쪽에서도 문체부가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방식으로 콘진원 혁신안을 만들어 발표해버리면 문화산업 진흥체제 혁신에 대한 논의 기회 자체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지금 협회들은 문체부 혁신 TF를 거부하고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문화행정 전반의 문제로 넓혀서 문화예술단체들과 문화산업 관련 단체들이 서로 동일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하장호 위원장 선출 과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는 판단인 듯하고요. 위원장 인선이나 문체부 산하기관장 인선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것, 문체부 장관이 혁신에 대해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어떤 그림에서 인선을 진행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철 예술위 위원장 공모 과정은 단순히 한 기구가 아니라 문화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징후적인 것이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참조하거나 경청하는 부분에서 이탈하는 징후로 해석한다는 강력한 발언이 첫 번째라고 봅니다. 예술위 개선 방향과 관련된 합의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항의나 의견 표명도 필요한 것 같고요. 새로운 예술위와 관련하여 장관과 위원장 후보들이 참석하는 구체적인 공론의 장을 제안하는 것, 이 3가지가 현재 얘기해볼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임정희 예전에는 예술위가 행정 절차상 합의할 수 있는 많은 통로를 만들어놓은 합의제 기구였는데 지금은 예술위 안에 현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동안 위원들도 허수아비로 있고 사무처에서 다 했던 거죠. 가장 나쁘게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과의 연계를 복원하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김상철 문화예술 행정기구와 현장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적폐청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일 것이고요.

송경동 예술위 개혁을 책임 있게 하려면 우리가 TF를 꾸려서 문체부와 산하기관에 바라는 것을 전달하고, 어떻게 해야 현장의 문화예술인들이 주체가 되고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인들이 대응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문화예술계 안에서의 소통과 단결이 일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혁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예술위를 만들어야 할지, 다른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문화는 유독 돈이 어디에 가느냐, 누가 그 자리에 앉느냐에 개혁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털어내고 스스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리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사진 서울문화재단

※ 토론 내용은 서울문화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며 [문화+서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커스텀 크루저 바이시클 디자이너 홍장근

아름다운 자전거, 삶의 속도를 늦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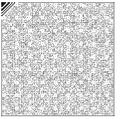
일상의 많은 기준은 '효능'에 맞춰져 있다. 사람들은 의식주를 비롯한 사회·경제활동, 인간관계에서조차 빠르고 효율적인 가치, 즉 가성비(價性比)를 추구한다. 사람들은 이처럼 분주하게 어디로 달려가는 걸까? 홍장근 제스티크랭크 대표라면 그 답을 들려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커스텀 크루저 바이시클'(이하 커스텀자전거)을 통해 삶의 속도를 늦춰주는 이색 디자이너다. 단단하고 유려한 곡선, 강렬하지만 산뜻한 색감으로 시선을 끄는 그의 제품들은 '앞'보다 '옆', '미래'보다는 '현재'를 살펴보게 하는 느슨한 휴식을 허락한다.

- 1 커스텀자전거를 제작·판매하는 '제스티크랭크'의 홍장근 대표.
- 2 작업실을 겸한 신사동 카페 앞에 세워진 제스티크랭크 자전거.
- 3, 4 제스티크랭크 자전거.



추억 속 자전거, 오래된 낭만을 찾다

미국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이 연출한 영화 <이티>(1982)에는 자전거를 탄 엘리엇과 이티가 거대한 달을 배경으로 날아오르는 순간이 낭만적으로 그려져 있다. 단순하고 투박한 자전거에 나란히 탄 소년과 이티의 우정이 애뜻하게 전해지는 명장면이다. 홍장근 대표의 얼굴에는 영화의 감성을 떠올리게 하는 순수한 열정과 아날로그 디자인에 대한 향수가 지문처럼 묻어난다. 중학생 아들과 자전거 타는 게 취미인 그는 새로운 가치 확산에 몰두하는 디자이너이자 프렌디(친구 같은 아버지)로서 일과 삶의 조화를 꿈꾼다. 남은 반생은 보다 느린 움직임으로 세상과 소통하길 원하는 낭만가이기도 하다. 홍 대표는 홍익대 미술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했으며 20여 년간 공공디자인업계에서 일했다. 2013년부터 수제자전거 제작을 배운 뒤 2014년 초 커스텀자전거를 제작·판매하는 '제스티크랭크'(ZESTY CRANK, <http://zestycrank.com>)를 설립했다. 제스티



크랭크는 영단어 'zesty'(강한 풍미의)와 'crank'(회전용 기계장치)를 더한 말이다. 강한 풍미의 기계장치라니, 이름부터 육감적이다. 제스티크랭크의 자전거들은 디자인부터 제조 공정까지 100% 홍 대표의 손을 거쳐 탄생한다. 각 모델마다 모터사이클 '할리 데이비슨'처럼 높은 핸들바와 육중한 바디가 특징이다. 독특한 외관도 시선을 끌지만 무게중심이 낮아 주행 안정감이 있다. 그는 취미였던 모터사이클과 자전거를 접목해 세상에 하나뿐인 '탈것'을 만들겠다는 꿈을 이루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신사동에 작업실과 전시장을 겸한 카페를 열었다. 8~10인용 테이블 2개와 2~3인용 테이블 2개가 사이좋게 놓인 이곳은 시민들에게 동네 다방으로, 작가들에게 편안한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카페 입구에는 각자의 개성을 자랑하는 자전거들이 전시돼 있고 카페 내부의 주방 한편에 홍 대표의 작업공간이 마련돼 있다. 책상 크기만 한 작업대와 선반, 캐비닛, 자전거 부품과

공구 등이 오밀조밀 채워져 요술공장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매장 방문 시 완제품 구경은 물론 자전거 제작 상담 및 체험도 가능하다.

도시·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탈것'

홍 대표는 지난 3년간 "왜?"라는 질문을 수없이 들었다. 제작과 판매가 까다로운 커스텀자전거 사업에 왜 뛰어들었냐는 것이다. 그의 대답은 언뜻 간단하게 들렸지만 그 의미는 진지했다. 그는 "손으로 직접 작업하면서 표현하고 즐거움을 찾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했다. 나아가 자전거가 이동수단이라는 단순한 도구로서의 기능에서 벗어나 본래의 아름다움(심미성)을 찾게 한다는 비전을 품고 있다. 홍 대표는 "자전거를 통해 자신의 삶과 환경을 돌아보는 가치관을 공유해나가는 데 보람을 느끼고 있다"면서 "제스티크랭크는 나만의 인생철학이 담긴 브랜드"라고 설명했다.

그는 광고디자인 영역에서 활동할 때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디자



- 1 제스티크랭크 로고가 새겨진 부품 장식.
- 2 카페 내에 마련된 홍장근 대표의 작업공간. 프레임과 안장 등 벽에 장식된 자전거 부품이 방문객들의 흥미를 자극한다.
- 3 곡선 프레임 용접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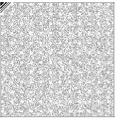


이내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 이런 생각은 2007~2012년 서울 중구청 도시디자인과에서 일하는 동안 더 깊어졌다. 공공디자인 업무를 맡다 보니 도시와 디자인을 넘어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게 된 것이다. 홍 대표는 “사람은 지형과 도시, 건물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면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떤 환경이 돼야 할까. 과연 우리가 사는 지금의 환경은 정상적인가”라는 고민을 계속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세상에 일부분이라도 기여하는 디자인을 하겠다는 마음을 굳혔다.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 자전거시장에서 제스티크랭크가 설 자리가 있을까?’ 하는 고민과 주위의 우려도 물론 있었다. 홍 대표는 “수익을 떠나 한 사람의 디자이너로서 특별한 작업을 해보고 싶었다”고 한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매력적인 경험이 되길 바랐다. “커스텀자전거로 바람을 느끼며 달리다 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자연과 주위환경이 눈에 보인다”면서 “내가 지금 어떤 공간을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 그 안에 있는 내 모습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제스티크랭크의 자전거에 앉으면 보통의 자전거를 탈 때보다 시야의 높이는 내려가고 반경은 넓어진다. 또한 손잡이가 높다 보니 등과 하체가 펴지면서 몸가짐이 여유 있게 바뀐다.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주행하며 주위를 둘러보기에 좋다. 바로 여기에 홍 대표가 말하는 ‘조화의 매력’이 숨어 있다.

커스텀자전거, 낫설고도 신선한 탄생

초퍼바이크(Chopper Bike)라고도 불리는 커스텀자전거는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마니아층을 형성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미국 남부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서핑 등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젊은이들이 해안에서 라이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시초이다. 폭이 넓은 타이어와 낮은 포지션 등 투박한 외관은 커스텀자전거의 공통점이다. 자전거와 모터사이클이 취미였던 홍 대표는 “커스텀자전거는 편안한 안정감과 놀라운 가속도로 라이딩의 즐거움을 높여줬다”면서 “한국 이용자들에게도 이런 장점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커스텀자전거는 지금도 그렇지만 3년 전에는 더욱 국내 소비자들에게 생소했다. 정보나 기술 노하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홍 대표는 프레임 제작, 용접 등 모든 공정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며 시행착오를 겪었다. 2014년 5월 바이크아카데미에서 첫 시제품을 만들었고 이를 보완해 그해 10월 정식 모델을 선보였다.

커스텀자전거의 제작을 결심한 뒤 그는 가장 먼저 프레임 디자인에 착수했다. 천편일률적인 직선 프레임 대신 곡선을 도입했다. 달리는 말의 형상을 수없이 반복해 그려가면서 군더더기 없이 매끈한 프레임 디자인을 완성했다. 홍 대표는 “한강변이나 도심에서 보는 자전거들은 대부분 기능성과 실용성에 중점을 둔 제품들”이라면서 “커스텀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더 멋지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자전거 디자인에 대해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말의 도안과 상상 속 말의 형상을 오가며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곡선을 찾아냈다. 기술과 아름다움, 멋과 개성이 조화를 이룬, 제스티크랭크만의 프레임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홍 대표는 “자전거가 효율적인 직선 형태를 띠면서 기능 위주로만 진화하다 보니 심미성은 떨어진 것 같다”며 “아름다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곡선 형태의 클래식 자전거에서 디자인의 영감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디자인 후에는 프레임과 바퀴 축을 이어 붙이는 섬세한 작업이 이어진다. 제스티크랭크의 프레임은 알루미늄을 소재로 TIG웰딩 용

접 방식으로 제작된다. 완제품의 평균무게는 20kg, 크기는 가로 2.1m, 세로 1~1.2m다. 사용자의 신체사이즈 등 세부 사항에 따라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지며 한 대를 만드는 데 평균 3주가 걸린다. 가격은 커스텀 항목에 따라 200만~250만 원 정도이다.

커스텀자전거의 미래, 슬로 라이프(Slow Life)

커스텀자전거는 달리는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 제품인 만큼 순간적으로 빠르게 속도를 내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대신 탈것의 멋스러움과 삶이라는 현재를 선물로 받는다. 홍 대표는 “과거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달릴 때 보이는 실루엣을 떠올리면 멋있게 달린다는 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서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인데 그 감흥을 자전거에 담았다고 보면 된다. 도심과 교외 어디서든 안전하게 페달을 밟아 달리는 모습이 주변과 어우러지는 데서 고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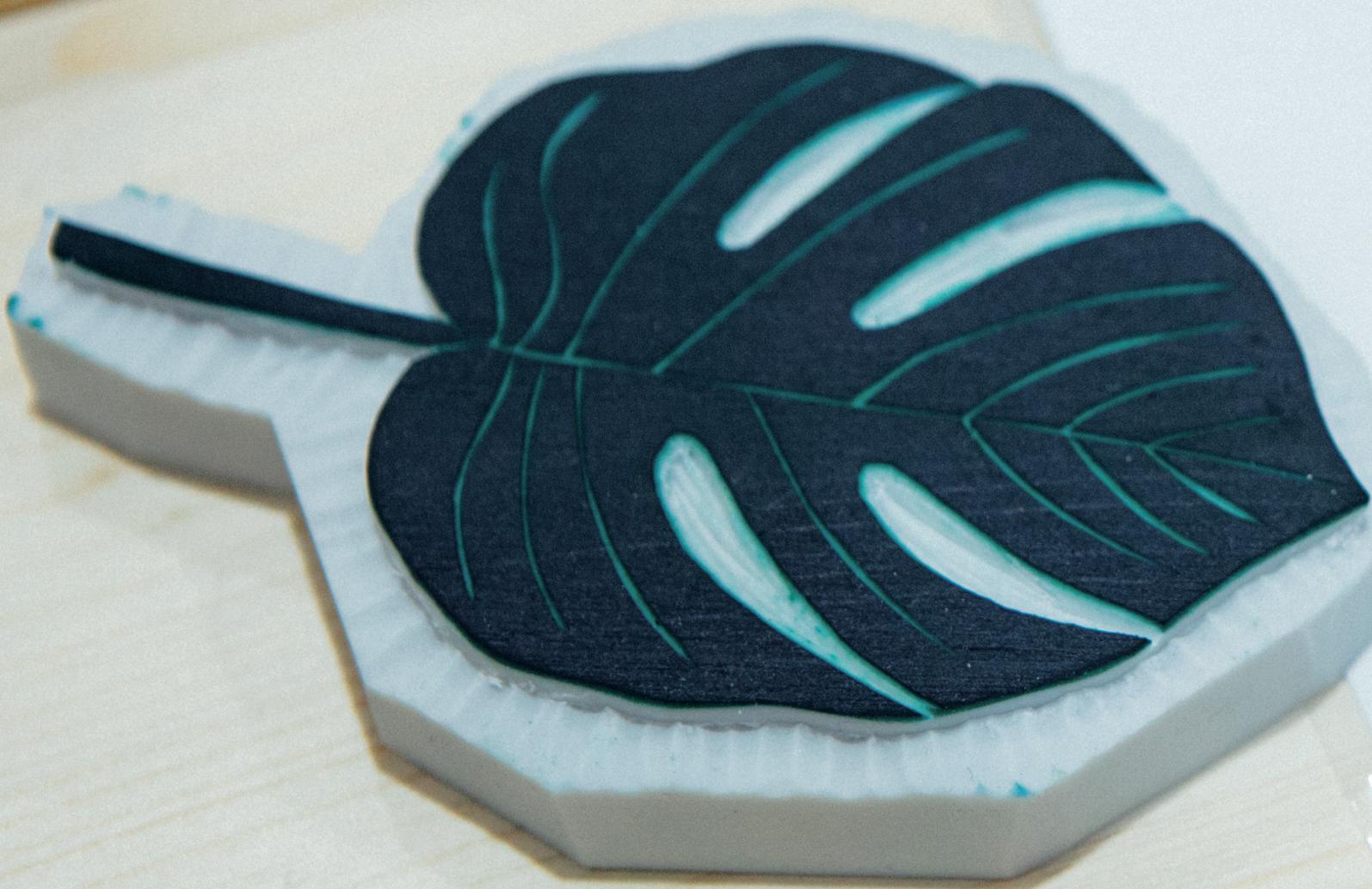
그는 바퀴가 달린 모든 이동수단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화, 균형, 변화 등의 요소를 갖춘 자전거를 만든 것이다. 물론 커스텀자전거가 보급·경주형 자전거들에 비해 보관과 이동이 어렵고 실용성과 기능이 덜한 것도 사실이다. 소형차나 엘리베이터에 싣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보행자와 맞춰 움직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행하게 되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그런 융통성 없음조차 이날로그적인 향수를 일으킨다. 효율성을 따지기보다 각자의 개성과 취향, 여유 있는 정서를 위한 ‘세컨드 카’로 추천하는 이유다.

홍 대표는 대중성에 대한 고민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기업 대표부터 연예인,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의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했지만 소득이 높은 전문직 종사자가 단연 많았다. 그는 “구매하지 않더라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커스텀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원도 양양이나 제주도 등에서 전기 커스텀자전거를 빌려주는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전기자전거법이 대역사업에 큰 발판이 돼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자전거법은 ‘사람이 페달을 밟아야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방식(PAS), 시속 25km 속도 제한, 만 13세 이상, 중량 30kg 미만 전기자전거’라는 요건을 담고 있다. 홍 대표는 “전동기 모델로 수요를 늘린다면 오리 지널 모델을 비롯한 커스텀자전거의 대중화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글 장인서, 고려대에서 철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아시아경제신문 기자로 재직 중이다. 공연·도서·디자인 등 문화예술 분야의 콘텐츠를 취재해 글을 쓰고 있다.

사진 제공 제스티크랭크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고 해도

박인환 시인의 <세월이 가면> 중에서



2020

미술작품도 ‘직구’하는 시대

청년작가들, ‘직구’로 직구를 던지다

‘직구’는 소비자들이 주로 나라 밖의 생산자로부터 명품, 인기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다. 일상어가 될 만큼 수년 전부터 유행한 소비생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런 직구 트렌드가 울며 미술판에도 옮겨 오면서 색다른 쟁점이 되었다. ‘직구’로 기존 미술시장에 직구를 던지는 청년작가들의 장터가 여기저기서 미니 비엔날레 같은 열개로 꾸러진 것이다. 이들이 작가들의 작품 유통을 도맡아온 화랑을 배제하고 자체 전시를 만들고 작품을 직접 컬렉터와 관객에게 판 것이 이슈가 됐다. 이 장터들은 화랑가 전시와는 전혀 다른 기획 틀과 싼값의 직거래 스타일을 내걸고 컬렉터와 기획자, 일반 관객들의 발길을 끌어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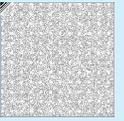
성황리에 막을 내린 ‘유니온아트페어’

가장 뜨거운 눈길을 받은 건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서울 인사동 피맛골 뒷골목의 폐사가 건물에서 ‘유니온아트페어’란 제목을 내걸고 열흘간 치른 직거래 장터였다.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에 대표작가로 나간 이완 작가와 최두수 작가 등이 꾸린 극동예술연합이란 작가 모임이 주최한 행사다. 방치된 피맛골의 옛 ‘빠고다가구점’ 폐건물을 비엔날레 전시장 같은 열개로 리모델링한 것부터 화제가 됐다.

3층짜리 폐가구점 건물에는 앙상한 철거 흔적이 남은 벽들과 바닥 공간을 무대로 그림과 설치 작품, 미디어아트 등의 다양한 장르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화랑가에서 얼굴도 내밀지 못했던 청년작가 100여 명의 작품들을 낱 것 그대로 여기저기 내걸거나 펼쳐면서 ‘신선한 기획’이란 호평이 나왔다. 원로 중견작가들과 유명 만화가가 찬조 출품한 작품들도 있다 보니 수천만 원대의 고가 미술품도 일부 있었지만, 작품 값은 상당수가 10만~100만 원 대였고 화랑처럼 사고팔 때 중간 마진을 붙이지 않았다. 유니온아트페어는 지난해 첫 회 행사를 서울 이태원 블루스퀘어 공간에서 치른 바 있는데, 올해는 첫 회보다 규모가 3배 가까이 커졌다는 게 장터를 마련한 작가들의 말이다.

유니온아트페어는 청년작가들이 100% 자체적으로 기획한 행사는 아니다.





1, 2 서울 인사동 폐가구점 건물에서 작가 직거래 장터로 열린 '유니온아트페어' 전시 모습.

피맛골의 폐가구점 건물을 사들여 재개발을 추진해온 한 디자인기업이 청년작가들에게 “판을 벌려보라”고 공간을 내줘 성사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가 수천만 원대의 공공지원금으로 행사 밀천을 대준 것도 특기할 만하다.

예경 쪽은 “화랑공간이나 아트페어의 진입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시장에서 소외된 청년작가들의 지속적인 작업 환경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자체 미술장터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화랑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신진작가들과 구매자들의 감상과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시장 저변 확대에 주된 취지가 있다는 얘기다.

작가 직거래 장터는 2015년 10월 신생공간 10여 곳이 연합해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 차렸던 장터 ‘굿즈’가 작가들과 관객의 관심 속에 호평을 얻은 것이 본격적인 시발이었다. 이후 예경 지원을 받는 장터만 지난해 12곳이 차려졌고, 올해는 17곳이나 되는 직거래 장터가 차려졌거나 준비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만 해도 유니온아트페어를 필두로 7월엔 ‘그림도시 S#2’가 서울 성수동에서 개설했고, ‘취미관’(10월 10일~11월 5일/12일), ‘캐비닛 아트페어’(10월 18일~22일), ‘벌, 바람 그리고 바다’(10월 26일~31일), ‘블라인드 데이트’(11월 1일~14일), ‘더 스크랩’(12월 중순) 등이 추가로 개설했을 예정이다.

미술품 직거래 시장이 지속되려면...

심기가 불편해진 건 기존 화랑업자들이다. 지난해부터 조금씩 움트던 작가 직거래 장터가 유니온아트페어 개최를 계기로 최근 새로운 대안적 시장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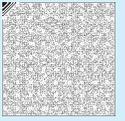
로 부각되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화랑들의 권익단체인 한국화랑협회는 지난 6월 한국미술협회와 함께 마련한 정책 세미나를 통해 유니온아트페어 같은 직거래 장터들이 유통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면서 “직거래 장터 출품 청년작가들의 화랑 영입을 자제하겠다”, “장터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등의 반응을 내놓았다.

작가들이 중개화랑을 끼고 컬렉터들과 거래하는 것은 서구의 자본주의 역사에서 비롯된 관행이다. 작가들은 중세 이래로 교회나 황제, 영주들의 후원 아래 장인으로 일했지만, 18세기 이래 시민혁명과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후원 세력을 잃고 불특정 대중에게 작품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금융기관 비슷하게 안목과 재력이 있는 수집가들에게 판로를 알선해주는 화랑들이 생겨난 것은 필연적이었다. 19세기 말 인상파 대두 이후 화랑업자들은 유망 작가들을 컬렉터와 연결해주면서 새 사조를 부각시키고 유행시키는 후견인 구실을 맡게 된다. 입체파, 팝아트 등 20세기 미술사를 수놓은 주요 유파와 사조들이 전위적 흐름을 앞서 시장에 소개하고 상품화한 유력 화랑주들의 안목과 지원 덕분에 명성을 얻은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선풍을 일으킨 단색조 회화 같은 70년대 추상회화의 재조명에 화랑업자들이 기여한 게 사실이다.

이런 역사적 내력을 돌이켜보면, 요즘 국내 청년작가들이 나라의 지원까지 받아가며 잇따라 직구 장터를 꾸리게 된 배경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고 컬렉터에 연결해주는 화랑의 기능이 미약해져 이에 대한 불만에서 자구책이 나왔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 화랑가에서 현재 전시 가능한 청년작가는 전체의 10%도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화랑업자들은 장기 불황으로 환금성이 높은 원로 중견작가들의 단색조 추상작업들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시장 상황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미술관에서 업자들의 안목과 거래 행태는 이미 불신과 냉소를 받은 지 오래다. 천경자 화백과 이우환 작가의 고질적인 작품 진위 논란이 거듭되고 있고, 무자료 밀실 거래와 젊은 작가들에 대한 인색한 투자 등이 오랫동안 허실로 지적되어 왔지만, 개선되는 조짐을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직거래 장터가 지속성을 장담할 수 있을 정도로 건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무명의 청년작가들이 주류지만, 기성 화단의 유명작가들도 일부 뒤섞여 있어 정체성이 모호하다. 화랑의 아트페어처럼 구매자들을 납득시킬 만한 객관적인 가격 설정 잣대가 세워지지 않았고, 출품된 작품 수준의 편차가 적지 않다는 등의 맹점들도 있다. 화랑들의 고급 시장과 별개 영역에서 신진 청년작가들을 소개하고 검증하는 직거래 시장의 정체성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립해야 지속성과 자생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글 노형석, 한겨레 미술전문기자 사진 제공 한겨레



사회 전반에 '갑질'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화예술계 또한 다양한 '갑질' 횡포로 몸살을 앓아왔다.

1. 검열과 블랙리스트에 항의하는 젊은 연극인들의 공연예술제 '권리장전2016 검열각하' 킥오프 행사 모습.
2. '호원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 학생 자치권확립 위원회'는 '갑질 논란'을 일으킨 해당 교수에게 합당한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3.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공연은 학생들이 연출하는 게 좋겠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학생들은 교수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대학 측에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 지역 무용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7월 부산CBS가 연속 보도한 '지역 무용계 갑질' 기획에 따르면, 신인무용가 씨는 자신이 초창반은 공연에 자신의 이름 대신 스승의 이름이 연출자로 오르는 피해를 겪었다. 또 다른 제자는 사비까지 털어 준비한 무대의 연출자 이름을 이 스승에게 빼앗겼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 밖에 대학교수가 자신이 무용단장으로 참여하는 공연에 참여하지도 않는 제자의 이름을 허위로 올리는 일도 있었다. 이는 공연에 필요한 진행요원의 이름을 허위로 올린 뒤 인건비를 받으려는 이른바 '페이백' 관행이었다. 이 역시 언론이 보도한 뒤 부산 무용계가 나서 진상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대학 측도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통과 상처를 숨기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사례만 보면 교수들만 '갑질'의 주범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최근 일어난 사례에 교수들이 주로 등장한 것뿐이다. '갑질'의 주체는 교수만이 아니다. 권력 구조 상층부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갑질'을 자행할 가능성이 크다. '갑질'이 위계라는 구조적 문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탓이다.

이러한 위계가 유지되는 것은 공연계가 시쳇말로 '좁은 바닥'이기 때문이다. 인맥과 소개에 따라 거취가 결정되곤 하기에, 뒷사람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한 번 찍히면 이 바닥에서 먹고살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구조가 '갑질'이라는 악순환을 끊지 못하게 만든다.

사회 구성원 어느 누구보다도 감수성이 풍부한 문화예술인이 '갑질'을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갑질'이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그 '갑질'은 안타깝게도, 대를 이어간다. 이 글에서 '좁은 바닥'이나, 교수들의 막강한 권한이 문제라느니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갑질'의 주체와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 사례들에서 주목하기를 바라는 것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문제들이 해결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용기 있는 폭로와 이들의 연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 당부한다. 고통과 상처를 숨기지 말라. 숨기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갑질'은 나 혼자 당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다. 내 동료, 후배가 반드시 겪게 된다. 그리고 폭로했다면, 그 폭로를 들었다면 이들은 연대하라. 한 개인이 이 구조에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약자를 보호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현재, '갑질'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약자들의 조직화와 '갑질'에 대한 집단적 저항뿐이다. 서로가 힘이 되어주자. 그대들 스스로 말하듯이 '좁은 바닥'이지 않나.

글 유연석, CBS노컷뉴스 기자

음악극 <100년의 예술가, 윤이상×운동주>

두 거장의 삶을 마주하다

올해 한국 문화예술계의 주인공은 탄생 100주년을 맞은 두 예술가다. 바로 시인 운동주(1917~1945)와 작곡가 윤이상(1917~1995).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두 거장 예술가의 삶과 작품을 기리는 행사가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다. 9월 2일, 서울 청운동 운동주문학관, 시인의 언덕에서는 서울문화재단과 종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음악극 <100년의 예술가, 윤이상×운동주>가 펼쳐진다.

- 1 서울 청운동 운동주문학관.
- 2 극단 걸판의 연습 모습.
- 3 청년 윤이상 연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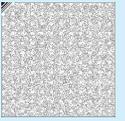
운동주와 윤이상을 한자리에서 만나다

운동주와 윤이상, 두 거장은 같은 해에 태어났지만 삶의 궤적은 많이 달랐다. 북간도 용정에서 태어난 운동주는 서울 연희전문학교를 거쳐 1942년 3월 일본 유학을 떠났다. 하지만 이듬해 7월 사촌 송몽규와 함께 조선의 독립과 민족문화 수호를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그리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1945년 2월 29세의 젊은 나이에 순국했다. 1948년 31편의 시가 수록된 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출간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반면 경남 통영 출신인 윤이상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지하조직에 가담했다가 2달간 투옥되기도 했지만 무사히 해방을 맞았다. 1956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난 뒤 독일에 정착한 그는 오페라 <심청>과 관현악곡 <예악>, <무악> 등으로 세계적인 작곡가의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1967년 '동백림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2년간 수감생활을 한 뒤 친북 인사로 낙인 찍혀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못했다.

조국을 사랑했지만 조국에 돌아가지 못했던 두 거장을 한 무대에 세운 작품이 관객을 찾는다. 서울문화재단이 종로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음악극 <100년의 예술가, 윤이상×운동주>가 그것으로, 9월 2일 서울 청운동 운동주문학관 시인의 언덕에서 공연된다. 극단 걸판을 이끄는 최현미가 쓰고 연출하는 이 작품은 두 거장이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조국에





서 만나 함께 작업했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상상에서 비롯됐다.

이 작품은 운동주와 윤이상의 일생에서 중요한 ‘공간’을 함께했거나 ‘정치’적으로 연결된 두 인물을 각각 등장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들의 회고를 통해 운동주와 윤이상을 차례차례 무대에 불러낸다.

전반부는 연희전문학교 시절 운동주의 친구 정병욱(1922~1982)과 스승 이양하(1904~1963)를 통해 운동주를 그리고 있다. 운동주는 두 사람과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5살 아래인 정병욱을 결코 손아랫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고, 교수 이양하와는 담배를 피우며 은밀한 대화를 나눌 정도로 친밀했다.

연희전문학교 졸업을 앞두고 운동주는 그동안 쓴 시들을 묶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자필 시집 3부를 만들었다. 3부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갖고, 나머지 2부는 이양하와 정병욱에 넘겼다. 이 시집을 읽은 이양하는 일본 유학을 앞둔 운동주의 신변을 걱정해 출판을 보류하라고 권했다. 이후 운동주와 이양하가 가지고 있던 자필 시집은 행방을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정병욱이 가지고 있던 자필 시집은 그의 어머니가 장롱 속 깊이 감춰둔 덕분에 해방 후 빛을 보게 됐다.

윤이상을 불러낸 후반부에는 남북한에 있던 그의 두 동향 친구가 등장한다. 그의 방북을 처음 권유한 월북 음악가 최상한과 한평생 진한 우정을 나눴던 시조시인 김상옥이다. 독일에 머물던 윤이상은 최상한의 편지를 받고 1963년 북한을 방문한다. 죽마고우를 만나고 강서고분 벽화를 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부정선거 시비를 덮기 위해 일으킨 동백림 사건으로 고초를 치르게 된다.

일제 말기 윤이상과 도피생활을 함께했던 김상옥은 해방 후 윤이상 등 통영 출신 예술가들과 함께 통영문화협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윤이상의 가곡 <편지>와 <그네>는 바로 김상옥의 시에 곡을 붙인 것이다. 김상옥은 동백림 사건 당시 윤이상을 적극 변호한 것은 물론 윤이상이 타계했을 때 통영에서 추도식을 주도할 만큼 각별했다.

음악극 <100년의 예술가, 윤이상×운동주>에는 지난해 개봉돼 큰 주목을 받았던 영화 <동주>의 OST와 함께 윤이상이 작곡한 가곡들과 관현악곡이 사용된다. 고단했던 두 거장의 삶을 관객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17-17’

<100년의 예술가, 윤이상×운동주>는 서울문화재단이 8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4주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진행하는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17-17’(이하 ‘17-17’)의 일환이다. ‘17-17’의 핵심은 지난 5월 공개 모집과 6월 오디션으로 선발된 청년 클래식 앙상블 ‘청년 윤이상 연주단’이 참여하는



<프롬나드 콘서트>다. 12명의 젊은 연주자로 구성된 청년 윤이상 연주단은 현대음악을 어렵게 느끼는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다. 음악감독으로 최우정 서울대 작곡과 교수가 함께하며, 청년 윤이상 연주단의 멘토로 TIMF 앙상블 단원들이 참여한다.

문화역서울284, 운동주박물관, 서울로7017, 복합문화예술공간 행화탕, 다시세운광장 등에서 6회에 걸쳐 열리는 <프롬나드 콘서트>는 공연마다 작곡가 윤이상의 음악에 문학, 판소리, 비보잉, 토크 등 다양한 장르를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프롬나드 콘서트>의 대미는 윤이상이 태어난 9월 17일 다시세운광장에서 마무리된다. 그리고 9월 23일 DDP 잔디언덕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윤이상을 기리는 대규모 야외 콘서트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평화헌정콘서트: 윤이상으로부터>가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글 장지영, 국민일보 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사진 제공 종로문화재단, 극단 결판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예술로 상상극장>

어린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극장이 된다

지난 8월 8일부터 20일까지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에서는 2017년
<예술로 상상극장> 공연이 진행됐다.
<예술로 상상극장>를 뚫고 선발된 어린이극TA
(Teaching Artist)들은 2달여간의 작품
개발·제작 워크숍을 거쳐 4개의 극을
창작했다. 무더운 여름방학 놀이터
만들어준 아이들의 예술체험 놀이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로 들어가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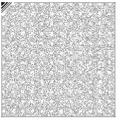
만들어가는 즐거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다소 힘들 수 있지만, <예술로 상상극장>의 작품 창작을 위해 모인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얼굴은 항상 즐거워 보였다. 총 4팀의 배우들은 2달여의 기간 동안 임도완(사다리연구소 소장) 예술감독 외 2명의 전문 스태프들과 함께 작품 개발·제작 워크숍을 진행했고,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그들은 어린이들을 위한 극을 만들면서도 <예술로 상상극장>의 취지에 적합한 내용의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거듭했다. 그중 가장 중점에 둔 것은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는 것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배우들과 함께 공연에 직접 참여하여 호흡하고 몸을 움직여보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평소 극장에 가기 어려웠던 아이들이나 공연장 자체를 무서워했던 아이들에게 예술 체험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일반적인 캐릭터극이나 한정적인 주제의 어린이극에 지친 부모님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 배우와 스태프 모두 무더운 여름날에도 지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했다.



2017년 <예술로 상상극장>은 4팀이 3일간 1일 2회, 총 12일간 24회 진행됐다. 첫 출발이었던 이혜진, 김현진 팀의 <황금빛언덕의 모험>은 동글동글마녀가 소리친구들을 황금빛 언덕에 가두고 아이들이 직접 모험가가 되어 소리친구들을 찾으러 가는 여정으로부터 시작됐다. 아이들은 3명의 문지기를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 배우들과 함께 극에 참여했다. 이 공연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부엌의 사물들을 의인화한 독특한 캐릭터들이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했다. 극의 일부분으로 들어간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소리친구들을 구해줬다는 자부심을 공연이 끝난 후에도 느끼는 듯했다. 또한 어른들의 일반적인 어린이극에 대한 고정관념도 깨트려 공연을 본 부모님들은 “아이디어가 신선하다”, “지루하지 않은 연출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 좋았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두 번째 공연은 1인 마임음악극 <푸른빛자루 극장>으로, 시간을 잡아놓은 푸빛이의 노트를 펼치며 진행되는 이야기였다. 노트 속에는 주인공인 푸빛이의 다양한 이야기들과 인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인물들의 이야기가 관객들과 만나면서 큰 울림을 주었다. 1인극답게 4작품 중 가장 잔잔하면서도 깊은 여운을 전했다. 어린 푸빛이와 함께 카드놀이를 하며 놀던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을 잃는 병에 걸려 소중한 시간을 잡아놓기 위해 자신의 노트에 푸빛이를 넣어둔다는 이야기는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면서도 부모님들의 잔잔한 기억을 건드렸다.



함께 즐기는 공연

세 번째 작품 <아, 글썸~ 진짜!>는 잠이 오지 않는 두 친구의 방에서 펼쳐지는 오싹하고도 코믹한 이야기로,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비슷한 환경의 흥미로운 무대 연출이 재미를 불러일으켰다. 방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듯한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웃게 했다. 다소 대비되는 두 배우의 캐릭터도 주목할 만했으며, 현재에서 옛날로 넘어가는 이야기 전개 방식은 아이들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한몫했다.

마지막으로 엄문용, 김예지, 임영준의 <시르릉비쭈할라뽕>은 정승집 사위가 되기 위해 떠난 활꾼이 신기하게 우는 새를 만나면서 펼쳐지는 기상천외한 이야기였다. 이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은 객석에 텐트를 설치하여 무대와외의 경계를 허물고 아이들이 텐트 속으로 들어가 공연을 관람한다는 것이었다. 텐트에 들어가 공연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요소이므로 아이들은 극장 안



- 1 <황금빛언덕의 모험>
- 2 <아, 글썸~ 진짜!>
- 3 <푸른빛자루 극장>
- 4 <시르릉비쭈할라뽕>



에 들어서면서부터 미소를 지었다. 특히 다채로운 인물 묘사와 배우들의 에너지 넘치는 연기 덕분인지 어른들 또한 아이들 못지않게 공연을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예술로 상상극장>의 공연을 만든 배우, 전문 스태프, 직원들의 목적은 하나였다. '어린이가 있는 곳 어디나 극장이 된다'라는 취지 아래, 평소에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아이들, 극장이 무서워 입장조차 두려워했던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고 직접 극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각자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주는 것.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더운 여름날에 모두가 함께 땀 흘리며 완성도 높은 4작품을 창작할 수 있었다. 8월 2주간의 뜨거웠던 공연을 마치고 이들은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또 다른 어린이들과 만날 예정이다. 어린이들을 위해 앞으로도 바쁘게 뛰어다닐 그들을 응원한다.

글 오영재,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사진 서울문화재단

청년 메이커스 코워킹 스페이스 '세운 561호'

상상을 현실로

픽사의 <토이 스토리> 감독 존 라세터(John Lasseter)는 “예술은 기술의 발전을 부르고, 기술은 예술에 영감을 준다”라는 말로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강조했다. 예술적 창의성에 기술을 더하면, 또는 기술에 예술적 영감을 더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기술에 예술을 더하든, 예술에 기술을 접목하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본으로 이를 탄탄하게 뒷받침할 철학적 사유가 부재하다면, 예술의 본질은 흐려질 수 있다. 최근 문을 연 '세운 561호'는 메이커와 시민, 장인들의 협업을 통해 과학과 기술은 창의성에 기반하여 예술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예술은 이에 답함으로써 합일을 이루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한다.

- 1, 2 8월에 진행된 문정현 작가의 '코딩하는 아티스트101' 워크숍.
3 '예술은 기술을 어떻게 다루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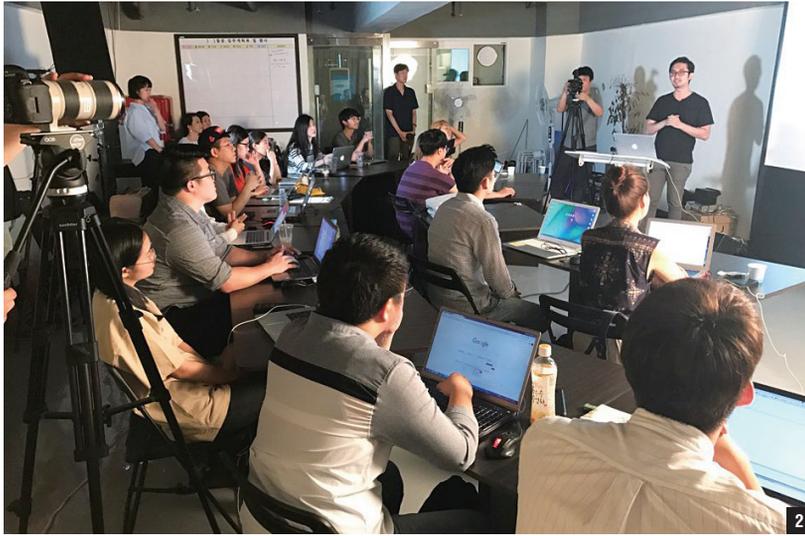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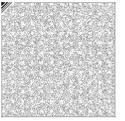


메이커 시티(Maker City)로 진화하는 세운상가

세운상가는 1960년대 문을 연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로 1970년대부터 약 10년간 전자, 전기산업의 발전에 기여했으나 급변하는 제조업의 구조 변화로 침체기를 겪어왔다. 2017년 3월부터 세운상가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인큐베이팅 스타트업, 교육과 제작 활동을 하는 4대 전략기관과 입주공간이 개소되었으며, 8월에는 창작, 개발 공간인 메이커스 큐브가 오픈하고, 9월 초에는 시민 문화시설과 공중 보행교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업과 공공영역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인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3D 프린팅, 로봇 등의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해 어떻게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맥락에서 과거와는 다른 생산 형태가 등장하였고,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디지털 제조기술, 그리고 창의적인 지성을 보유한 메이커들이 메이커 무브먼트를 이끌고 있다. 세운상가 일대가 창의 제조산업을 중심으로 제작, 생산과 판매, 상업과 문화가 연결된 하나의 메이커 시티(Maker City)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에 대응하는 예술 '세운 561호'

서울문화재단은 2015년부터 세운상가의 이정성(아트마스터), 차광수(차산전력), 홍인전자(조수용, 장은진), 한영만(한성Hi-Tech) 장인 등과 메이커스, 예술가의 협업, 제작문화 공유를 통한 메이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을 바꾸는 예술 청년편(Y)'의 Y-메이커스 50여 명을 선정해 서울과 사회문제에 대한 메이커적 접근, 기술 기반의 문화예술 분야 메이커 활동을 지원 중에 있으며, 미세먼지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7월에는 융합콘텐츠의 기획, 개발을 통한 사회문제의 창의적 해결



‘코딩하는 아티스트101’ 워크숍 참여 후기

- # 작가님의 수업 방식(내용, 태도, 준비 상태 등)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 # 차근차근 알려주며 라이브 코딩으로 하나하나 직접 테스트해볼 수 있어서 강의를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 #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 # 프로그램의 입문에 좋고, 새로운 호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 #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의 난이도가 만족스러웠습니다.
- # 강의 시간과 커리큘럼이 일회성이라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워크숍의 심화과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을 위한 청년 메이커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존 장르 밖 청년 예술가 및 메이커의 도심 지역 내 활동을 지원하고자 세운상가 561호에 거점공간을 마련했다. ‘2017 서울상상력발전소×청년 메이커스 플랫폼’ 프로젝트의 전초기지이자, 기술에 대응하는 예술을 고민하는 청년 메이커들의 공유공간이기도 한 ‘세운 561호’에서는 예술가, 메이커, 장인,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함께 예술과 기술을 접목한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8월에는 다양한 미디어와 테크놀로지를 접목한 전시 및 공연 연출을 하는 교육자이자 크리에이티브 코더, 인터랙션 디자이너이기도 한 문정현(MOQN, NYU Shanghai 교수) 작가의 ‘코딩하는 아티스트101’ 워크숍이 진행됐다. 코딩을 처음 접해보는 일반 시민들도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기획된 워크숍으로, 4시간의 워크숍 후 라이브 코딩으로 개개인의 모바일폰과 연동해 이미지와 사운드를 구

현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또한, 8월 12일 Y-메이커스로 선정된 ‘여성을 위한 오픈기술 랩’에서 이소요 미술가(생물과 문화)와 오경미 연구자(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예술은 기술을 어떻게 다루는가?’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예술에 있어 기술이 어떻게 이용되며 소비되는지, 기술의 향유에 가려져 있던 단면들을 바이오 아트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다.

이 밖에도 올해 연말까지 청년 메이커들의 워크숍,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강연 등이 30여 회 예정되어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습정화기, 전자회로 키트를 활용한 공작 워크숍, 무단횡단방지 신호등 설루션(solution) 디자인 워크숍 및 세운전자 얼굴 키트 만들기 등이 9월부터 11월까지 ‘세운 561호’에서 열린다. 기술과 예술적 상상력이 결합된 작품의 개발지원 및 시민 참여형 워크숍도 상설 진행되며, 우수 메이커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2017 서울상상력발전소×청년 메이커스 플랫폼-메이커스, 생각하는 손’ 행사에 전시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세운 561호’는 서울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예술가, 메이커 등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다. ‘세운 561호’ 및 2017 서울상상력발전소와 관련한 내용은 ‘서울상상력발전소 페이스북(www.facebook.com/seoulpowerstation)’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글 오인경,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사진 서울문화재단



도심 속의 쉼 '당신의 자리' 휴식이 필요할 때

‘복잡한 도시와 바쁜 일상을 벗어나 편히 쉬고 싶다. 집을 떠나 낯선 어딘가로 떠나고 싶지만 북적이는 여행지는 싫다. 태어나서부터 줄곧 아파트에만 살아서 주택에서 며칠간 지내보고 싶다...’ 당신이 찾던, 당신을 기다리는 공간이 가까운 서울에 있다. 정원 가득 녹색식물이 자라고, 시가 있는 방이 있고, 옥상에는 이야기와 음악이 흐르는 ‘당신의 자리’이다.

쉼표가 있는 자리

차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합정역 사거리를 지나 골목에 들어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한 주택가가 나온다. 다시 좁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당신의 자리’가 보인다. 공간의 이름 ‘당신의 자리’는 유희경 시인의 시 제목이다. 짐작했겠지만 ‘당신의 자리’를 만든 이중한 명도 시인(오은)이다. 아담한 2층 주택을 빌려 1층은 사무실, 2층은 게스트하우스, 옥상은 휴식공간이자 문화예술공간으로 꾸몄다. 2층에는 크고 작은 방 2개, 주방과 거실, 화장실이 있다. 입구에 적혀 있는 ‘지금부터 여기가 당신의, 자리입니다’라는 인사말과 곳곳에 소품처럼 비치해둔 <당신의 자리-나무로 자라는 방법>(아침달, 2017) 시집이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의외로 서울에 사는 여자들이 많이 오시고요, 외국에서도 문의가 온 적은 있었는데 아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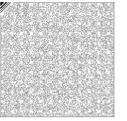
까지 방문한 적은 없어요. 평일보다는 주말에 친한 친구 3~4명이 와서 소소한 파티를 해요. 2층 전체를 한 팀에게만 빌려주거든요.” 오은 시인의 설명이다. 2층 테라스와 1층 정원에서 직접 기르고 있는 호박, 상추, 블루베리 등은 마음대로 따 먹어도 된단다.

3층 옥상에는 ‘당신의 높은음자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건물 밖으로 나 있는 철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옥상이 나온다. 살짝만 뛰어도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웃집과 바짝 붙어 있다. 나지막한 주택들 사이로 우뚝 솟아 있는 인근 당인리 화력발전소 굴뚝도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이다. 평소에는 그늘막 아래 캠핑 의자에 앉아 쉬거나 해먹에 누워 낮잠을 청해도 좋다.

옥상에서는 매달 한두 번 정도 아기자기한 행사가 열린다. 조명을 켜고 간이의자들을 펼쳐놓으면 멋진 야외행사장으로 변신한다. 소



- 1 '당신의 자리' 1층 입구.
- 2-4 친근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당신의 자리' 정원과 거실, 방.
- 5 아기자기한 행사가 열리는 옥상.
- 6 '당신의 높은음자리' 행사 모습.



4



5

규모 행사에 적합하지만 조용한 주택가라 모든 행사는 10시 이전에 끝내야 한다. '당신의 높은음자리'에서 열리는 행사 이름은 '예술이 있어 기쁜 밤', 줄여서 '예쁜 밤'이다. 시인이 주인공이다 보니 문학행사로 시작했다. 지난 7월 31일 열린 첫 번째 행사의 주인공은 첫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난다, 2017)을 낸 박준 시인이었다. "정원이 30명이었는데 신청을 시작한 지 하루도 안 돼서 마감되었다"고 한다. 8월의 '예쁜 밤'은 에세이집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늘, 2017)의 김신희 작가와 함께했다. 9월에는 글쓰는 의사인 <만약은 없다>(문학동네, 2016)의 저자 남궁인을 초대하고, 오은 시인과 박준우 셰프의 '냉동고를 부탁해' 대결도 벌어질 예정이다. 날이 좀 더 선선해지면 파스텔 뮤직과 함께 옥상 공연도 열 계획이다.

예술이 있는 자리

1층은 응컴퍼니의 사무실이다. 응컴퍼니는 올해 초부터 TF로 일을 해오다 6월 정식으로 창업한 신생 회사다. 2층 게스트하우스를 관리하고 3층 옥상에서 열리는 문화행사도 모두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한다. '아니'의 반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응'이란 다. 공동대표 3명의 이름에 모두 2개의 'ㅇ'이 들어 있기도 하다. 오은 시인과 파스텔 뮤직 이용민 대표, 스튜디오360플랜 신중은 대표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뭉쳤다. 오은 시인은 "작년 10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 파스텔'에 드나들다 이용민 대표와 가까워졌고, 공간디자이너를 하는 신중은 대표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문화 기획, 브랜드 마케팅 일을 주로 하다 보니, 공공의 문화 관련 프로젝트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디자인재단이 공모한 '2017년 공유도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시가 담긴 파빌리온 '시.zip'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zip'은 함께 시를 듣고, 읽고, 짓는 행위를 통해 시민들 스스로 문화를 생산하는 공공미술 공간이다.

'자리를 사전에서 찾으려면 '일정한 사람이 모인 곳'이라는 뜻이 있다. '당신의 자리'에는 3명의 공동대표와 친분이 있는 각계각층의 예술가들이 드나든다.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거나 문화행사에 신청해서 갔다가 이곳에 놀러 온 시인, 음악가, 예술가들과 마주칠지도 모를 일이다. 이들과 잠시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다가 주인처럼 머물다 떠나도 괜찮다. 여긴 당신을 위해 비워둔 자리니까.

글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사진 제공 당신의 자리



6



연극 <타지마할의 근위병>과 <노숙의 시>

2인극의 깊은 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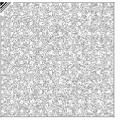
출연 배우는 단 2명이다. 무대 역시 간소하다. 화려한 효과나 장치도 없다. 그럼에도 관객의 마음을 꽉 채우는 건 탄탄한 서사를 지닌 작품의 힘과 작품의 주제를 오롯이 전하는 배우들의 탁월한 연기력 덕분이다. 배우들의 디테일한 표정과 숨소리를 가까이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건 2인극의 또 다른 매력. 청년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끊임없는 대화를 좇는 연극 <타지마할의 근위병>, 한국의 정치적 격동기를 경험한 노년과 중년 남자의 묵직한 대화를 담은 연극 <노숙의 시>를 소개한다.

아름다움의 의미를 찾아서

<타지마할의 근위병> 8. 1~10.15, 대명문화공장 2관 라이프웨이홀

아름답기로 유명한 인도의 대표적 이슬람 건축물인 타지마할. 인도 아그라의 남쪽에 자리 잡은 타지마할은 17세기 무굴제국의 황제였던 샤 자한이 자신이 사랑했던 왕비 뭉타즈 마할의 죽음을 애도하며 22년에 걸쳐 지은 것이다. '찬란한 무덤' 타지마할의 완벽한 아름다움은 세계 각지에서 불려온 건축가와 기술자, 기능공 등 2만여 명의 희생으로 빚어졌다. 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연극 <타지마할의 근위병>은 절대자의 권력 남용에 희생된 인간의 가치와 아름다움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다.

국내에서 초연되는 연극 <타지마할의 근위병>은 <바그다드 동물원의 맹갈 호랑이>로 풀리처상 후보에 오른 극작가 라지프 조셉이 2015년 처음 선보인 작품이다. 당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평단과 관객의 찬사를 받았다. 예술과 아름다움을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생



각으로 풀어내는 데 탁월한 조셉은 이 작품에서도 아름다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신선한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황실의 말단 근위병인 '휴마운'과 '바불'은 타지마할을 등진 채 보초를 서고 있다.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지만 두 사람은 타지마할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금기를 깨고 만다. 그에 대한 별로 두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삶과 우정, 아름다움의 가치에 대한 관념을 크게 흔들어놓는다. 초반부터 끝까지 두 사람의 끊임없는 대화가 극을 이끈다. 작품 초반 강렬한 사건 전개에 충격을 느낀 관객들은 삶의 가치, 우정, 아름다움의 의미를 예기치 않게 깨닫게 된다. 특히 두 배우의 완벽한 호흡이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황제의 권위를 존경하고 규율을 중시하는 휴마운은 배우 조성윤, 최재림이 연기한다. 호기심 많고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바불은 김중구, 이상이가 맡았다. 다소 잔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임신부나 노약자, 청소년이 관람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1 연극 <타지마할의 근위병>

2 연극 <노숙의 시>

격동의 한국사를 가로지르다

<노숙의 시> 8. 24~9. 17, 30스튜디오

이번에는 갈 곳 잃은 중년과 노년의 남성 노숙인들 이야기다. 연극 <노숙의 시>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미국 극작가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 중 하나인 <동물원 이야기>가 원작이다. 원작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배경으로 30대 후반의 '제리'와 40대 초반의 출판사 임원 '피터'가 한 벤치에서 이어가는 대화를 통해 현대인의 소외되고 고독한 삶,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표현했다. 연출을 맡은 이운택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은 한국의 두 노숙자 이야기로 원작을 고쳐 썼다.

노년의 '무명씨'는 1967년 동백림 사건부터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29 민주화선언, 2016년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한국의 근현대사를 겪으며 수많은 정치적 선택과 굴곡진 인생을 살아야 했던 인물이다. 직장을 잃고 가족을 포기한 채 노숙을 하게 된 중년의 '김씨'는 벤치를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삶의 근거라고 여긴다. 이곳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며 책을 읽고 전화를 하고 인터넷을 하지만 그는 세상으로부터 완벽히 소외되어 있다. 한국 사회의 정치적 변화에 맞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무명씨에 반해 김씨는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고 행동하지도 않은 채 우유부단하게 살아갈 뿐이다. 마침내 무명씨를 만난 김씨는 어느 쪽이든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인다.

무명씨는 지난해 연극 <황혼>에 이어 연희단거리패와 두 번째로 작업을 하게 된 명계남이 연기한다. 김씨는 2015년 연극 <백석우화>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연희단거리패의 배우이자 연출가인 오동식이 맡았다.

이 작품을 통해 "격랑의 한국사를 가로지르고 싶었다"는 이운택 연출은 "올비가 바라본 1950년대 미국 사회와 지금 내가 바라보는 2017년 한국 사회는 구성체가 전혀 다른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곳 한국이란 동시대를 무대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재창작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의 말처럼 두 배우의 묵직하고 진솔한 담론은 최근 또 다른 격동의 역사를 겪은 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이다.

글 조희선, 서울신문 기자 사진 제공 달컴퍼니, 연희단거리패

임옥상 개인전 <바람 일다>와
송창 개인전 <꽃그늘>

오늘 현재의 민중미술

'민중미술=걸개그림'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등호(=)를 부분집합(⊂)으로 바꿀 차례다. 민중미술이라고 다 같지 않다. 사회참여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비슷하다고 여기지만 작가들마다 집중하는 주제도, 매체도, 방식도 하나로 묶을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꾼다는 공통점이 있을 뿐이다. 때마침 서울 메이저 갤러리에선 1979년 '현실과 발언' 창립 동인으로 활동한 임옥상과 1982년 '임술년'을 창립한 송창의 전시가 열린다. 결이 다른 민중미술 작가를 동시에 만나볼 수 있다. 또 단색화 이후 한국을 대표할 미술 사조로 주목되는 민중미술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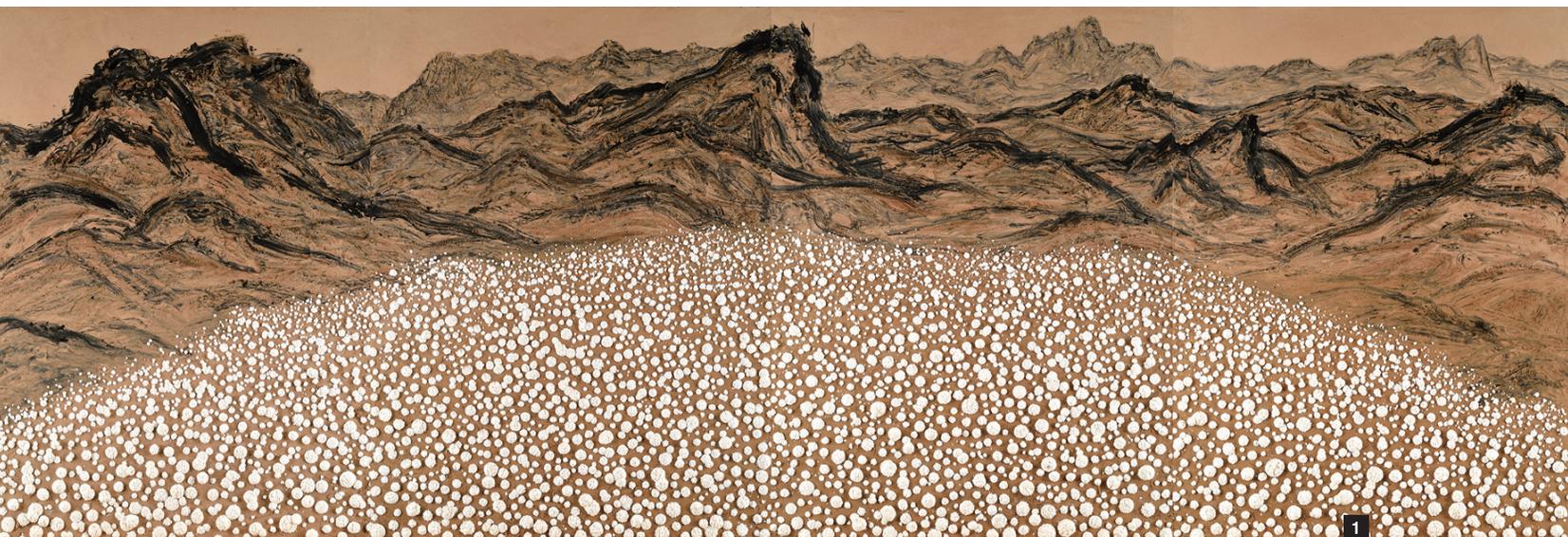
광장의 언어가 스며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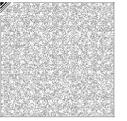
임옥상 개인전 <바람 일다> 가나아트갤러리, 8. 23~9. 17

'민중미술 1세대'라 불리며 한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을 해온 작가 임옥상이 6년 만에 개인전을 개최한다. '바람 일다'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에는 지난 겨울 광화문광장의 기억이 담긴 흙 작업과 유화 40여 점이 나온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 대해 "지난해 말 토요일마다 시위 현장에서 문화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때 거리에서 느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를 전시장으로 들여놨다"며 "광장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스민 작품들"이라고 설명했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광화문에 하나둘 모여든 촛불이 거대한 파도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작가는 '시대가 바뀐다'고 직감했는지 모르겠다. <바람 일다> 전엔 '일순간 불다가 마는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을 내가 일으키는, 내 바람이고 우리의 바람'임을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담겼다.

이번 전시에 선보인 작품들은 1980년대 민중미술의 어법을 따르면서도, 과거의 자신이나 기존의 민중미술과 차별화를 꾀한다.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물대포 사건을 그린 <상선약수>(2016)는 정치 비판과 표현양식에서 1980년대 민중미술의 핵심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작품을 만나는 순간 통렬한 비판에 가슴 한편이 서늘하다. 그런가 하면 흙 작업에선 2017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작가 임옥상의 고민이 도드라진다. 과거 흙을 매체로 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온 작가지만, 이번엔 재료로서의 흙에 대한 성찰이 눈에 띈





- 1 임옥상 <여기, 흰꽃>(Here, White Flowers), 2017, 캔버스에 혼합 재료, 259×776cm.
- 2 송창 <그곳의 봄>(The Spring of That Place), 2014, 캔버스에 유채, 조화, 194×379cm.
- 3 송창 <굴절된 시간>(Refracted Time), 1996, 캔버스에 유채, 나무껍질, 181.8×454.6cm.

다. 김홍희 전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임옥상은 이전에도 땅을 주제로 흙을 매체로 하는 작품을 제작해왔지만, 이번 작업은 흙을 물질적 재료 이상의 개념적 매체로 파악한다”며 “작가의 인식론적 태도에 변화가 보인다”고 평했다.

임옥상은 군사 독재의 서늘이 퍼렸던 1979년 오윤, 김용태, 김정현, 민정기 등의 작가들과 함께 ‘현실과 발언’ 동인으로 활동했다. 이후 대표적 민중미술가로 꼽히며 문명 비판적, 정치 고발적, 사회 참여적 작품을 제작했다. 정통 유희를 비롯해 회화, 조각, 설치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예술의 공공성을 확립한 종합예술가로 평가받는다.

절망과 열망 사이

송창 개인전 <꽃그늘> 학교재갤러리, 8. 16~9. 24

나란히 놓인 2개의 캔버스를 길게 가로지르며 이어주는 건 커다란 소나무다. 소나무 껍질을 사용해 조형한 이 작품은 ‘분단을 그리는 작가’ 송창의 <굴절된 시간>(1996)이다. 작품 중앙 하단부엔 생선을 토막 낼 때 사용할 법한 사각형의 식도가 꽃혀 있다. 세차게 뻗은 소나무 줄기를 칼로 가차없이 두 동강 낸 듯한 모습이다.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제정치의 역학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가 떠오른다.

학교재갤러리는 민중미술계열 작가 송창의 개인전 <꽃그늘>을 개최한다. 학교재갤러리 전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작가의 지난 30여 년 작업을 총망라했다. 본관엔 2010년 이후 신작을 위주로, 꽃을 사용한 작품이 자리 잡았고 신관에는 분단을 다룬 2010년 이전의 작품과 함께 <매립지> 시리즈 등 초기 작품도 전시됐다.

송창은 1982년 박홍순, 이명복, 이종구, 전준엽, 천광호, 황재형 등과 민중미술 단체 ‘임술년’을 창립한 멤버다. 창립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작가는 특히 분단 국가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풍경에 집중했다. 어릴 적 날마다 지나다녔던 울창한 소나무숲이 엄혹했던 시절 동네사람들이 불러나가 고초를 겪고 살해당했던 현장임을 나중에 알게 되어 그에게 트라우마로 남았듯, 분단은 전쟁에 긴 세월 동안 상처받고 망가진 국민 개개인의 내면적 풍경으로 남아 있음을 짚어낸다.

도시화의 그늘을 담은 그의 초기작도 인상적이다. 1978년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된 난지도는 불과 15년 만에 100여m의 쓰레기산이 돼버렸다. 난초(蘭草)와 지초(芝草)가 흐드러진 아름다운 섬이라는 난지도(蘭芝島)는 ‘어지러운 난(亂)을 쓰는 난지도’라는 오명을 입었다. 송창의 <난지도-매립지>(1984)는 이러한 난지도의 풍경을 용광로처럼 들끓는 붉은 쓰레기더미와 함께 그곳에서 살아가는 인간 군상으로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했다.

깔끔하고 세련된 도시를 받치고 있는 붉은 쓰레기산과 죽음을 통해서만 전쟁에서 구조될 수 있었던 이들을 그리며 전쟁을 비판하는 송창의 작품은 일견 침울하고 날카로워 보인다. 그러나 그의 작품에서 묵직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건 비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회’에 대한 열망을 잃지 않는 작가의 열정이 읽히기 때문인지 모른다.

글 이한빛. 헤럴드경제 기자 사진 제공 가나아트갤러리, 학교재갤러리

책 <어려운 여자들>과 <폭스파이어>

이유 있는 분노

여성 혐오,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 같다. 적어도 문단 내부에서는 그렇다. 문단 내 성폭력 이슈가 지난해 하반기 거세게 몰아친 데 이어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민음사)의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른다. 문학평론가가 아닌 여성학자의 해설을 덧붙인 <82년생 김지영>은 시종일관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사는 일의 어려움을 실증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전한다. 그런 책이 과장을 보태자면 '날개 돋친 듯' 팔린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억눌려왔던 여성들의 분노의 크기를 목도하는 것 같다. 우리 주변의 절반이 나머지 절반에 이토록 화가 나 있었나.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남성들이 스스로를, 반대편의 여성들을, 다시 한 번 살필 때는 아닌가.

미국의 페미니스트 작가 록산 게이의 소설집 <어려운 여자들>과 노벨문학상 후보로도 거론되는 미국의 원로 소설가 조이스 캐롤 오츠의 장편 <폭스파이어>는 그런 점에서 꼭 추천하고 싶은 작품들이다. 지금 우리의 관심사에 더할 나위 없이 부합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주제와 상관없이 소설 자체로도 어디 내놔도 손색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외국소설이 상수처럼 안고 있는 '번역 리스크'에서도 두 작품은 자유롭다. <어려운 여자들>의 역자는 이전에 재미있게 읽은 책의 번역자여서 신뢰가 가고, <폭스파이어>의 역자는 번역자이기 이전에 소설가다. 서걱거리거나 어색한 문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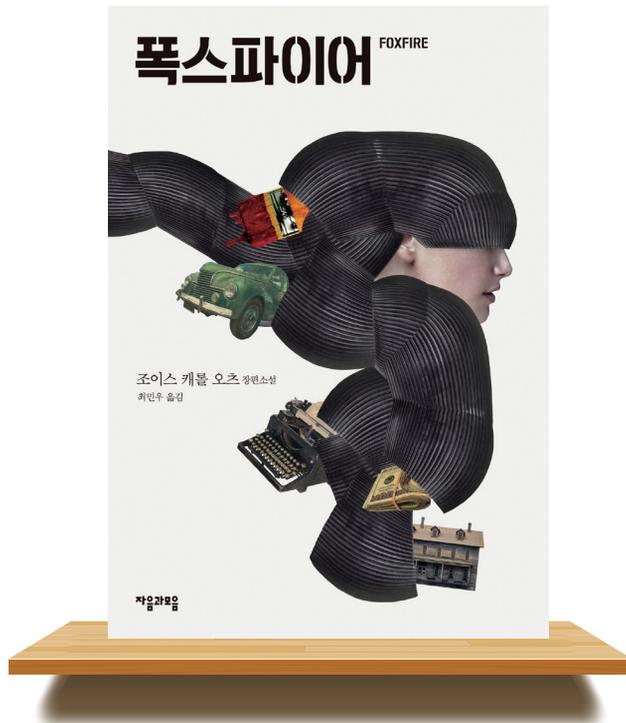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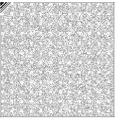
나란히 페미니즘 소설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두 소설의 빛깔은 사뭇 다르다. <어려운 여자들>이 억눌린 여성들의 거울상을 경유해 결국 그에 비친 남성들의 문제, 그러니 결국 인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면, <폭스파이어>는 소녀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성장소설 이면서 여성은 물론 인간 전체를 시장으로 내모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읽힌다. <어려운 여자들>이 에로틱하다면 <폭스파이어>는 과격하고 폭력적이다. <어려운 여자들>은 요즘 얘기, <폭스파이어>는 1990년대 시점에서 미국 사회에 매카시즘 광풍이 몰아치던 1950년대를 회고하는 형식이지만, 인간 삶의 근본적인 구성원리랄까, 삶의 방식이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변하지 않는 거라는 점에서 두 소설 모두 지금 우리의 얘기, 너무 범위를 넓게 잡았다면, 21세기 미국 사회의 속살에 대한 도발적이고 충격적인 보고서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자들의 이야기

<어려운 여자들> 록산 게이 지음, 김선형 옮김, 사이행성

록산 게이는 유명한 에세이집 <나쁜 페미니스트>(사이행성)에서 스스로를 나쁜 페미니스트로 규정했던 사람이다. 나쁜 페미니스트는 페미니즘 행동 강령에 투철한 전투적 근본주의자와 달리 본성과 욕망의 부름에 솔직한 페미니스트를 뜻한다. 그런 좀 더 인간적인 관





점이 소설집 전편에 깔려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어려운 여자들>에 실린 단편들은 일방적으로 남성을 단죄하거나 과격하게 몰아붙이거나 하지 않는다. 물론 언제나 또 어디서나 남자가 말썽이다. 하지만 모든 남성이 모든 악의 근원인 것은 아니다. 오늘의 악당은 소년 시절 가정 폭력의 희생자였을 수도 있고, 한때 빛나는 청년이었으나 세월과 생활의 무게에 짓눌려 지금의 알코올중독자로 전락했을 수도 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언제나 오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어떤 단편을 펼쳐도 실망하지 않을 듯한데, 8쪽짜리 짧은 단편 <카인의 표식>은 쌍둥이 형제와 번갈아 사랑을 나누는 기묘한 여성, 9쪽에 걸친 <아기의 팔>은 여성 파이트 클럽에 다니며 골병을 자초하고, 동성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애인과의 절정의 순간을 들려주는 거친 삶을 사는 여성의 이야기이다.

분노의 연대는 가능할까?

<폭스파이어> 조이스 캐롤 오츠 지음, 최민우 옮김, 자음과모음

<폭스파이어>는 미국 뉴욕주의 해먼드라는 가상 도시를 배경으로 한 10대 소녀 갠단의 이야기이다. 처음 5명으로 출발한 소녀 갠단 폭스파이어는 비슷한 연령대의 소년 갠단, 성인 남성 갠단에 끌리지 않을 정도로 악행의 정도를 더해가며 세를 불린다. 일반적인 조직폭력배와 다른 점은 이들의 결성 목적이 단순한 악행이나 사의 추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은 '피로 맺어진 진정한 자매들'이다. 각자 상처를 내 서로의 피를 섞는 피비린내 나는 입회 절차를 치르며 남성 전체에 대한 전쟁을 선언한다. 육체적으로 매혹적인, 그러나 변두리 낙제생 신분으로 집이나 학교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소녀들은 나쁜 남자들의 공격에 얼마나 무방비로 노출된 존재들인가.

소녀들의 극단적인 남성 증오의 원인이 무엇인지 소설은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 하지만 그 답은 자명하다. 소녀들은 한 조직원이 당한 성범죄를 공동의 치욕으로 받아들인다. 치밀하게 힘을 합쳐 처절하게 응징한다. 공동 주택을 마련해 일종의 자치 생활을 하는 데까지 활동 영역을 넓힌다. 폭스파이어의 리더 '텍스'를 통해 전달된, 갠단의 이론가 격인 전직 가톨릭 신부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다. "개개인은 결코 불의를 개선할 수 없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지구는 침묵 속에서 고통받은 사람들의 곱게 갈린 뼈로 이루어져 있다." 소설은 이렇게 페미니즘을 넘어 세상 전체의 고통에도 한 발 걸치고 있다.

글 신준봉, 중앙일보 기자 사진 제공 사이행성, 자음과모음

별자리 운세도 신통치 않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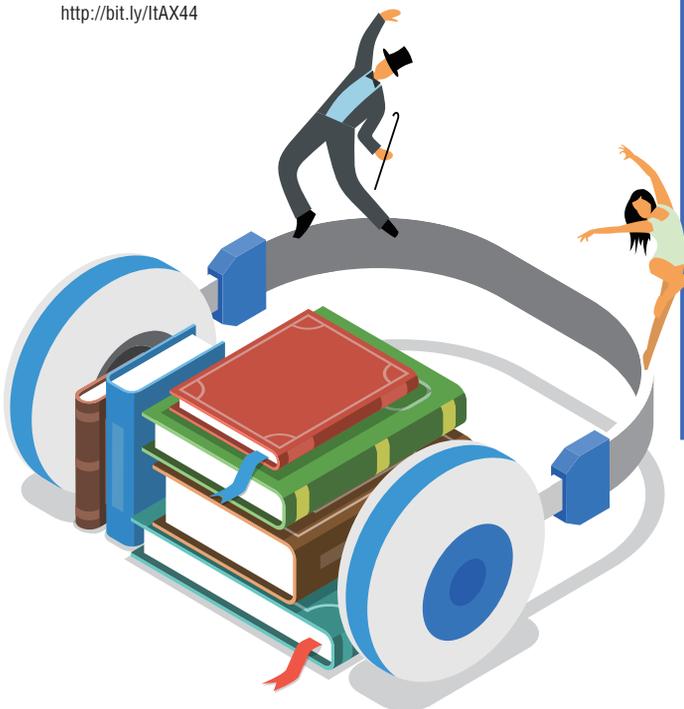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똑똑똑... 여기가 ‘예술적 상담소’ 맞나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예술적 상담소’ 온라인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해 고민 상담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고민에 대한 예술적 대책을 찾아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sfac.or.kr) - 열린광장 혹은 페이스북 탭에서 예술적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질문은 [문화+서울]에 게재되며,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http://bit.ly/ItAX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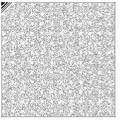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 취업 준비생입니다. 관련 전공자도 아닌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26살 여자 취업 준비생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과 춤을 좋아했고 중학교 때부터 고 3 전까지 댄스팀으로 활동했어요. 고 3이 되어서야 춤으로 대학을 가야겠다 싶어 학원을 다니며 입시 준비를 했지만 집안의 반대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일반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죠. 그래도 춤은 놓지 않겠다 생각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대학 진학 후 회의감 때문에 휴학까지 했지만 여러 이유들로 제가 다니고 있는 일반 대학에서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겼고 복학 후 전과를 해 가정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복학 이후로는 춤을 추지 않았고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졸업을 하니 진로, 직업에 대해 회의감이 들고 제 안에 숨겨놓았던 춤, 예술에 대한 마음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공과 관련 없는 카페 일을 하며 예술적인 부분을 녹여내자고 스스로와 타협했고 수입이 생기면 춤 수업을 들으며 직업은 아니더라도 춤을 다시 시작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수업에 있어서 안정을 찾기 전에 남자 사장님들의 정신병력과 부적절한 언행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일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내면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돈을 벌면서 예술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니 대부분 경력이 있어야 하거나 문화예술 관련 전공자여야 하더라고요.

지금의 제 상황에서 문화예술 관련 일을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같은 것들을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제가 지원해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혹은 구체적으로 다른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서울에서 하는 예술 관련 축제의 자원봉사자에 지원해볼까 하는데 아무래도 보수가 없는 일이다 보니 지금은 경험 삼아 한다지만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시작에 감히 제가 조언을 드리게 되네요. 조언이라는 무거운 단어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아주 조금 먼저 활동한 언니(?)의 짤막한 수다라고 생각해주면 고맙겠어요. 애정을 담아, 얘기를 시작해볼까요?

그게 시작이에요

“음, 예술이잖아? 일단 해보지 뭐.” 저는 이 단순한 생각으로 첫 아력서를 써내려갔어요. 현재 몸담고 있는 거리예술축제 홍보 분야로의 시작이었지요. 중·고등학교에 이어 대학에서도 순수예술을 전공한 저에게는 미지의 세계였지만 단지 ‘문화예술’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전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쩌면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좋아서 시작해 10년을 넘게 이어온 전공이, 전공 이상의 존재감으로 느껴질 때 조금씩 멀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약간의 미련과 과한 애정으로 온전히 벗어나고 싶지는 않았기에, 딱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문화예술 분야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축제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전공이었던 ‘춤’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서두가 꽤 길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다를 시작해볼까요? 어떤 분야든 내 마음이 원하는 출발선을 선택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질문자님은 문화예술이라는 종목을 선택하셨어요. 그럼 출발선에서 살짝 뒤를 돌아볼게요. 그리고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작은 것에서 시작된 애정과 관심이겠지요? 이 길을 선택하게 만든 그 애정을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어려운 결정 속에 선택한 분야에서는 애정으로 버티 나가게 되더라고요. 업이든, 취미로든요.

다음으로 내가 잘하는 것, 남들과의 차별점이 무엇인지도 고민해 보세요. 관련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좋습니다. 가정복지학을 전공해 문화예술을 업으로 하려는 것 자체가 색다른 이점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 스스로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면의 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나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니깐요.

어떻게 나아가갈까요?

한걸음 더 나아가볼게요. 문화예술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춤추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예술가가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그와 관련된



공연이나 행사를 만들어내는 기획자가 되고 싶은가요? 혹은 문화예술 행정가나 교육자呢? 구체적이지 않아도 좋으니 먼저 떠오르는 것들로 가지를 내려볼까요? 그렇게 나온 여러 방향의 길에 자신의 역량과 지금의 관심, 현실적인 문제를 더하며 우선순위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현실적인(금전적인) 문제를 얘기해볼게요.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천천히 가도 괜찮다면 파트타임으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연장 같은 문화예술 기관에 살짝 몸을 두어 끊임없이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지요. 비슷하게 기관의 인턴, 행정 스태프 등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깊진 않더라도 결심으로 배우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답니다. 혹은 일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현재의 전공을 살린 직업으로 수입을 얻고 공공기관의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배움터에 지원하셔도 좋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고 했던가요? 서울문화재단이나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문화예술기관의 뉴스레터를 받아보면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홍보마케터 캠프, 축제워크숍 등에 참가했었고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의 거리예술비평 아카데미에 지원하며 축제 속 홍보인의 길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예술단체, 관련 스타트업, 커뮤니티 등을 통해 무겁지 않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으니 취미로든 또 다른 업으로든 문화예술과의 접점을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이상 문화예술 분야 초년생의 수다가 끝났습니다. 제 방식대로 길을 알려드렸지만 이 무엇도 정답이 아님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능을 막 끝낸 예비대학생이 들려주는 따끈한 기출문제와 후끈한 시험장의 온도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디서든 일하면서 겪는 부당한 대우들,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것 알죠?

답변 이나래_서울거리예술축제2017 추진단/홍보 PD

시대를 풍미한 여배우, 김지미와 엄앵란

클래스는 영원하다



<사진 1> 1950년대 말 배우 김지미의 모습.

100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잘 늙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적당한 품위를 유지하며 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게 모든 사람이 꿈꾸는 잘 늙은 모습이겠죠. 이런 생각을 하면 잘 늙어가고 있는 두 명의 배우가 떠오릅니다. 1950년대에 데뷔해 한 시대를 풍미한 김지미(77) 씨와 엄앵란(81) 씨입니다. 두 배우는 데뷔 초기부터 왕성한 활동을 하며 스타로 급부상했고, 다양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줬습니다.

1959년 연말에 한 신문에서 정리한 '스타 인기 기상도'를 보면 "오구년에 만들어진 영화는 100여 편에 이르는데 이 중 히로인을 맡은 주역급 스타들은 남녀 합해서 10명 미만 정도다. 여우진(女優陣) 신인으로는 역시 김지미와 엄앵란이 인기스타로 화려하게 움직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란처럼 아름다운 배우, 김지미

<사진 1>은 17세에 고 김기영 감독에게 길거리에서 캐스팅됐던 김지미 씨의 데뷔 초, 1950년대 말의 모습입니다. 1957년 영화 <황혼 열차>로 데뷔한 김지미 씨는 다양한 작품에서 매력적인 이미지를 선보이며 미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모란이 그려진 화투패를 '김지미 패'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김지미' 대신 '김태희 같다', '전지현 같다'는 표현을 쓰죠. 세월이 지났지만 미의 기준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대의 내로라하는 여배우들은 모두 장희빈 역할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장희빈 역할은 1961년 영화 <장희빈>에서 김지미 씨가 처음 연기했습니다. 이후 여러 여배우를 거쳐 김태희 씨가 2013년 SBS에서 방송된 사극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서 '9대 장희빈'을 맡았습니다.

김지미 씨는 요즘 짧게 자른 은발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도 여배우 특유의 멋을 잃지 않았습니. 김지미 씨는 올해 데뷔 6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최근 <매혹의 배우, 김지미> 특별전을 열어 <비 오는 날의 오후 3시>(1959), <춘향전>



(1961), <춘희>(1967), <토지>(1974), <길소뜸>(1985), <티켓>
(1986) 등 김지미 씨의 대표작 20편을 상영했습니다.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한 김지미 씨는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 “어떤 작품이든 찍고 나면 부족한 점이 많아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그랬다는 후회가 항상 남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또 “배우는 영화의 가장 큰 소재다. 그 소재를 값싸게 굴리지 말고 소중히 해야 좋은 영화가 생산되고, 상품이 값어치 있어지는 것”이라며 “배우는 아무 데서나 명예나 이름을 팔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후배들에게 조언했습니다. 김지미 씨는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영화제작자로도 활동했습니다.

청춘 배우에서 푸근한 어머니로, 엄앵란

<사진 2>는 1959년 한 패션쇼에서 개량한복 형태의 ‘아리랑 드레스’를 선보이고 있는 엄앵란 씨의 모습입니다. 엄앵란 씨는 1956년 반도 호텔에서 열린 한국 최초의 패션쇼 무대에 서며 모델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에는 전문 패션모델이 드물어 여배우들이 패션쇼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1956년 영화 <단종애사>로 스크린에 데뷔한 엄앵란 씨는 1964년 영화 <맨발의 청춘>에서 호흡을 맞춘 당대 최고의 배우 신성일(강신성일) 씨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두 사람이 없으면 한국영화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왔을 만큼 수많은 작품에 주연으로 나섰습니다. 서울 워커히에서 열린 두 사람의 결혼식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3,500명이 넘는 팬들이 몰려 일대가 마비됐고, 기마경찰까지 동원됐다고 합니다.

엄앵란 씨는 여든이 넘는 나이에도 왕성하게 방송 활동을 펼치며 푸근한 ‘어머니’ 이미지로 대중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유방암 수술을 한 후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풀어내는 강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신성일 씨도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가운데 부부가 서로를 격려하며 병을 이겨내고 곳곳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사진 김천길 전 AP통신 기자. 1950년부터 38년 동안 서울지국 사진기자로 일하며 격동기 한국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글 김구철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대중문화팀장으로 영화를 담당하고 있다.



<사진 2> 1959년 한 패션쇼에서 ‘아리랑 드레스’를 선보이고 있는 배우 엄앵란.

천수림 작가의 정동 산책

오롯이 혼자가 된다는 것

일상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어느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특별하게 느껴진다. 천수림 작가에게는 정동길을 따라가는 미술관 산책의 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다. 덕수궁 대한문에서 신문로까지 이어지는 그만의 묵상과 사색의 길을 소개한다.

“사람은 어디서든 고독할 수 있지만, 도시에서 수백만의 인간들에게 둘러싸여 살면서 느끼는 고독에는 특별한 향취가 있다. (중략)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고독이란 사람들이 그 속에 머무는 장소임을. 도시에, 맨해튼처럼 엄격하고 논리적으로 구축된 공간에 거주할 때 어떤 사람이든 처음에는 길을 잃게 된다. (중략) 그 시절 내가 쌓아올렸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내 경험과 타인들의 경험으로 짜 맞춰진 고독의 지도다.”

_ 올리비아 랭 <외로운 도시>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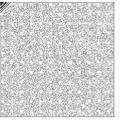
<옵저버>(Observer)의 부편집장을 지냈고, 예술비평으로 주목받는 에세이스트인 올리비아 랭은 런던을 떠나 사랑하는 이와 함께 뉴욕 생활을 하기로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녀에게 뉴욕은 너무나 '외로운 도시'였다. 이 외롭고 고독한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계기'는 처절한 고독 속에 놓여 있던 예술가들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이었다. 에드워드 호퍼에서 워홀까지... 그녀가 찾은 예술가들은 모두 처연하게 고독했던 이들이다.

올리비아 랭에게 뉴욕이 외로운 도시였듯이, 내게도 서울은 그다지 '친절한' 도시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칼립투스'의 향처럼 위로받을 수 있는 '고독의 지도'를 꼽는다면 경향신문사에서 시작되는 '정동길'을 들 수 있다. 덕수궁 대한문에서 신문로까지 이어지는 1km의 길을 지나 광화문의 일민미술관, 신문로의 골목길에 숨어 있는 성곡미술관까지 산책하는 일은 몇 십 년 이어온 습관이었다.

고독을 견디는 나만의 리추얼

모든 사람에게는 일종의 리추얼(<리추얼: 세상의 방해로부터 나를 지키는 혼자만의 의식>, 메이슨 커리 지음)이 있다. 그 리추얼이 없다면 거대한 도시 속에서 '고독'을 견디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좀 더 과장하자면 정동길을 따라가는 미술관 산책 습관이 없었다면 난 아마도 이 '서울'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한남동에 있는 리움, 소격동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청담동에 위치한 송은아트스페이스도 모두 좋은 전시공간이지만, 유난히 '정동길, 광화문 루트'를 편애한 이유는 오래된 가로수 때문일 것이다. 갈수록 거대해지는 초대형 도시인 서울에서 짧다면 짧은 이 길은 묵상과 사색의 길이라 할 수 있다.





정동길은 덕수궁 대한문에서 신문로까지 이어지는 길인데 100여 년 전 조선말기와 일제강점기 한양의 모습을 더듬어볼 수 있는 곳이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계비, 신덕왕후의 정릉(眞陵)이 있어 '정동'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이곳은 덕수궁 등 조선의 역사뿐만 아니라 조선말 서구열강의 공사관이 밀집되어 있던 곳이다. 이화박물관 등 서구식 교육기관, 1930년대 지어진 신아일보 별관 건물과 같은 언론기관, 최초의 개신교 건물인 정동교회 등 종교 건물, 정동극장 뒤 황실도서관(King's Library)으로 사용되었던 '중명전'(重明殿) 등이 집중된 근대 문물의 중심지였다. 정동 덕수궁 뒤편 언덕 위에 있는 구한말 러시아 공사관은 현재는 출입문인 하얀 탑 부문만 남아 있다. 이곳은 구한말 명성황후 시해사건 이후 위협을 느낀 고종이 잠시 피신을 했던 아관파천의 현장이다. 이 러시아 공사관 언덕길을 넘어가면 광화문 쪽 서울역사박물관과 성곡미술관으로 이어지는 한가로운 길 나온다. 이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기에 더욱 조용하다.

서울이 특별해지는 순간

정동길 중간쯤에서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서울시립미술관은 미술관 자체로도 좋지만, 미술관 앞 정원이 그만이다. 현 서울시립미술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재판소(법원)인 평리원(한성재판소)이 있던 자리에 있다. 광복 이후엔 대법원으로 사용되었다가 미술관 개축 과정에서 르네상스식 건물 전면부를 살렸다. 전면부 현관 아치는 2006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미술관 초입엔 최정화 작가의 거대한 장미꽃 설치작품 <장미빛 인생>(La vie en rose)이 놓여 있다. 언덕길을 오르다 보면 청동 인물 조각인 배형경 작가의 <생각하다>(Thinking), 최우람 작가의 <숲의 수호자>(Silvanus)도 만날 수 있다. 서울시립미술관 앞마당은 1년 내내 좋지만, 굳이 가장 좋은 때를 꼽아본다면 봄이 제일 무렵이다. 물론 만개할 때는 더 없이 수려하겠지만, '봄이 가는구나, 곧 봄이 스러지겠구나'라는 애잔한 시간의 흐름을 옷이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동에서 일민미술관, 성곡미술관을 둘러 서울역사박물관 앞 정류장에 앉으면 어느새 '서울'은 다정한 모습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다니던 직장이 정동길과 가까웠으니 점심 먹고 테이크아웃한 커피를 들고 '산책'하는 호사도 특별하다기보다는 '일상'에 가까웠을 수 있지만, 여전히 내겐 특별한 루트다. 영화 <심야식당 2>를 보면 자신이 먹은 저녁식사 메뉴를 꼼꼼히 메모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매일매일 먹은 저녁을 이렇게 기록해두면 왠지 '특별해진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음식이, 어떤 이들에게는 산책이 일종의 리추얼이 되기도 한다. 일상의 소소한 의식들, 완벽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현재 살고 있는 이 '공간'이 특별해지기 마련이다.

글 천수림 작가, 아트 저널리스트. 월간 <사진예술> 편집장을 지냈고, 중국문화와 관련된 책 <북경살롱>을 펴냈다.

그림 김승연





- 1 2017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현장.
- 2 폭우로 공연이 중단된 1999년 인천 트라이포트 록 페스티벌.
- 3 2012년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한국 록 페스티벌 흥망사

언제나 그곳에 가고 싶다

태초에 인천 트라이포트 록 페스티벌이 있었다. 드림 시어터, 딥 퍼플,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 프로디지 등 이름만으로도 쟁쟁한 외국 밴드들과 시나위, 크래쉬, 크라이닝, 자우림 등 국내 대표 밴드들이 출연진에 이름을 올렸다. 1999년 7월, 록 팬들은 불타는 가슴을 안고 인천 송도로 집결했다.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였을까? 하늘은 비를 흠뻑렸다. 적당했다면 시원하고 좋았을 텐데, 문제는 그 양이 너무 많았다는 것. 첫날 크래쉬, 드림 시어터, 딥 퍼플 등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간신히 공연을 마쳤지만, 다음날 공연은 모두 취소되고 말았다. 진흙 펄로 변한 바닥은 신발을 삼켜버렸고, 텐트를 치고 야영하던 이들은 한밤중에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해야 했다. 이듬해인 2000년 공연기획사 예스컴은 다시 트라이포트 록 페스티벌을 추진했지만, 티켓 판매 저조로 한 달 만에

취소하고야 말았다.

이렇게 국내 첫 록 페스티벌이 불운의 뒤편길로 사라지나 싶었는데, 다행히 명맥을 잇는 곳이 나타났다. 부산시가 주최하는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이 2000년 처음 열렸다. 무료로 볼 수 있는 부산 록 페스티벌은 올해로 18회를 맞은 장수 축제가 되었다. 서태지가 국내의 밴드들을 초청해 연 이티피(ETP)페스트도 2000년 광복절에 첫선을 보였다. 이티피페스트는 2004·2008·2009년 세 차례 더 열린 뒤 사라졌다. 일회성 록 페스티벌도 간간이 열렸다. 2001년 서울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메탈페스트에는 슬레이어, 머신헤드, 세풀투라 등 세계적인 헤비메탈 밴드들이 출연했으나, 드넓은 운동장에서 500명 남짓한 관객들만이 헤드뱅잉을 하던 광경은 생각만으로도 눈물겹다. 2002년 한 일 월드컵의 열기가 채 가시기 전인 그해 7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는 레드 핫 칠리 페퍼스 등 외국 밴드와 월드컵 거리응원에서 맹활약한 윤도현밴드, 크라이닝, 레이저본 등이 총출동한 '원 핫 데이' 페스티벌이 열렸다.

록 페스티벌 문화가 자리 잡다

2006년 국내 록 페스티벌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다. 단 한 차례 열리고 사라졌던 비운의 트라이포트 록 페스티벌이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로 부활한 것이다. 예스컴에서 이름을 바꾼 아이에스

컴과 1999년 당시 예스컴에 있다가 독립한 김형일 대표의 기획사 옐로우나인이 공동 주최사로 나섰다.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은 매년 꾸준히 열리며 국내에 록 페스티벌 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

하지만 2009년 2개의 페스티벌로 쪼개지는 사태를 맞았다. 갈등을 빚어오던 두 공동 주최사가 갈라서면서 아이예스컴 주최의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과 옐로우나인 주최의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이 같은 날 동시에 열리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결과는 외국 밴드 섭외를 주로 맡아온 옐로우나인의 완승. 출연진이 훨씬 더 화려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은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한두 주 뒤로 날짜를 옮겼다.

2010년에는 이전까지 투자자로만 나왔던 CJ E&M이 아예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주최사로 나섰다. 2012년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은 세계적인 밴드 라디오헤드를 출연시켜 역대 최다 관객인 연인원 11만 명을 모았다. 지금껏 국내에서 록 페스티벌이 가장 흥했던 시기로 꼽힌다.



©한겨레

2



©씨네21

3

록 페스티벌이 좀 된다 싶었는지 우후죽순 늘어나던 때도 있었다. 2013년 여름에는 수도권에서만 무려 5개의 록 페스티벌이 열렸다. 우선 전통의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과 지산에서 안산으로 장소를 옮긴 CJ E&M의 안산 밸리 록 페스티벌이 있었다. 여기에 2012년부터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기 시작한 도심형 페스티벌 슈퍼소닉, 기존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에 장소를 제공하던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가 독자적으로 개최하는 지산 월드 록 페스티벌, 간간이 세계적인 팝스타의 공연을 열어온 현대카드가 록 페스티벌 형태로 판을 키운 시티브레이크까지 가세했다. 그해 여름 한정된 록 페스티벌 시장을 나눠 가진 5개 주최사는 그 누구도 웃지 못했다. 이후 슈퍼소닉, 지산 월드 록 페스티벌, 시티브레이크는 하나둘 자취를 감췄다.

록 페스티벌의 원초적 매력

2016년, 이전까지 안산에서 열리던 밸리 록 페스티벌이 다시 지산으로 돌아왔다.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페스티벌 전용 부지를 조성했지만, 감사원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뒤늦게 적발됐기 때문이다. 질치부심한 CJ E&M은 이름을 지산 밸리 록 뮤직앤드아츠 페스티벌로 바꾸고 록뿐만 아니라 팝, R&B, 소울, 힙합,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거리예술까지 아우르는 축제로 확장했다.

올해 7월 28~30일 열린 지산 밸리록 뮤직앤드아츠 페스티벌에 가보니 안산 시절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마지막 날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가상 밴드로 기네스북에 오른 고릴라즈의 무대는 요 몇 년 새 본 공연 중 단연 최고였다. 8월 11~13일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도 자신만의 색깔을 지키며 견재함을 과시했다. 푸른 잔디가 깔린 송도 달빛축제공원은 비만 오면 갯벌처럼 변하던 예전의 그런 곳이 아니었다. 그늘막 텐트에 돛자리를 깔고 유유자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과거엔 찾아보기 힘들었던 여유마저 느껴졌다.

이제는 예전만큼 록 페스티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다. 대세가 된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축제에 훨씬 더 많은 이들이 몰린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도 매년 여름이 되면 록 페스티벌을 찾을 것이다. 누가 출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록 페스티벌만의 열기, 자유, 여유, 그리고 소소한 일탈이 좋다. 백발이 성성해져도 나는 그곳에 가고 싶다.

글 서정민 씨네플레이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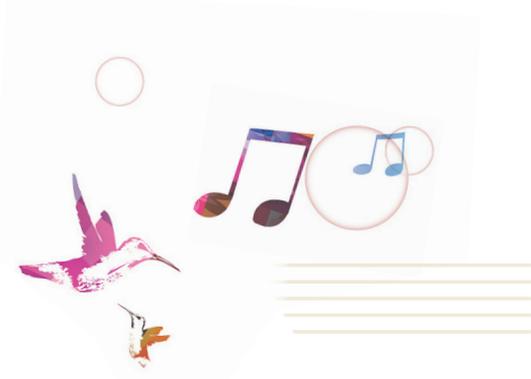
우리 시대 최고의 소프라노 안나 네트렙코

절대적 프리마돈나

전 세계 성악계에서 20세기가 마리아 칼라스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안나 네트렙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안나 네트렙코는 빈 국립 오페라, 베를린 도이치오퍼, 라 스칼라, 메트 오페라 등 전 세계 최고의 오페라 극장에서 가장 원하는 소프라노로 자리매김했다. 그 마력의 목소리를 오는 10월, 예술의전당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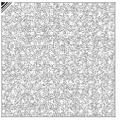
마리아 칼라스의 명성을 잇다

20세기 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악가는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였다. 전 세계 어디서나 TV가 있는 곳이라면 3테너 콘서트나 파바로티 & 프렌즈 공연에서 노래하는 그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고 그의 푸짐한 몸매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고음의 목소리는 에스키모에서부터 아프리카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기억하는 성악의 아이콘이 되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전에는 누가 가장 유명했을까? 바로 전설의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다. 전성기를 구가한 기간은 18년 정도지만 호소력 짙은 가창과 잊을 수 없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오페라 팬들을 사로잡은 칼라스의 명성은 음원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성악가는 누구일까? 파바로티나 칼라스처럼 성악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알고 좋아할 정도는 아니지만 오페라 팬들이라면 누구나 열광하는 가수들이 있다. 여자 중에서는 러시아의 소프라노 안나 네트렙코, 남자 중에서는 독일의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을 꼽을 수 있다. 이 두 사람의 인기는 일단 DVD와 블루레이, 그리고 음반이 발매되는 속도와 양으로 가능할 수 있는데, 6개월에 하나씩은 꾸준히 음원이 발매된다. 이 지면에서는 먼저 칼라스만큼이나 인기 있는 안나 네트렙코를 소개한다.

네트렙코는 1995년 키로프 오페라와 샌프란시스코 오페라가 함께 제작한 글린카 오페라 <루슬란과 류드밀라>로 시작해 성악가로서는 드물게 뮤직비디오 <더 우먼 더 보이스>를 2003년에 발매해 화제를 모았다. 2005년은 네트렙코에게 있어 인생을 바꾼 기념비적인 해였다. 빈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코믹 오페라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에 멕시코 테너 롤란도 비야손, 백전노장 바리톤 레오 누치와 함께 출연해 환상의 호흡을 들려줬고 빈에서의 성공은 대망의 잘츠부르크 여름 페스티벌로 이어졌다. 그 유명한 빌리 데커 연출의 <라 트라비아타>에 출연했는데, 영화나 뮤지컬을 연상케 하는 속도감 넘치는 전개 속에서 청중의 눈을 한시도 땄 수 없게 만든 빼어난 연기와 롤란도 비야손과의 불붙은 가창으로 전무후무한 성공을 거두었다. <라 트라비아타>는 잘츠부르크의 터줏대감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세상을 떠난 1989년 이후 처음으로 관객들의 전원 기립박수를 받은 작품이 되었고 이날 격찬을 받은 안나 네트렙코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이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매년 네트렙코가 주연을 맡는 오페라를 상연하고 있다. 네트렙코는 아예 빈에서 살면서 오스트리아 국적도 취득해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이중국적을 소유하고 있다. 금년에는 잘츠부르크 여름 페스티벌의 신작 <아이다>의 주인공을 맡으며 새로운 레퍼토리를 개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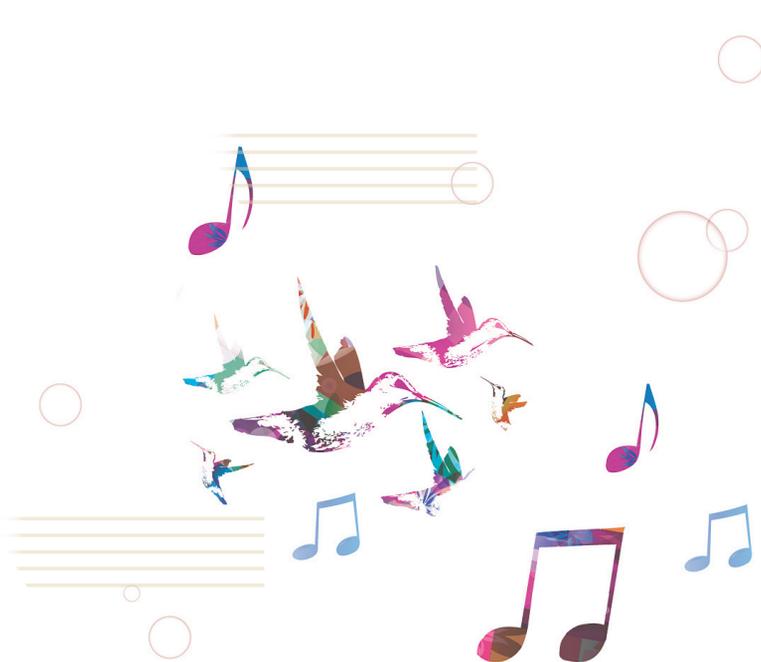
완벽한 극장형 성악가

네트렙코는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뉴욕 메트 오페라에서 카루소도 도밍고도 파바로티도 해내지 못했던 세 시즌 연속 개막 오프닝 공연 주인공이 됐다. 네트렙코는 빈 국립 오페라, 베를린 도이치오퍼, 라 스칼라, 메트 오페라 등 전 세계 최고의 극장에서 가장 원하는 소프라노로서 군림하고 있다. 필자는 네트렙코의 공연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의 백야의 별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메트 오페라 등에서 보았는데 그녀의 최고의 매력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매력을 120% 보여주고 들려준다는 데 있었다. 공연에서 몸을 사리는 법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종횡무진 무대를 오가며 활약하면서 청중을 흥분시킬 줄 알았다. 때문에 네트렙코의 공연을 한 번 본 청중은 다시 공연을 찾고 그녀는 늘 매진사례를 기록하는 블록버스터형 성악가가 된 것이다. '절대적 프리마돈나'라고 불리는 네트렙코는 100% 극장형 가수다. CD로 노래를 듣는 것

보다는 DVD를 보거나 실제 무대에서 열연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빠져들게 된다. 그녀는 자신을 보려고 모여든 청중들이 만족하며 극장 문을 나서게 만들어준다.

지난해에 이어 오는 10월 9일, 안나 네트렙코는 자신의 남편인 아제르바이젠 출신의 테너 유시프 에이바조프와 함께 다시 한 번 서울을 방문, 미하일 타타르니코프가 지휘하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공연한다. 이 공연에서 두 사람은 <아이다>를 비롯한 다채로운 오페라 속의 아리아와 듀엣 곡을 부를 예정이다. 처음에는 가벼운 벨칸토와 모차르트의 작품에서 시작해 베르디와 푸치니, 바그너 등 점점 더 무거운 레퍼토리로 향하고 있는 네트렙코가 앞으로 들려줄 미지의 레퍼토리는 무엇인지, 벌써부터 내년 시즌이 기대된다.

글 장일범_음악평론가, 경희대 포스트모던 음악학과 겸임교수. KBS 클래식 FM <장일범의 가정음악>과 MBC <TV예술무대>를 진행하고 있다.



고 차운기 건축가의 '12주(柱)'

수공예적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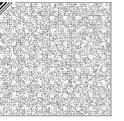
종로구 신교동은 서촌에서도 가장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다. 조용한 골목에는 비슷비슷한 4~5층 박스형 빌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재개발 때문에 골목 형태의 길만 남겨놓고 나머지 필지들은 최대한 많은 수의 빌라를 지었다. 뻥뻥한 주택가 속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모양의 건물이 있다. 스페인 건축가인 안토니오 가우디가 떠오를 정도로 하나의 조각품을 연상케 하는 이 건물은 차운기 건축가(1955~2001)의 유작으로 제자인 원희연 건축가와 함께 설계한 '12주(柱)'라는 건물이다.



건축물에 배인 장인정신

'12주(柱)'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바로 1층에 놓여 있는 돌들 때문이다. 원래 한옥이 있던 자리에 한옥을 허물고 건물을 지으면서 한옥에서 나온 주춧돌 12개를 가져다놓아 '12주(柱) 건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건물은 독특한 이름과 함께 개성 강한 형태로 평범한 빌라들 사이에서 서 있다. 법적 테두리인 대지 경계선, 도로와 일조에 의한 사선 등 도시가 요구하는 관계는 그대로 건물의 큰 틀에 적용되었다. 부채꼴 모양의 대지에 건축 행위를 하기에는 주변 여건이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입면을 곡선과 함께 중첩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자연스럽게 소화했다. 규격화되지 않은 창호들과 철근, 철판 등 차운기 건축가가 즐겨 쓰던 낡고 오래된 재료들, 조형과 입면 구성 등에서 과감함이 표출된다.

12주(柱)는 상업성을 고려하여 지은 일반 집들과는 차별화된다. 쓰다 남은 각종 자재를 활용하고, 설계자가 손수 시공까지 참여하여 구석구석 '장인정신'으로 건물을 세웠다. 콘크리트, 목재, 철골 등 일반적인 건축 재료에서부터 양철판, 흙, 돌, 전등에 이르기까지 건축가가 사용한 재료 또한 매우 다양하다. 건축에 등장하는 갖가지 재료들을 보면서, 거창하게 '재료의 본성'이라든가, 혹은 일반인들은 이해 못하는 건축가들의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건축가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맹이 하나에서부터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재료라도 장인정신으로 실험하는 사람이었다.



- 1 평범한 빌라들 사이에서 '12주(柱)' 건물은 강한 개성을 드러낸다.
- 2 창호 부분의 처마는 마치 박쥐의 날개와 같은 모습이다.
- 3 녹슨 철판을 갑옷처럼 겹쳐서 굴곡을 표현했다.
- 4 12주(柱)에는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었다.



또한 차운기 건축가의 대부분의 건물에는 도면이 없다. 평면도 한 장으로 건축을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그에게 도면은 '도면 그대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로 건축을 한다'는 정도의 의미였다. 모든 결정은 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며 도면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스케치를 해 건설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했다.

있는 그대로의 재료들

건물에 가까이 다가가 입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출 콘크리트와 함께 표면에 박힌 아크릴봉이 보인다. 노출 콘크리트는 목재거푸집을 사용하여 일부러 거친 나무의 느낌 그대로를 표현했다. 이 거푸집도 쓰다 남은 것을 구해서 작업한 것이다. 노출 콘크리트 표면에 박힌 아크릴봉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일일이 수작업으로 심어 낮



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밤에는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조명 역할을 해주는 오브제적인 요소로 사용했다. 또한 12주(柱)는 건물의 모든 창호의 모양에 규칙이 없으며, 창호 처마는 마치 박쥐의 날개와도 같은 형상으로 제작됐다. 창호 처마에 사용한 철근과 녹슨 철판들은 필요한 곳에 모양이 어울리는 부분을 잘라다 붙인 것이지 일부러 모양을 낸 것이 아니다. 처마에 활용된 녹슨 철판은 굴곡으로 표현된 건물과 주차장 주출입구 상단 부분에도 활용되었다.

내부 또한 창호를 비롯하여 바다, 문, 칸막이, 천장 등이 대부분 원목을 손으로 직접 깎고, 다듬어서 제작된 것들이다. 마룻바닥을 제외하고는 실내의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 진행됐다. 또한 천장 부분은 한옥에서나 볼 수 있는 서까래를 만들어 한옥의 느낌을 준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건축가 자신이 스스로 어울리는 것을 찾고,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을 해낸 결과이다. 차운기 건축가는 12주(柱) 건물을 작업하는 중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제자인 원희연 건축가가 작업을 완성했다. 열정적인 한 건축가의 상상은 지루하고 답답할 수 있는 신고동 주택가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이제 더 이상 차운기 건축가의 작품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글·사진 이훈길, 천산건축 대표, 건축사이자 도시공학박사이다. 건축뿐만 아니라 건축 사진, 일러스트, 칼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도시를 걷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건축, 소통과 행복을 꿈꾸다>가 있다.



앤서니 밉겔라 감독의 <리플리>와 영화음악

음악, 영화를 이해하는 결정적 단서

르네 클레망의 1960년 작 <태양은 가득하>는 여름과 바캉스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영화 중 한 편이다. 지중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같은 작품을 원작으로 한 앤서니 밉겔라의 1999년 작 <리플리>와 더불어 보면 더욱 재미있다. <태양은 가득하>가 한여름의 작열하는 태양을 닮은 영화라면, <리플리>는 늦여름 밤의 서늘한 기운을 연상케 하는 작품이다.

“마실 것 좀 줘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여기서 제일 좋은 걸로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살인을 저지른 남자는 완전범죄를 확신하며 해변의 한 카페에서 마실 것을 청한다. 운명이 곧 그를 사형대로 이끌게 될 거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를 원작으로 하는 <태양은 가득하>는 총명하지만

찢어지게 가난했던 청년 리플리가 미국인 재벌의 아들 필립을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데려오는 임무를 맡으며 시작된다. 지중해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유유자적 살아가는 필립의 삶에 리플리는 매혹되고, 그를 동경하는 것을 넘어 필립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싶다는 위험한 욕망을 품는다. 리플리를 연기했던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의 불안정한 눈빛이 강렬한 인상으로 각인된 작품이다. <태양은 가득하>는 같은 원작을 바탕으로 하는 앤서니 밉겔라의 1999년 작 <리플리>와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있다. 이 지면에서는 <리플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열망에서 시작된 파국

<리플리>의 주인공, 톰 리플리(맷 데이먼 분)는 뉴욕의 호텔을 전전하며 각종 행사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손님들의 시중을 든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의 재벌 그린리프가 프린스턴 대학의 재킷을 빌려 입고 피아노를 치는 리플리를 아들 디키(주드 로 분)의 친구로 오해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린리프는 리플리에게 거액의 돈을 줄 테니 이탈리아에서 유흥을 즐기는 아들을 뉴욕으로 데려와달라고 부탁하고, 리플리는 디키가 있는 나폴리의 몽지벨로로 떠난다. 이후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은 <태양은 가득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디키가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한 리플리의 동

경은 열망으로, 열망은 욕망으로, 욕망은 살인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진다.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원작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영화 <태양은 가득히>와 <리플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음악이다. 앤서니 밉겔라는 그의 대표작 <잉글리시 페이스트>의 영화음악을 만든 가브리엘 아레와 다시금 호흡을 맞춘 이 작품에서 클래식과 오페라, 재즈 등 다양한 음악을 사용한다. <리플리>의 음악은 영화의 무드를 조성하는 데 머물지 않고 등장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로 기능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설정은 디키가 재즈광이라는 점이다.(원작소설 속 디키의 직업은 화가였다.) 그는 디지 길레스피와 찰리 파커, 쳇 베이커를 사랑하며 밤이면 재즈클럽에서 이탈리아인들과 어울린다. 그런 디키와 가까워지기 위해 리플리는 마치 외국어를 배우듯 재즈를 독학한다. 눈가리개로 눈을 가리고 턴테이블에서 플레이되고 있는 재즈 음반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리플리의 모습은 그로테스크하기까지 하다.

음악이 암시하는 서늘한 진실

디키가 비밥(Bebop)의 창시자인 디지 길레스피와 찰리 파커를 특히 사랑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1930년대 유행했던 상업적인 스윙 재즈에 대해 탄생한 격렬한 즉흥연주와 빠른 템포의 자유분방한 연주 스타일이 바로 비밥이기 때문이다. “내 귀엔 재즈가 끔찍한 소음”이라고 말하는 아버지를 둔 디키는 클래식의 세계에서 살아왔다. 스스로 보수적인 미국 상류층의 세계에 속하길 거부하며 유럽 대륙

에서 늘 새로운 즐길 거리를 찾는 디키의 자유분방한 기질은 비밥이라는 재즈 장르의 특성과 맞아 있다.

한편 나폴리의 재즈클럽 무대에 올라 리플리가 부르는 곡은 쳇 베이커의 <마이 퍼니 발렌타인>이다. 유명한 재즈 스탠다드 넘버인 이 곡은 절제된 연주와 애상적인 무드, 쳇 베이커의 유약하면서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랑받았다.(영화에서는 맷 데이먼이 직접 <마이 퍼니 발렌타인>을 부르는데, 그의 미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억해야 할 장면이다.) 열정적이고 즉흥적인 비밥 재즈에 대해 탄생한 쿨 재즈, 이 계열의 대표적인 뮤지션인 쳇 베이커의 <마이 퍼니 발렌타인>을 리플리가 부른다는 건 디키와 리플리의 좁힐 수 없는 간극을 겨냥한 설정처럼 느껴진다.

아무도 없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 디키를 죽인 뒤, 리플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으로 복귀한다. 하지만 안경을 벗고 디키의 반지 같은 리플리는 예전의 그가 아니다. 리플리는 더 이상 재즈를 듣지 않는다. 찰리 파커를 들으며 흥겨워하지 않고, 쳇 베이커를 따라 노래하지 않는다.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을 관람하고 바흐의 <이탈리아 협주곡>을 연주하며, 그는 “초라한 현실보다 멋진 거짓의 세계”에 머물기로 한다. 그 끝에 어떤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태양은 가득히>의 리플리가 세속의 죄값을 받게 될 예정이라면, <리플리>의 리플리는 영원한 마음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 서늘한 진실을 암시하는 <리플리>의 음악은 뒷없이 아름다우면서도 처연하다.

글 장영열, 씨네21 기자



2017 CALENDAR

9



우이신설 도시철도 달리는 문화철도 개통

'달리는 문화철도'는 문화와 예술이 녹아든 도시철도로서 기존 지하철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아트, 공연들을 즐길 수 있는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또 다른 이름이다. 상업광고로 도배되어 있던 역사와 지하철 내부는 이제 그만! 문화철도에서는 문화예술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다양한 예술작품과 공연도 만날 수 있다.

SFAC 문화예술공간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남산예술센터
- 남산창작센터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치유허브
- 시민창·시청
- 신당창작아카데미
- 연희문화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SFAC 문화철도
- SFAC 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MON

TUE

WED

4

- 전시 <Healing>(~9.4)
- 이마에스트리 제12회 정기연주회 <남자성악가로 살아가기>

5

- 도시소리, 순환을 찾다(~12.31)
- 가족뮤지컬 <오리지널 어린이 캣> (~9.5)
- 2017 신진국악실험무대 <별★난 소리판>(~9.26)
- 연극 <이방인>(~10.1)
- 2017 서울새활용전 '지구를 위한 약속'(~12.10)

6

- 전시 <WEIGH DOWN EMOTION, 감정을 가라앉히다>(~9.25)
- 차이콥스키 발레 스페셜 갈라(~9.9)
- 연극 <미국아버지>(~9.25)
- 서울돈화문국악당 '미래의 명곡'(~9.30)
- 연극 <엘리펀트 송>(~11.26)

11

12

- 미사 마이스키 첼로 리사이틀

13

- 바이에른 슈타츠오페 오케스트라

18

- 야외활력콘서트
- 위댄스 버스(~10월)

19

- 제13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9.24)
- 야외활력콘서트
- 2017 서울메세나지원사업 세종솔로이스츠 <다비드 프레이& 세종솔로이스츠>
- 뮤지컬 <아빠의 4중주>(~9.21)

20

- 예술로 놀이터 <마이 스마트 아티스트> (~11.15)
- 우아한 오후를 여는 L.Concert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슈베르티아데>
- KIAF 2017 ART SEOUL(~9.24)
- <조국의 산하展>(~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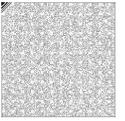
25

26

- 임지영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 2017 윤영선 페스티벌 낭독공연 (~10.1)
- 2017 라움아트센터 정기연주회 with 금난새(12.12)

27





THU

FRI

SAT

SUN

1

- 2017 MEET 전시 <Sounds of the City in Mullae>(~9.14)
- 2017 장애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누에꿈:틀> 결과전시 발표(~9.5)
- [뮤지컬-텔레미어] 2017 제4회 대한민국 신진연출가전(~9.3)
- 유러피안 재즈 페스티벌 2017(~9.3)
- 연극 <낙화>(~9.10)

2

- 우이신설 도시철도 달리는 문화철도 개통
- 윤이상 프롬나드@운동주문학관
- <아름다운 기부콘서트> 마이 오페라 마이 뮤지컬
-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11.5)
- 국립국악원 <토요국악동화>(~11.25)
- <무민 원화전>(~11.26)

3

- 전시 <국경을 넘어 경계를 넘어>(~9.3)
- 뮤지컬 <그대와 영원히>(~9.3)
- 2017 예술의전당 가족오페라 <마술피리>(~9.3)
- 전시 <위대한 낙서: 관람객, 예술가가 되었다>(~9.3)

7

- 2017 MEET 공연 <25시 11분: 시간거래>(~9.10)
- 2017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무용제(~9.9)
- 국립국악원 <목요풍류>(~11.30)
- <공간감展 - 공간(space)+ 공감(sympathy)>(~12.25)

8

- 예술로 놀이터 <몽글몽글, 그림자로 피어나다>(~11.17)
- 윤이상 프롬나드@서울로7017, 장미무대
- 2017 서로 낭독회(~9.24)
- 연극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10.29)

9

- 창작재움공방 정규공방 <판화로 만들어 보는 그림일기(가제)>(~10.28)
- 2017 MEET 전시+공연 <하이퍼 비트 Space' 프로젝트>(~9.17)
- 2017 거리예술시존제(가을)(~9.10) @DDP
- 한마음살림장

10

- 연극 <3일간의 바>(~9.10)
- 금호미술관 기획전 <빈 페이지 Blank Page>(~9.10)
- 2017 운영선 페스티벌 <파티>(~9.10)
- 전시 <카페소사이어티_끝나지 않은 여름 이야기>(~9.10)

14

- 연극 <에어콘 없는 방>(~10.1)
- 2017 MEET 전시 <죽은 시간 산 노동>(~10.2)
- 2017 운영선 페스티벌 <죽음의 집>(~9.24)
- 전시 <PLASTIC FANTASTIC(플라스틱 판타스틱): 상상 사용법>(~2018.3.4)

15

- 윤이상 프롬나드@윤술
- 2017 제2차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문화정책포럼 #2>
- 발레 <자젤>(~9.16)
- 연극 <장수상회>(~10.8)
- 2017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10.15)

16

- 2017 MEET 전시 <선영, 미영, 미영>(~10.2)
- 2017 거리예술시존제(가을)(~9.17) @DDP
- 바스락콘서트
- 윤이상 프롬나드@행화탕
- 제4회 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9.24)

17

- 윤이상 프롬나드@다시세운광장
- 제4회 서울국제생활예술 오케스트라축제 개막식
- 2017 서울메세나지원사업_연극열전 <노숙의 시>(~9.17)
- 뮤지컬 <이블데드>(~9.17)
- 전시 <풍속화 속의 농기구를 찾아라>(~9.17)

21

- 예술로 놀이터 <어린이 시티 플래너>(~11.9)
- 예술창작지원사업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슬픔>(~10.1)
- 스탠리 큐브릭의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 피터 밴스 콘서트
- 국립무용단 <춘상(春想)>(~9.24)

22

- 2017 서울메세나지원사업_창작오페라 <불량심청>(~9.30)
- 2017 거리예술시존제(가을)(~9.24) @서울로7017

23

- 국립극장 완창판소리 <유수정의 춘향가>
- 2017 랫츠락 페스티벌 VOL.11(~9.24)
- 2017 조이올파크페스티벌(~9.24)

24

- 야외미술교육 2017 꿈의숲 그림도시락(~9.24)
- 연극 <디너 포 유>(~9.24)
- 연극 <숨소리>(~9.24)

28

- 삼일로창고극장 개관 기념 행사
- 시작시간 워크숍 발표
- 국립국악관현악단 <2017 마스터피스-임현정>

29

- 2017 거리예술시존제(가을)(~10.1) @서울로7017
- 내 아이에게 同化(동화)되다 워크숍 발표
- 2017 비보컬 특별초청콘서트
- 베아트리에 라나의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 잔다리 페스타 2017(~10.1)

30

- 토요일은 청이좋아
- 한마음살림장
- 서울남산국악당 <연희본색>
- 호림박물관 고려 철화청자 특별전 <철, 검은 꽃으로 피어나다>(~9.30)
- 뮤지컬 <쿵쾅>(~9.30)

SAT_02



우이신설 도시철도 달리는 문화철도 개통

‘달리는 문화철도’는 문화와 예술이 녹아든 도시 철도로서 기존 지하철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아트, 공연들을 즐길 수 있는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또 다른 이름이다. 상업광고로 도배되어 있던 역사와 지하철 내부는 이제 그만! 문화철도에서는 문화예술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다양한 예술작품과 공연도 만날 수 있다.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공유도시’를 주제로 도시문제의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글로벌 학술·전시 축제인 ‘2017 서울 도시건축비엔날레’가 열린다. ‘공유도시’를 주제로 40여 개의 프로젝트 전시를 진행하는 ‘주제전’과 국내외 주요도시의 정책적 실험 및 전시 ‘도시전’, 서울 도시정책을 시민이 공감하고 체험하는 ‘현장 프로젝트’ 등으로 이루어진다.

일시 9월 2일(토)~11월 5일(일)

장소 돈의문박물관마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관람료 홈페이지 참조

문의 02-2096-0137, www.seoulbiennale.org



무민 원화전

국내 최초로 무민의 원화를 접할 수 있는 전시회가 개최된다. 핀란드 현지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몇몇 아트웍과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무민 원화 등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토베 얀손이 어떻게 무민이라는 소재로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어떠한 변화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한다.

일시 9월 2일(토)~11월 26일(일)

오전 11시~오후 8시(11월은 오후 7시까지)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관람료 어른 1만 3천 원, 중·고생 1만 1천 원,
어린이 9천 원

문의 02-837-6611

TUE_05



2017 신진국악실험무대

<별★난 소리판>

젊은 전통 성악가들이 직접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2017 신진국악실험무대 <별★난 소리판>은 지금껏 없던 우리 소리를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 전태원, 김주현, 윤대만, 이승민, 이동영 소리꾼이 참여해 색다른 실험적 무대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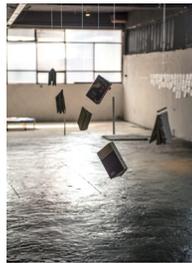
일시 9월 5일(화)~26일(화) 오후 8시

장소 서촌공간서로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2-730-2502

THU_07



2017 MEET 공연 <25시간>

대안적 세계시간, '25시간'을 경험하는 프로젝트. 설정된 가상의 시계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 퍼포머들의 일상 기록들로 구현된 가상공간을 관객들의 현실세계와 마주하게 한다. 이로써 현대인의 시간관념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 기능주의적인 현대인의 신체에서 벗어나 감각을 통해 교차하는 시간을 경험하게 하는 다원 예술 공연이다.

일시 9월 7일(목)~10일(일) 오후 8시

장소 인디아트홀공

관람료 1만 원

문의 02-2676-4332

FRI_08



2017 서로 낭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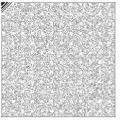
2016년 발표되어 문단과 독자의 주목을 받은 소설가 3인의 작품이 개성 강한 3인의 연출로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최은영 소설 <쇼코의 미소>, 김금희 소설 <너무 한낮의 연애>, 백수린 소설 <참담한 빛>의 낭독회가 진행된다.

일시 9월 8일(금)~24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서촌공간서로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2-730-2502



SAT_09



2017 MEET 전시+공연 <'하이퍼 비트 Space' 프로젝트>

전시와 공연이 결합된 형태의 멀티미디어적 공간 구축 프로젝트이다. 진동, 결정입자, 빛의 입자 등의 구성요소를 통해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가 결합된 '풍경'과 그곳으로부터 끊임없이 생산되는 '그루브'(Groove)의 연속성을 통해 참가자들의 감각을 확장시키며, 공간을 모듈화시키는 실험적인 작업이다.

일시 9월 9일(토)~17일(일)
공연 9일(토), 15일(금), 16일(토) 오후 7시
장소 문래예술공장 스튜디오M30
관람료 무료
문의 02-2676-4332

2017 거리예술시즌제(가을)

서울의 공원과 도심 등에서 4주에 걸쳐 8개의 거리예술 및 서커스 단체가 다양한 거리예술 공연을 선보인다. 9월 9~10일, 16~17일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2~24일, 29~10월 1일은 서울로7017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일시 9월 9일(토)~10월 1일(일)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로7017
문의 02-3437-0054

SUN_10



윤영선 작가 10주기 기념 '2017 윤영선 페스티벌'

극작가 고 윤영선의 10주기를 맞아 '2017 윤영선 페스티벌'이 열린다. 박해성 연출의 <파티>, 윤성호 연출의 <죽음의 집>에 이어 이성열 연출의 <여행>이 공연된다. 낭독공연으로는 극단 신작로의 <G코드의 탈출>, 극단 이루의 <임차인>, 극단 놀땅의 <취가 된 사나이>, 달나라동백꽃의 <미생자> 총 4편을 선보인다.

일시 ~10월 22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월 공연 없음)
장소 선돌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낭독공연 전석 1만 원)
문의 070-7918-9077



<카페소사이어티> 끝나지 않은 여름 이야기

서울미술관은 2017년 첫 기획전으로 '카페소사이어티'를 선보인다. 대중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고 예술을 접하는 공간인 '카페'를 미술관 안으로 끌어들여 현대적 문화 향유 공간으로서의 '카페'를 생각해본다.

일시 ~9월 10일(일) 오전 11시~오후 7시(월 휴관)
장소 서울미술관 제1전시실
관람료 어른 9천 원, 대학생 7천 원,
초·중·고생 5천 원, 어린이 3천 원
문의 02-395-0100

THU_14



남산예술센터 2017 시즌 프로그램 <에어콘 없는 방>

제6회 벽산희곡상 수상작 <에어콘 없는 방>은 한국 희곡에서 보기 드문 '의식의 흐름'에 따른 새로운 서사의 가능성을 열어 보인 흥미로운 작품이다. 1906년 하와이에서 태어나 한국, 상해, 미국에서 살았던 실존인물 '피터 현'에 대한 이야기를 입체적인 구성으로 담았다.

일시 9월 14일(목)~10월 1일(일)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일반 3만 원, 청소년 1만 8천 원
문의 02-758-2150



2017 MEET 전시 <죽은 시간 산 노동>

사회 안에서 하나의 노동을 포착해 미술 언어로 바꾼 전시이다. 김지원 작가는 한 벌의 옷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한 흔적을 보여주거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점심시간 종소리, 학교의 수업시간 종소리 등 시간 규제의 소리를 통해 경제활동 안에서 노동에 대한 부조리가 당연하게 느껴지거나, 알아도 무기력하거나, 은폐되는 일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진다.

일시 9월 14일(목)~10월 2일(월)
장소 Union
관람료 무료
문의 02-2676-4332

FRI_15

2017 제2차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문화정책포럼 #2>

광장 민주주의 그리고 예술행동 '예술을 매개로 한 연대, 그리고 도시 네러티브의 확장과 변화'를 주제로 한 정책포럼이 열린다. 예술가와 시민들의 결합을 통한 혁명이 도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뜻깊은 자리이다.

일시 9월 15일(금) 오후 3시~6시(예정)
장소 시민청 바스락홀
대상 문화예술 전문가, 시민
문의 02-3290-7196, 7138
solagrati@sfac.or.kr

SAT_16

2017 MEET 전시 <선영, 미영, 미영>

선영, 미영과 같이 평범한 이름을 가진 여성들의 꿈 이야기를 고대 신화 속 여성적 괴물로 드로잉한 작업을 통해 담아낸다. 신화 속 괴물들이 우리 시대 여성들의 자화상으로 다시 그려질 때 발생하는 쾌의 감각으로 오랜 가부장제 역사 속에서 덧씌워진 여성혐오의 이미지들을 비틀어보는 전시이다.

일시 9월 16일(토)~10월 2일(월)
장소 space xx
관람료 무료
문의 02-2676-4332



제4회 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

'모두의 오케스트라'(Orchestra for All)라는 슬로건 아래 '제4회 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SICOF, Seoul International Community Orchestra Festival)가 열린다. 서울을 대표하는 생활예술축제로 올해에는 전세계 54개 단체, 3,400여 명의 아마추어 음악인이 함께한다.

일시 9월 16일(토)~24일(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광화문광장
문의 02-3290-7418, 7445



[SICOF 2017] 다큐멘터리 <랜드필 하모니> 상영 및 Q&A

파라과이 '카테우라재활용오케스트라'가 SICOF 2017에 공식 초청되어 처음 한국을 찾는다.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어 전 세계에 감동을 준 다큐멘터리 <랜드필 하모니>가 상영된다. 파라과이의 쓰레기 매립지인 카테우라에서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만든 악기로 희망을 연주하는 아이들의 이야기이다.

일시 9월 16일(토) 오후 3시
장소 씨네큐브
관람료 무료
문의 02-3290-7449

SUN_17

[SICOF 2017] 1000인의 오케스트라

제4회 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 개막 사전 공연. SICOF과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하여 서울시 435개 학생 오케스트라의 대표와 파라과이의 카테우라재활용오케스트라가 함께 1인 1악기 캠페인의 목소리를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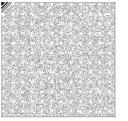
일시 9월 17일(일) 오후 3시
장소 광화문광장
문의 02-3290-7449



2017 서울메세나지원사업 연극열전 <노숙의 시>

영미 현대 희곡의 대표작으로 불리는 에드워드 올비의 <동물원 이야기>를 이윤택 연출이 다시 쓰고 연출해 <노숙의 시>로 선보인다. 한 벤치에서 벌어지는 '제리'와 '피터' 두 남자의 이야기로,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고뇌와 고독,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애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이다.

일시 ~9월 17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
(월 공연 없음)
장소 30스튜디오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2-766-9831



MON_18



위댄스 버스

2017년 서울에는 춤 워크숍과 공연을 겸비한 '위댄스 버스'가 달린다. '위댄스 버스'는 무대와 춤을 싣고 시민들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나 찾아가 춤판을 벌이며 생활예술 댄스 활성화에 앞장선다.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는 '위댄스 버스' 프로그램은 다양한 춤 공연과 함께 '누구나 춤' 시민 워크숍을 진행하여 많은 시민들이 위댄스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일시 9월 18일(월)~10월(예정)

장소 서울 곳곳

대상 누구나

문의 02-3290-7418



[SICOF 2017]

카테우라재활용오케스트라 특별공연

"세상은 우리들에게 쓰레기를 주었지만, 우리는 음악을 돌려줍니다." 카테우라재활용오케스트라는 파라과이의 대표적 쓰레기 매립지인 카테우라의 청소년들을 위해 창단되었다. 2015년에 제작된 다큐멘터리 <랜드필 하모니>가 전 세계 30여 개의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며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고, 현재 세계 주요 도시에 초청되어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카테우라재활용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도 마련된다.

일시 9월 18일(월) 오후 7시

장소 KT스퀘어 드림홀

관람료 무료

문의 02-3290-7449

TUE_19



제13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문화콘텐츠의 핵심 자원인 책을 기반으로 출판 관계자 및 아티스트, 일반 시민이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인문학 및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폭넓은 독서 문화를 조성하는 책문화 예술축제이다. 올해 서울와우북페스티벌에서는 한국 사회가 맞은 큰 변화의 기점에서 정치와 경제, 문화와 예술, 사회 전반에 걸쳐 '다음에 오는 것들'을 주제로 포럼 및 대중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시 9월 19일(화)~24일(일)

장소 홍대 주차장 거리 및 주변 공간

문의 02-376-1586



2017 서울메세나지원사업

세종솔로이스츠

<다비드 프레이 & 세종솔로이스츠>

'바흐 스페셜리스트'로 국제적 명성을 쌓아온 다비드 프레이와 세종솔로이스츠가 협연한다. 'Bach and Beyond'라는 부제의 이번 공연에서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와 그를 선망했던 작곡가들의 작품을 유기적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일시 9월 19일(화)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12만 원, S석 9만 원, A석 7만 원,
B석 5만 원, C석 1만 원

문의 02-584-5494

THU_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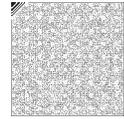
[SICOF 2017] 서울생활예술선언

세계 각국의 생활예술음악인이 서울에 모이는 SICOF 개최를 계기로 생활예술을 정의하고 그 의의와 사회적 역할, 실행 강령을 제시하는 서울생활예술헌장 및 선언문을 발표한다. 또한 SICOF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인 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SICO)를 처음 선보인다.

일시 9월 21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시민청 활짝라운지

문의 02-3290-7449



연극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슬픔>

서울문화재단 주관 예술창작지원사업 선정작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슬픔>이 관객을 찾는다. '광주의 비극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희극적이고 다소 우스워 보이는 밑바닥 인생들의 좌충우돌 모습을 통해 우리들이 80년 광주의 슬픔을 '충분히 애도'하였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일시 9월 21일(목)~10월 1일(일) 화~금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4시

장소 예술공간 오르다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창작집단 상상두목 0505-041-0707



국립무용단 <춘상(春想)>

한국의 고전소설 <춘향전>에서 모티프를 가져왔다. 고전소설 속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가 졸업파티에서 첫눈에 반한 이 시대 청춘남녀의 이야기로 시공간을 이동한다. 8가지 키워드로 구성된 장면을 통해 사랑의 보편적인 감정을 춤으로 표현한다.

일시 9월 21일(목)~24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VIP석 7만 원,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02-2280-4114

FRI_22



2017 서울메세나지원사업_창작오페라 <불량심청>

심청과 뱀모, 누가 이길까? 효부와 불효녀의 한판? 과연 심청은 효녀인가? 뱀모는 나쁜 사람인가? 품격 있는 해학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우리의 문학을 전달하는 오페라 공연이다.

일시 9월 22일(금)~30일(토)
평일·토 오후 7시 30분, 일 오후 5시

장소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2-572-6773

FRI_29



2017 비보컬 특별초청콘서트

세계 최고 권위의 아카펠라 페스티벌(A Cappella Competition of Harmony Sweepstakes)의 최종 결선인 보컬 하모니 뮤직의 뉴욕 프리미엄 공연에서 우승과 동시에 5관왕을 석권한 비보컬 특별 초청 콘서트가 열린다.

일시 9월 29일(금) 오후 8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VIP 11만 원, R석 8만 8천 원, S석 6만 6천 원,
A석 4만 4천 원, B석 3만 3천 원

문의 02-597-9870



잔다리 페스타 2017

록, 힙합, 일렉트로니카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 밴드 60팀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아시아, 미국 등지에서 가장 주목받는 라이징 뮤지션 60팀, 총 120팀의 밴드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라이브 뮤직 쇼 케이스다.

일시 9월 29일(금)~10월 1일(일)

장소 무브홀, 상상마당 외 흥대일원 공연장

관람료 티켓별 가격 상이

문의 070-8231-2013

SAT_30



뮤지컬 <콩짜>

박옥희는 단편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 속에서 살아왔다. 요즘 사람들이 소설을 점점 멀리하는 모습을 본 옥희는 직접 나서서 소설을 들려주기로 결심한다. 노래와 춤을 곁들인 뮤지컬이라는 형식으로 말이다. 그렇게 옥희는 소설 속에서 나와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어머니와 손님, <동백꽃>의 점순이와 소년, <운수 좋은 날>의 김침치와 부인의 사랑 이야기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일시 ~9월 30일(토)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4시·8시, 토 오후 3시·6시, 일 오후 4시

장소 동숭아트센터

관람료 4만 원

문의 02-744-4331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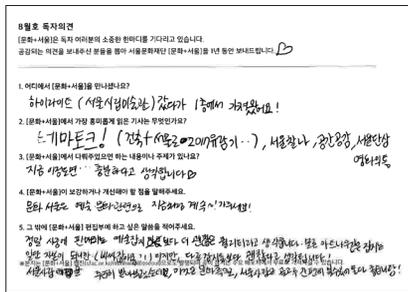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unhwaplusseoul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독자엽서



변윤수 님(서울시 송파구)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하이라이트> 전(서울시립미술관)에 갔다가 1층에서 가져왔어요!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테마파크! (건축+서울로7017 유람기...), 서울 찻나, 공간, 공감, 서울 단상, 영화의 틈.

3. [문화+서울]에서 다루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가 있나요?

지금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4. [문화+서울]이 보강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주세요.

[문화+서울]은 예술·문화 관련으로 지금처럼 계속~ 가주세요!

5. 그 밖에 [문화+서울]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정말 시중에 판매되는 예술잡지보다 퀄리티가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트나우' 같은 잡지는 일단 자본이 되니까... (비싸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잡지들보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사랑]을 꾸준히 받아보고 있는데, [문화+서울]은 문화 측면으로, [서울사랑]은 골고루 간편히 볼 수 있어 둘 다 좋습니다!

4인용 식탁



더 즐겁고 더 행복한

"당신은 내 인턴이자 최고의 친구죠"

영화 <인턴> 중에서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대학생 인턴과 글로벌 인턴, 인턴 같은 사원이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인턴을 배려한 음식과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울문화재단 안에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대학생 인턴 전지영, 글로벌 인턴 나디아(NADIA), 황기성

편집 후기

달리는 문화철도에 놀러 오세요.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IT홍보팀장

처서가 지났다. 상강에는 립스틱을 사야지.

안현미 서울문화재단 IT홍보팀 차장

조용히 또 한 권이 나옵니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우물쭈물하다 하루가 가고 어영부영하다

여름이 가네요.

윤선희

[문화+서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 금천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남산창작센터, 동숭아트센터, 대학로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희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현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중랑아트갤러리, 하자센터, 한국공연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